

짜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History of 짜보선창

1380 진포대첩
세계최초 함포해전

기벌포(伎伐浦) 진포(鎭浦)



죽성포(竹城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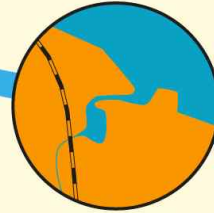
군산8경

1899 군산항 개항



1915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한국최초근대수산교육기관

1923



짜보선창
조성

동빈정(東濱町)

1933 민야암등대 점등



1934 동빈정 어시장
연간거래액 25만원
(현재가치 250억)



금암동(鎭岩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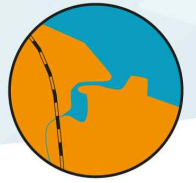


1978 셋강 복개공사

2017 중암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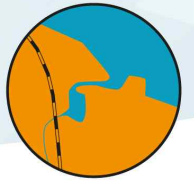
제1장 과업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배경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 수행	1
5. 과업 내용	2
5.1 째보선창에 대한 자원 및 자료의 조사·수집과 기록화	2
5.2 인물·공간에 대한 자원 및 자료의 조사·수집과 기록화	2
5.3 째보선창가 홍보방안 제시	2
제2장 째보선창 아카이빙	3
1. 문헌	3
1.1 문헌	3
1.2 문학	9
2. 지도	17
2.1 째보선창 및 인근 지도	17
3. 사진	34
3.1 째보선창 및 부근 사진	34
4. 보도자료	62
4.1 보도자료 목록	62
5. 사람	105
5.1 째보선창 인물	105



제3장	째보선창 홍보방안	125
1.	가상복원 영상	125
1.1	시나리오	125
2.	가상복원 방안	127
2.1	미디어별 특징과 적용 방법 제안	127
2.1.1	미디어 파사드	127
2.1.2	프로젝션 매핑	128
2.1.3	위터 스크린 프로젝션	129
2.1.4	가상현실, 증강현실	130
2.1.5	루미스톤	131
2.1.6	로고젝터	132
3.	째보선창 관광콘텐츠	133
3.1	폐철도 활용방안	133
3.1.1	부두선 구간 무가선 관광트램	133
3.1.2	째보선창 관광콘텐츠 제안	134
3.2	기존시설활용	137
3.2.1	째보스토리1899	137
3.2.2	민야암 등대	138
3.2.3	수문	139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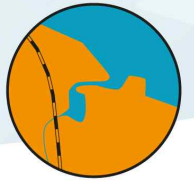
[표 1]	과업 수행 일정	2
[표 2]	문헌 목록	4
[표 3]	한국안내(韓國案内)	5
[표 4]	군산안내(群山案内)	6
[표 5]	부의군산(富之群山)	7
[표 6]	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	8
[표 7]	군산부사(群山府史)	9
[표 8]	문학 목록	10
[표 9]	아리랑(소설)	11
[표 10]	은파에서 째보선창까지(수필)	12
[표 11]	탁류(소설)	13
[표 12]	나의山河 나의 삶(소설)	14
[표 13]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소설)	15
[표 14]	째보선창(시)	16
[표 15]	째보선창(시)	16
[표 16]	째보선창 갑술이(시)	17
[표 17]	지도 목록	18
[표 18]	지도	19
[표 19]	지도	20
[표 20]	지도	21
[표 21]	지도	22
[표 22]	지도	23
[표 23]	지도	24
[표 24]	지도	25
[표 25]	지도	26



[표 26] 지도	27
[표 27] 지도	28
[표 28] 지도	29
[표 29] 지도	30
[표 30] 지도	31
[표 31] 지도	32
[표 32] 지도	33
[표 33] 지도	34
[표 34] 사진 목록	35
[표 35] 개항이전의 군산	37
[표 36] 군산경찰서	38
[표 37]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	39
[표 38] 군산부영 서해안 철로	40
[표 39] 군산부영 어시장	41
[표 40] 군산부영동빈창고	42
[표 41] 군산수산학교	43
[표 42] 군산항	44
[표 43] 군산항	45
[표 44] 군산항 쌀 수출	46
[표 45] 군산항 1960년대	47
[표 46] 군산항과 시가	48
[표 47] 군산항과시가_개항기념엽서	49
[표 48] 민야암 등대	50
[표 49] 선상에서 장작 소매하는 광경	51
[표 50] 짚보선창의 옛모습	52
[표 51] 한국주정공업주식회사 군산공장	53
[표 52] 짚보선창 1952	54

째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표 53] 항공사진 1954	55
[표 54] 항공사진 1954 부분확대	56
[표 55] 항공사진 1966	57
[표 56] 군산오염실태	58
[표 57] 항공사진 1984	59
[표 58] 항공사진 2005	60
[표 59] 항공사진 2011	61
[표 60] 항공사진 2020	62
[표 61] 보도자료 목록	63
[표 62] 群山魚市場竣工(군산어시장준공)	64
[표 63] 群山港は自然的に恵まれたる良港	65
[표 64] 群山朝鮮人(군산조선인) 萬六千九百(만륙천구백)	67
[표 65] 群山東濱町(군산동빈정)에 漁市場(어시장)을設置(설치)	68
[표 66] 問題(문제)의東濱町魚市場(동빈정어시장)新築入札(신축입찰)도完了(완료)	69
[표 67] 群山港의漁夫들로 總數는千五百名	70
[표 68] 「맑은來日(내일)」을 위하여 (6) 第一部(제일부) 汚染(오염)의 實態(실태) [6] 群山(군산)	71
[표 69] 群山(군산)에 종합魚市場(어시장) 錦岩洞(금암동)에 내년완공	74
[표 70] 째보선창을 아십니까	75
[표 71] "세느강떠나মন우리는모다죽어요!"	76
[표 72] “식당꿀은우습지만,최불암도왔다간‘명가’에유”	80
[표 73] 세느강변에서돼지국밥한그릇말아묵자	83
[표 74] 째보선창어부들,‘금비라신’믿으라니얼마나황당했을까	86
[표 75] 황석어가‘참조기를달리이르는말’이라고?	89
[표 76] 군산개항117주년	92
[표 77] "상어는뜨거운물로목욕시켜먹는거여!" 조종안기자의째보선창생선이야기	95



[표 78] 죽성포구,언제부터 '째보선창'이라부르기시작했을까 사진과기록으로보는군산째보선창100년(1)	99
[표 79] 째보선창생선도독을 '갈매기'라부른까닭은 사진과기록으로보는군산째보선창100년(3)	102
[표 80] 인터뷰 대상자 목록	106
[표 81] 조종안	112
[표 82] 송정록(개야도수산)	112
[표 83] 이순심(선술집)	123
[표 84] 이태용(한일어구)	123
[표 85] 이규봉(대동죽재)	123
[표 86] 조규철(진우수퍼)	123
[표 87] 이분례(중동집)	124
[표 88] 이영자(만흥집)	125
[표 89] 가상복원 시나리오	126

<그림 차례>

그림 1	군산콘텐츠팩토리	128
그림 2	민야암등대	128
그림 3	경기화학 사일로와 담장(트램구간)	128
그림 4	짜보선창 수문	128
그림 5	짜보선창 수문	129
그림 6	짜보스토리 1899	129
그림 7	워터 스크린 예시	130
그림 8	여수빅오쇼	130
그림 9	민야암등대	130
그림 10	기존앱 메인화면	131
그림 11	부잔교	131
그림 12	기존앱 AR실행 화면캡처	131
그림 13	짜보스토리 1899	131
그림 14	루미스톤 주간 야간	132
그림 15	짜보선창 수문	132
그림 16	돼지국밥집 골목	132
그림 17	로고젝터1	133
그림 18	로고젝터2	133
그림 19	짜보선창 수문	133
그림 20	돼지국밥집 골목	133
그림 21	무가선 관광트램 1구간 정거장 및 건널목 검토 초안	134
그림 22	철로 주변(경기화학 담장)	135
그림 23	철로 주변(도시재생숲 건널목)	135
그림 24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경기화학 담장)_주간	136
그림 25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경기화학 담장)_야간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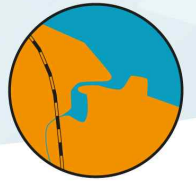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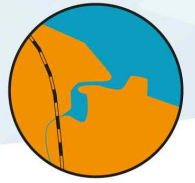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그림 26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도시재생숲 건널목)_트릭아트	137
그림 27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도시재생숲 건널목)_루미스톤	137
그림 28 재보스토리 1899 외부	138
그림 29 재보스토리 1899 주변	138
그림 30 민야암등대	139
그림 31 민야암 등대	139
그림 32 기존시설(민야암등대) 활용방안 예시_워터스크린	139
그림 33 수문 앞면	140
그림 34 수문 뒷면	140
그림 35 기존시설(수문) 활용방안 예시_매직월	140
그림 36 기존시설(수문) 활용방안 예시_강화유리바닥	141

째보선창가 스톨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제1장 과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1.1 과업명

- 「짜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1.2 과업의 배경

- 군산 문화유산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쇠퇴한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군산 짜보선창의 문화자원을 활용,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이에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문화·역사, 사람, 공간에 대한 기초
- 자료 조사와 수집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자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함

2. 과업의 목적

- 기초자료 조사·수집·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2021년「짜보선창가 문화스토리텔링」아카이빙용역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기간 동안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스토리뱅크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등을 총괄 지원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 현재
- 공간적 범위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 위 치 - 군산시 중앙동 일원(짜보선창가)
- 면 적 - 158,385㎡
- 내용적 범위 : 대상지의 문화·역사, 사람, 공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초자료의 조사·수집과 기록

4. 과업 수행

[표 1] 과업 수행 일정

과업의 내용	4			5			6			7			8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자원조사 및 아카이빙													
자료수집 및 기록화													
홍보 방안													
성과품 작성													

5. 과업 내용

5.1 짜보선창에 대한 자원 및 자료의 조사·수집과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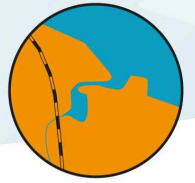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 짜보선창에 대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화하는 DB구축
 - 서적, 논문, 관련기관 등을 통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지도, 서적, 논문, 관련기관 등을 통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현장 조사 :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역사 자원의 위치 확인, 사진촬영 등을 실시
 - 조사 대장 서식 및 조사 목록은 군산시와 협의하여 결정
- 짜보선창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방안 수립

5.2 인물·공간에 대한 자원 및 자료의 조사·수집과 기록화

- 중앙동 지역의 역사적 인물 및 장소는 물론, 현재 대상지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단체에 대한 현황과 활동 내용 기록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 주민들의 평범한 삶 이야기, 인생의 일화, 사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중앙동만의 특별한 장소(지역 전통시장, 동네 사랑방·공방·맛집 등) 기록
- 짜보선창가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중앙동의 문화·역사, 짜보선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및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역사 자원 및 주민 주체 발굴
 - 워크숍은 6회 이상 실시하고 강의자료 및 일정 등은 사전에 군산시와 협의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울 경우 개별/소규모로 진행)
 - 워크숍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문화·역사·인물 등을 기록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 주민들의 평범한 삶 이야기, 인생의 일화, 사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짜보선창만의 특별한 장소(지역 전통시장, 동네 사랑방·공방·맛집 등) 기록

5.3 짜보선창가 홍보방안 제시

- 짜보선창가 가상복원 영상 제작 및 가상복원 방안 제시
- 짜보선창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요소 및 관광콘텐츠 생성



제2장 꾀보선창 아카이빙

1. 문헌

1.1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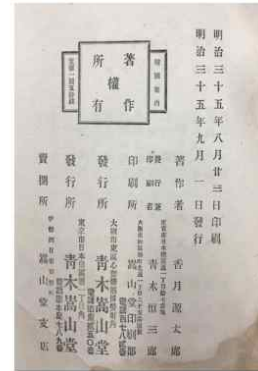
[표 2] 문헌 목록

문헌제목	발행인(처)	발행년도	키워드
한국안내(韓國案内)	가츠키 겐타로 香月源太郎	1902	일본인들의 방문 및 이주
군산안내(群山案内)	지바 가즈노리 千葉胤矩)	1915	군산소개, 생활 참고자료
부의군산(富之群山)	미와 다다시 三輪規 마츠오카 다쿠마 松岡塚磨	1907	죽성춘하(竹城春霞)
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	호다카 마사키 保高正記 무라마쓰히로유키 村松祐之	1925	군산개항 이후 항목별 현황,
군산부사(群山府史)	아키야마주사부로 秋山忠三郎	1935	개항 35주년

짜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표 3] 한국안내(韓國案内)

문헌제목	발행인(처)	발행년도	키워드
한국안내(韓國案内)	가츠키 겐타로 香月源太郎	1902	일본인들의 방문 및 이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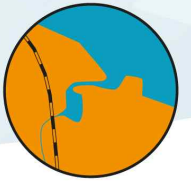


1)

주요내용

· 『한국 안내』는 총론과 9개의 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지세와 행정, 지방제(地方制), 호구, 농업 등 조선의 전반적인 실정이 소개되어 있다. 제1장부터는 경성과 인천, 진남포, 평양, 원산, 군산, 목포, 마산, 부산 등 조선 내 개항장과 개시장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당시의 사회·경제적 실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진출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실측도가 첨부되어 있어 당시의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²⁾

1) 「한국안내(韓國案内)(全)」 표지(좌); 속표지(중), 저작권표기면(우),
출처: 「한국안내(韓國案内)」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박성신. 2018
2)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표 4] 군산안내(群山案内)

문헌제목	발행인(처)	발행년도	키워드
군산안내(群山案内)	지바 가즈노리 (千葉胤矩)		
사진			



目次

一	總 說	三
二	位 置 地 理 概 況	三
三	自 治 體 制	九
四	自 治 體 制	九
五	自 治 體 制	九
六	自 治 體 制	九
七	自 治 體 制	九
八	自 治 體 制	九
九	自 治 體 制	九
一〇	自 治 體 制	九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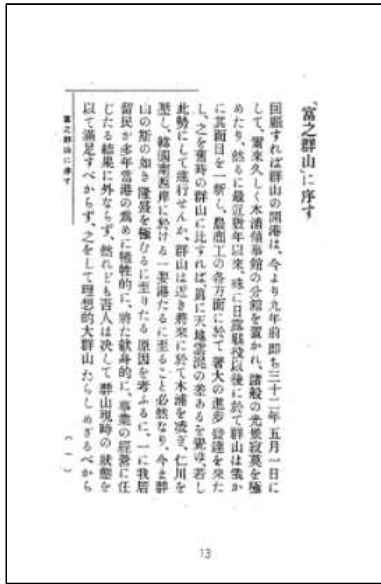
· 조선총독부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강점 5년을 기념하고 식민지 경영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경복궁과 인천에서 개최했다. 이를 위해 37개 지역에서는 협찬회(協贊會)나 관람장려회(觀覽獎勵會)가 조직되었다. 본 자료 역시 군산협찬회에서 공진회를 찾는 타 지역 사람에게는 군산을 소개하기 위해, 군산지역 사람에게는 생활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하였다. 준비 기간이 짧았기에 내용보다는 통계 자료 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당시 군산의 경제 상황, 물가, 지가 등의 대략 자료가 권말에 추가되어 있다. 이후 1926년에도 동명의 서적이 출판되었다. 4)

3) 한국학종합DB
4)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표 5] 부의군산(富之群山)

문헌제목	발행인(처)	발행년도	키워드
부의군산(富之群山)	미와 다다시 三輪規 마츠오카 다쿠마 松岡塚磨	1907	죽성춘하(竹城春霞)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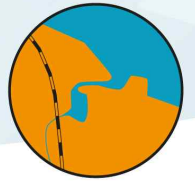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주요내용

· 군산의 지세, 금강·만경강·동진강·섬진강 등 주변의 강들, 연혁, 개항 당시와 책 간행 당시의 비교, 거류지의 민회 조직, 거류지의 민단, 군산의 사회적 변천, 군산의 역대 통솔자, 삼한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산 지역의 역사, 군산과 전쟁, 동학과 군산, 전라도·충청도의 호구수, 교육, 종교, 풍속, 인정, 기후, 위생, 농업, 상업, 공업, 무역, 농법, 교통, 군산 주변 도시[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등 구성이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다.⁶⁾

· 군산8경 중 죽성춘하(竹城春霞) - 금강에서 바라보는 죽성리 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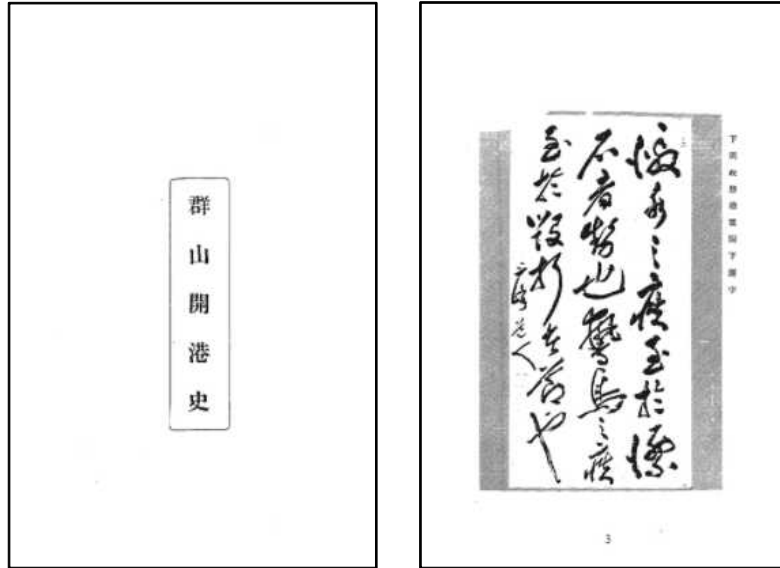
5) 한국학중앙연구원
6)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표 6] 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

문헌제목	발행인(처)	발행년도	키워드
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	호다카 마사키 保高正記 무라마쓰히로유키 村松祐之	1925	군산개항 이후 항목별 현황,

사진



주요내용⁸⁾

· 『군산 개항사』는 군산이 근대적인 항구 도시로서 개항한 이후의 역사를 교육회, 거류민회 등의 일본인 조직이나 철도, 항만 등의 근대 시설의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군산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일본인의 시각으로 서술한 책

· 작은 시골마을에서 항구도시로 바뀌는 과정

· “세관 옥상에도, 부두에도, 도로에도 눈길 가는 곳마다 도처에 수백 가마씩 쌓여 20만 쌀가마니가 정열하였으니…오호 장하다! 군산의 쌀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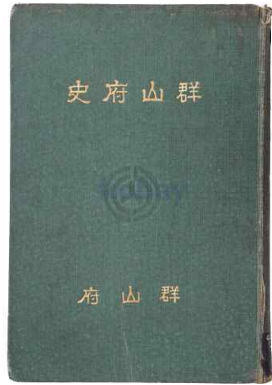
7) 한국학종합DB

8)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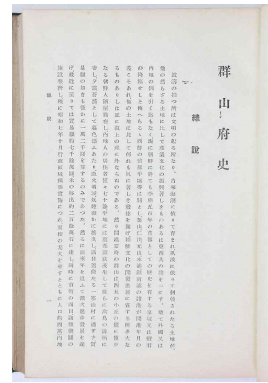
[표 7] 군산부사(群山府史)

문헌제목	발행인(처)	발행년도	키워드
군산부사(群山府史)	秋山忠三郎 아기야마주사부로	1935	개항 35주년

사진



9)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발간되는 도지(道誌)·군지(郡誌) 등과 같은 성격으로 개항 시기부터 1934년까지의 군산의 정치·사회·경제 등 군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기술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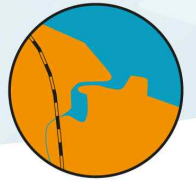
- 군산부 연혁, 개항,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군산부 행정, 재산, 중요 시설, 교육기관, 교통·통신, 무역, 상공업, 관공서 등 분야별로 당시 군산의 현황과 사진

짜보선창 지역 관련 내용

- 동빈 공동하역장은 연안 무역상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대부분 특정인이 점용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정비하여 총 면적 2,160평 중에 창고(上屋) 1,116평을 건축하고 배후에 철도 연결선을 부설하여 연안 무역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것으로 공사비 59,000원을 계상한 것
- 어시장은 주로 조선인 대상의 조기, 갈치와 기타 잡어류, 염건어(鹽乾魚)로 거래액은 1년간 25만원 내외이다.
- 항만 설비: 해망정에 잔교(棧橋) 1기, 서빈정에 물양잔교(物揚棧橋) 2기, 동빈정에 물양잔교 3기를 증설하고자 공비 7,300원을 계상

9) 이미지출처: 코베이옥션, <https://kobay.co.kr>

10) 한국학중앙연구원



1.2 문학

[표 8] 문학 목록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소설	아리랑	조정래	1994
수필	은파에서 짜보선창까지	최영	1995
소설	탁류	채만식	1937
소설	나의 山河 나의 삶	고은	1991
소설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노형석	2004
시	짜보선창	고현	미상
시	짜보선창	이병훈	미상
시	짜보선창 갑술이	고은	1986

[표 9] 아리랑(소설)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소설	아리랑	조정래	1994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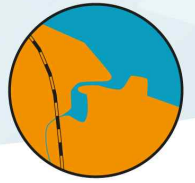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개요

총 4부작으로 12권의 단행본으로 짜여 있다.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때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역사적, 사실적, 시대 고발적이며, 민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민중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정래 작가의 의도는 일제 강점기에 치열하게 저항하며 수많은 고난을 끈질기게 버텨 낸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함으로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에 있다.¹¹⁾

째보선창 지역 관련 내용

- 》 째보선창은 모하게도 땅이 양쪽으로 찢어지듯 갈라지듯 하면서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배들을 대기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창이 되었고, 날마다 작은 배들이 바글거렸다. 배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자연히 객주집들이 많아지게 되고, 일거리를 찾아 막일꾼들이 언제나 북적거렸다.
- 》 "역시 떡장사는 째보선창이 가장 잘된다는 것이었다. "자리야 걱정 말고 아무 때고 나오라등마." 손판석이 보름이와 부안댁에게 전해 준 서무룡의 말이었다. 보름이가 떡함지를 이고 나가는 날 서무룡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이 보름이를 맞이해서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길목이라는 것을 보름이는 나중에야 알았다. 주먹패들은 보름이한테서는 자릿세를 받아가지 않았다."

11) 위키백과 - 아리랑(소설)



[표 10] 은파에서 재보선창까지(수필)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수필	은파에서 재보선창까지	최영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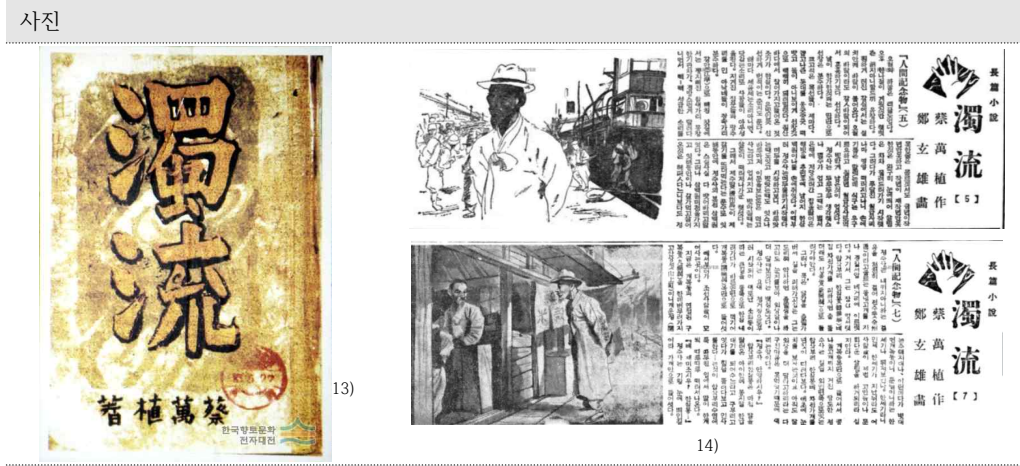
개요

최(최영) 시인이 1973년 7월1일 군산 시청 부시장실에서 공무원 임용 발령장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진솔한 고향이야기¹²⁾

12) 훗날 저승에서 소주 한 잔 합시다. 조종안. 오마이뉴스 2011.07.11

[표 11] 탁류(소설)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소설	탁류	채만식	1937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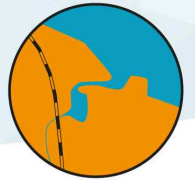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채만식의 장편소설. 조선일보에서 1937년 10월 12일부터 1938년 5월 15일까지 연재되었다가 1949년에 민중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¹⁵⁾

짜보선창 지역 관련 내용

》 선창은 분주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를 용긱중긱 떠받고 물이 안보이게 선창가로 뻑뻑이 들이밀렸다. 칠산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온 젓조기가 한창이다. 은빛인 듯 싱싱하게 번쩍이는 준치도 푼다. 배마다 썸 세는 소리가 아니면 닻 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

강안(江岸)으로 뻗친 찾길에서는 꿈지 빠진 참새같이 방정맞게 생긴 기관차가 경망스럽게 달려다니면서, 뻑뻑 성급한 소리를 지른다. 그럴라치면 멀찍이 강심에서는 커다랗게 드러누운 기선이, 가끔가다가 우웅 하고 내송스럽게 대답을 한다. 준설선이 저보다도 큰 크레인을 무겁게 들먹거리면서 시커먼 개흙을 파 올린다. 마도로스의 정취는 없어도 항구는 분주하다.

13) 한국학중앙연구원
14) 조선일보
15) 나무위키



[표 12] 나의山河 나의 삶(소설)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소설	나의山河 나의 삶	고은	1991



개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경향신문에 연재된 고은의 자전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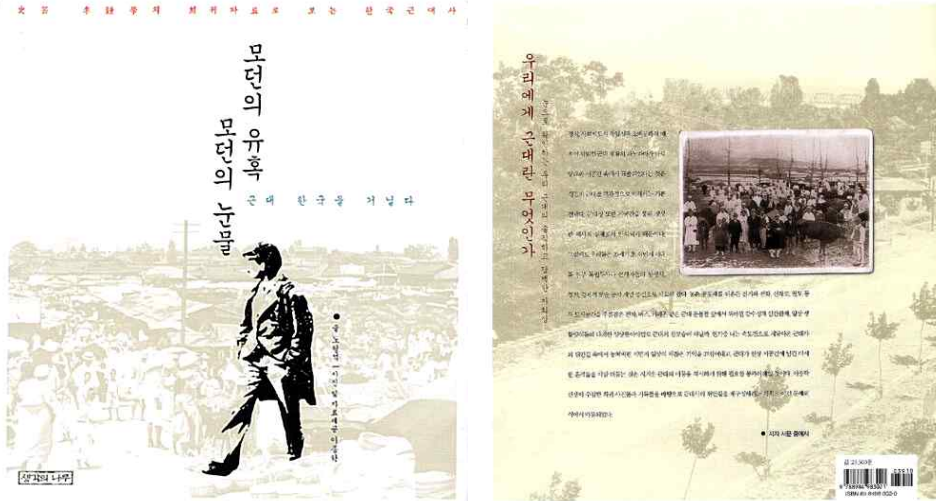
짜보선창 지역 관련 내용

- 》 아침나절에 군산 내항의 어선 부두인 짜보선창에 도착했다. 돛대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나는 ‘임립(林立)’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중선 쌍돛대 세돛대의 배들이 거의 항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4백평정도의 선창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 》 임립(林立)한 짜보선창의 빈 돛대들이여 언제이러뇨 너희들에게 휘날릴 대양(大洋) 위의 기치(旗幟)...

16) 경향신문 1991.07.25

[표 13]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소설)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소설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노형석	2004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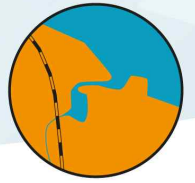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개요

근대 자료수집가 이종학 선생이 평생 발굴 수집한 290장의 희귀 사진과 도판을 통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한국 근대의 역사적 풍경과 그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살펴보는 책. 일제침략사와 관련된 사료들을 바탕으로 근대사의 숨겨진 이면들을 재성찰하는 이 책은 식민지 시대의 세상과 일상에 대한 가치관들을 새롭게 보여주며 기억 속에 묻혔던 근대성의 생채기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1920년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경성상가지도'를 부록으로 실었다.¹⁷⁾

째보선창 지역 관련 내용

군산 시가지에는 논, 밭, 집을 저당 잡히고 미곡 투기놀음에 골몰하는 조선의 미두꾼과 고리대로 한몫 보려는 일본 정상배, 낭인들이 몰려들어 그 자체로 범죄와 모략, 궁핍이 뒤섞인 인간 탁류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17) 교보문고



[표 14] 꾀보선창(시)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시	꾀보선창	고현	미상
전문			

여기서는 역세계 바다만 퍼올린다.
여기서는 바다를 퍼올린 배들이 모여 계속 출렁거린다.
여기서는 퍼올린 바다를 나눠준다.
깊은 내륙이나 가까운 마을을 가리지 않고 나눠준다.
나누어 가진 바다는 거기에서는 살아 출렁거린다,
출렁거리는 그 많은 비늘.
여기서는 이 세상 모든 비닐이 모여 반짝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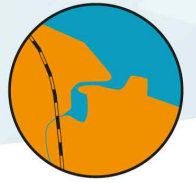
[표 15] 꾀보선창(시)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시	꾀보선창	이병훈	미상
전문			

태어나는 날씨마다 흐리다.
태어나는 바람이 짜다.
흐리고 짠 우리들의 물결 안에
소주보다 독한 피를 나눌 때는 올 것인가

[표 16] 짜보선창 갑술이(시)

유형	제목	저자	출판년도
시	짜보선창 갑술이	고은	1986
전문	<p>그렇지 짜보선창 갑술이 모르면 그 갯냄새 물고 다니는 갑술이 모르면 군산 사람 아니지 군산 손님 아니지 언제나 짜보선창에서 제5부두 제3부두 제1부두 지나 도선장까지 해망동까지 갯바람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절뚝거리는 갑술이 금강 하류 물새 아바인가 물새더러 야 자 불러대고 사람이 길 물으면 어김없이 딛 길 일러주고 혼자 길길거리는 갑술이 누구한테 한 대철부덕 얻어맞고도 길길 웃어대는 갑술이 선창가 가게주인 간밤 술타령으로 깜박 조는데 그런 때 놓칠세라 슬쩍 굶은 손짓 하다가 들켜버려 빗자루 막대기로 실컷 얻어맞고 나서도 길길 웃어대는 갑술이 뽀뽀머리에 큰 도장밥 나서 나이 천살 처먹고도 그냥 열대여섯살 그대로인가 이어온 조상 없고 이어나갈 자손 없는 갑술이 경인년 홍수 나서 불 지나간 데는 자취 있어도 물 지나간 데는 자취 없는데 그런 큰물 진 뒤의 해망동 거리 단 한 사람 길길거리는 사람 갑술이 가재도두 다 떠내려보낸 사람들 집 무너진 사람들 가슴 쥐어뜯으면 울부짖는데 단 한 사람 길길 웃어대는 갑술이 오 그대 해동 공자인가 공자의 사촌 천치 백치인가</p>		



2. 지도

2.1 재보선창 및 인근 지도

[표 17] 지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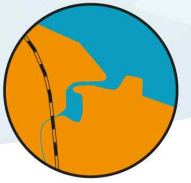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190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	-	1902	190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_군산개항전사.png
191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	-	1912	191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_군산개항전사.png
개항 전 군산 그림지도	-		개항 전 군산 그림지도 - © 동국사.png
고지도	-	1884	고지도_1884_地圖.二_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지도 컬렉션.png
군산	1:10,000	1917	군산 1917 10k.jpg
군산	1:25,000	1917	군산 1917 25k.jpg
군산	1:50,000	1964	군산 1964 50k.png
군산부 구역도	-	연도미상	군산부 구역도_국가 기록원.pdf
군산시가도	1:10,000	연도미상	군산시가도(群山市街圖) 연도미상.jpg
군산시가지개형도	1:12,000	연도미상	군산시가지개형도_국가 기록원.pdf
군산시장	-	연도미상	군산시장_군산개항전사.png
지형도	1:25,000	1970	지형도(25k)_1970.png
지형도	1:25,000	1980	지형도(25k)_1980.png
지형도	1:25,000	1990	지형도(25k)_1990.png
지형도	1:25,000	2000	지형도(25k)_2000.png
지형도	1:25,000	2015	지형도(25k)_2015.png

[표 18] 지도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190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	-	1902	190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_군산개항전사.png
지도			



明治三十三年五月群山浦及其附近



[표 19]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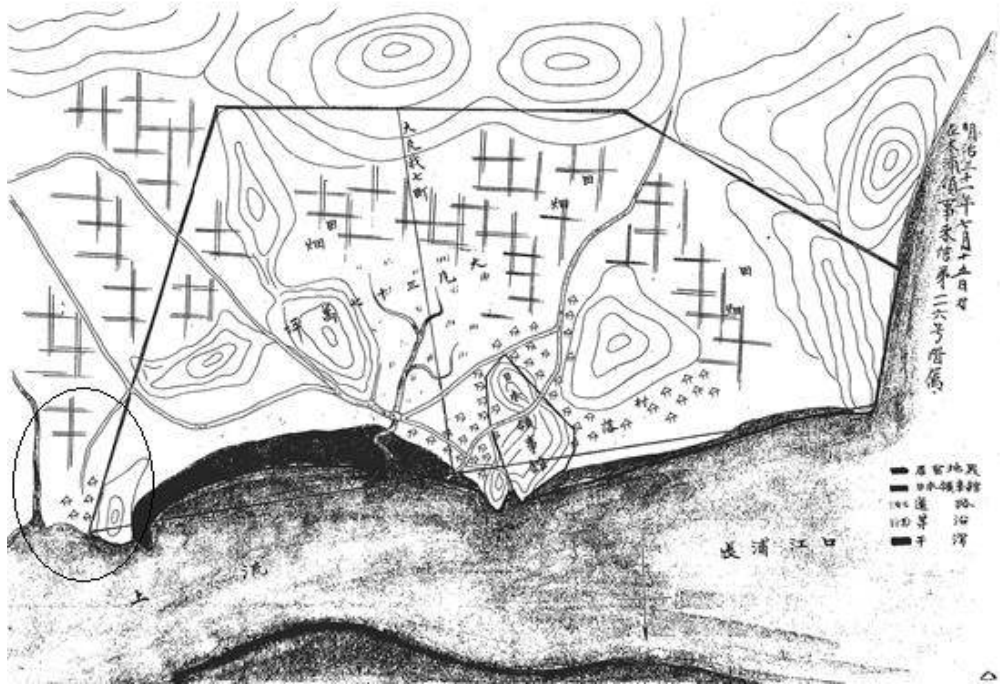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191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	-	1912	1912년 측량 군산포 및 부근_군산개항전사.png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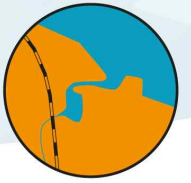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大正元年測量 浦山及其附近

[표 20] 지도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개항 전 군산	-		개항 전 군산 그림지도 - © 동국사.png
지도			





[표 21]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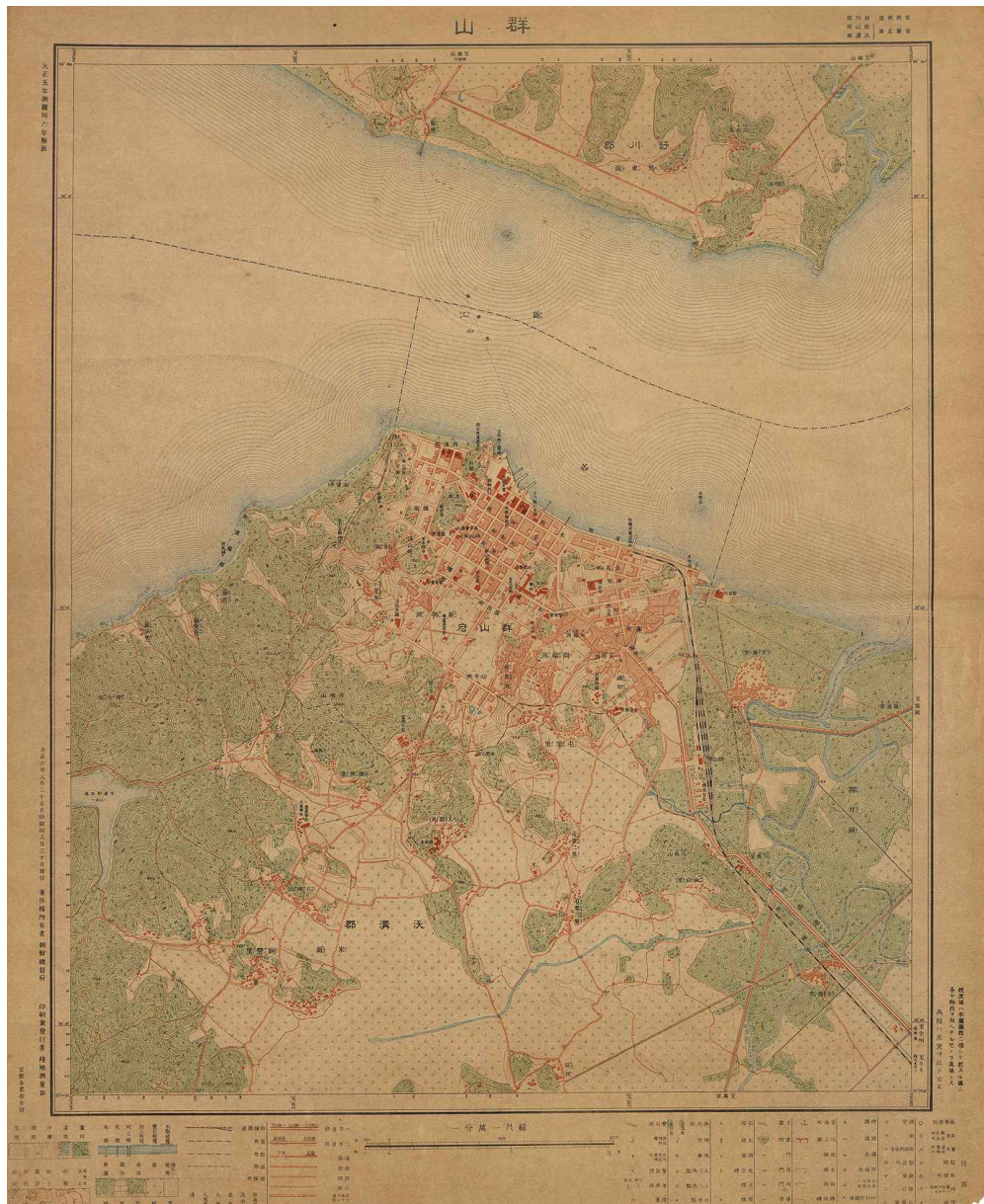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고지도	-	1884	고지도_1884_地圖. 二_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지도 컬렉션.png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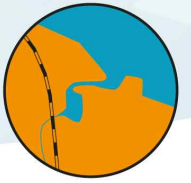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짜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표 22]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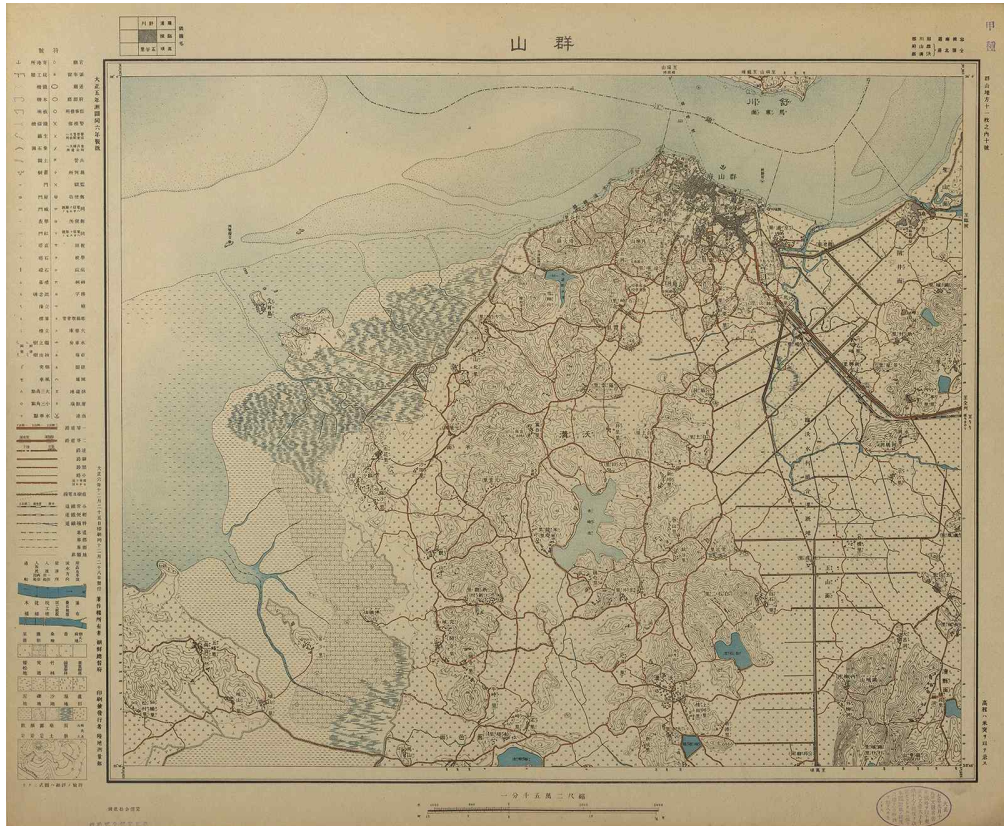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군산	1:10,000	1917	군산 1917 10k.jpg
지도			





[표 23]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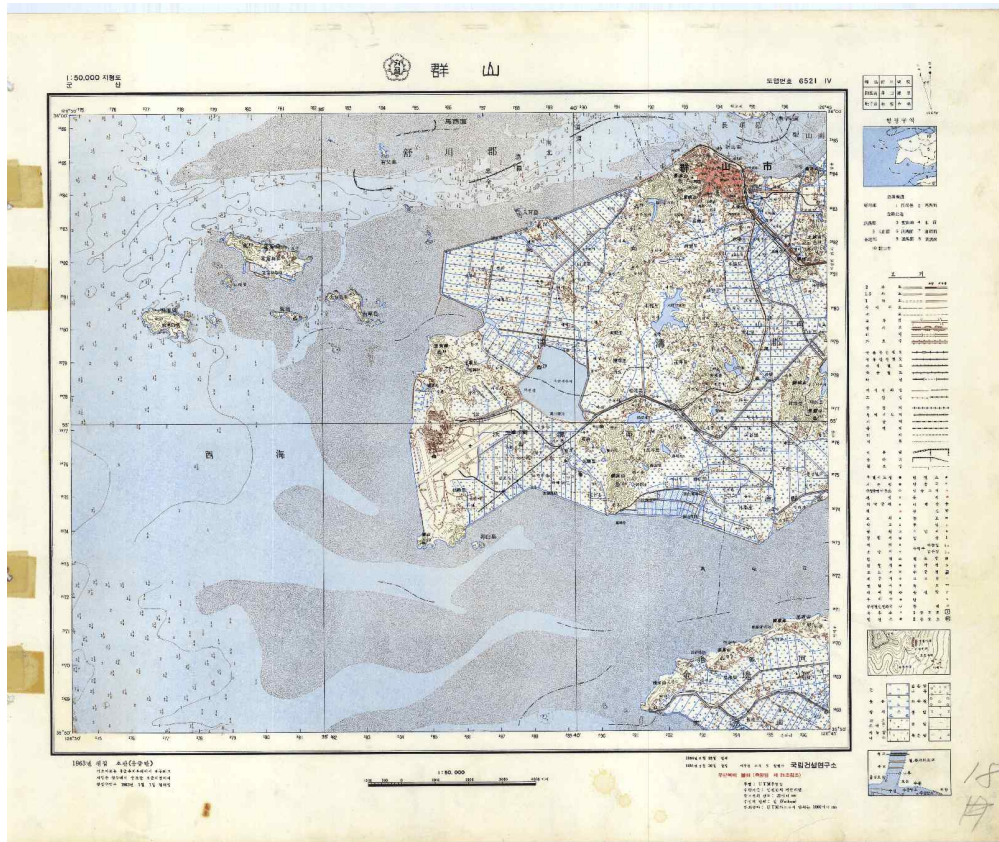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군산	1:25,000	1917	군산 1917 25k.jpg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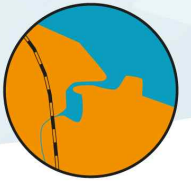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째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표 24]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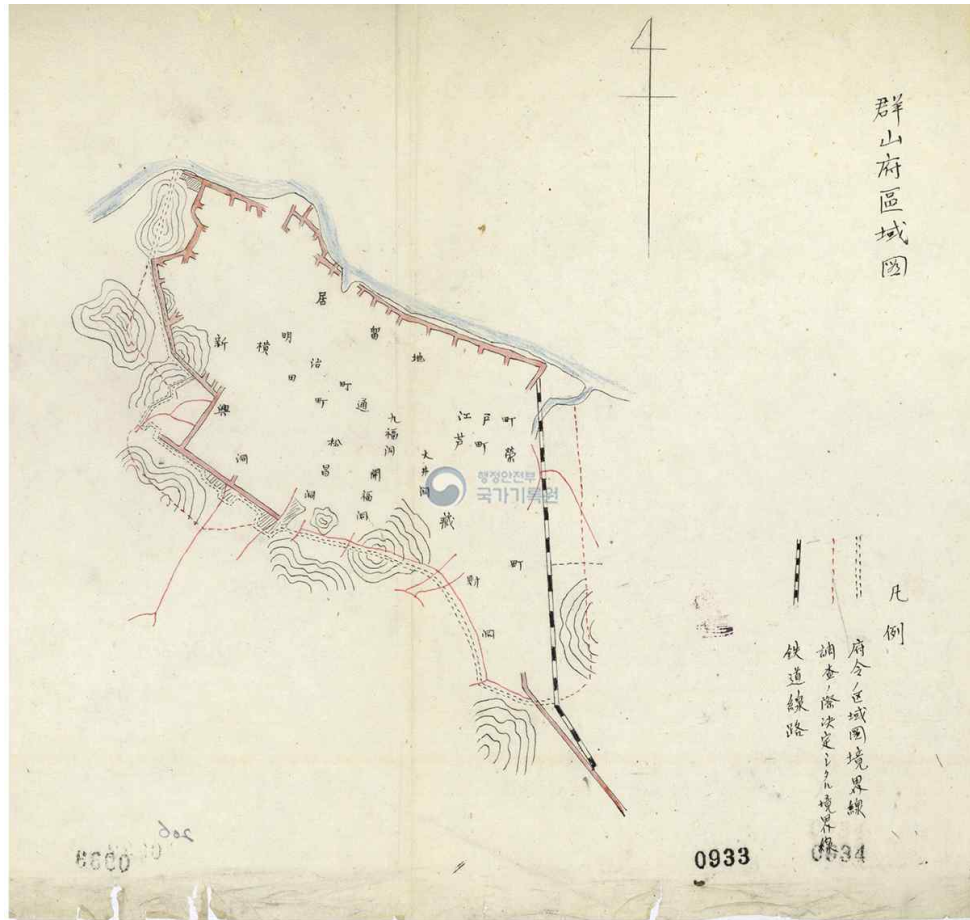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군산	1:50,000	1964	군산 1964 50k.png
지도			





[표 25] 지도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군산부 구역도	-	연도미상	군산부 구역도_국가 기록원.pdf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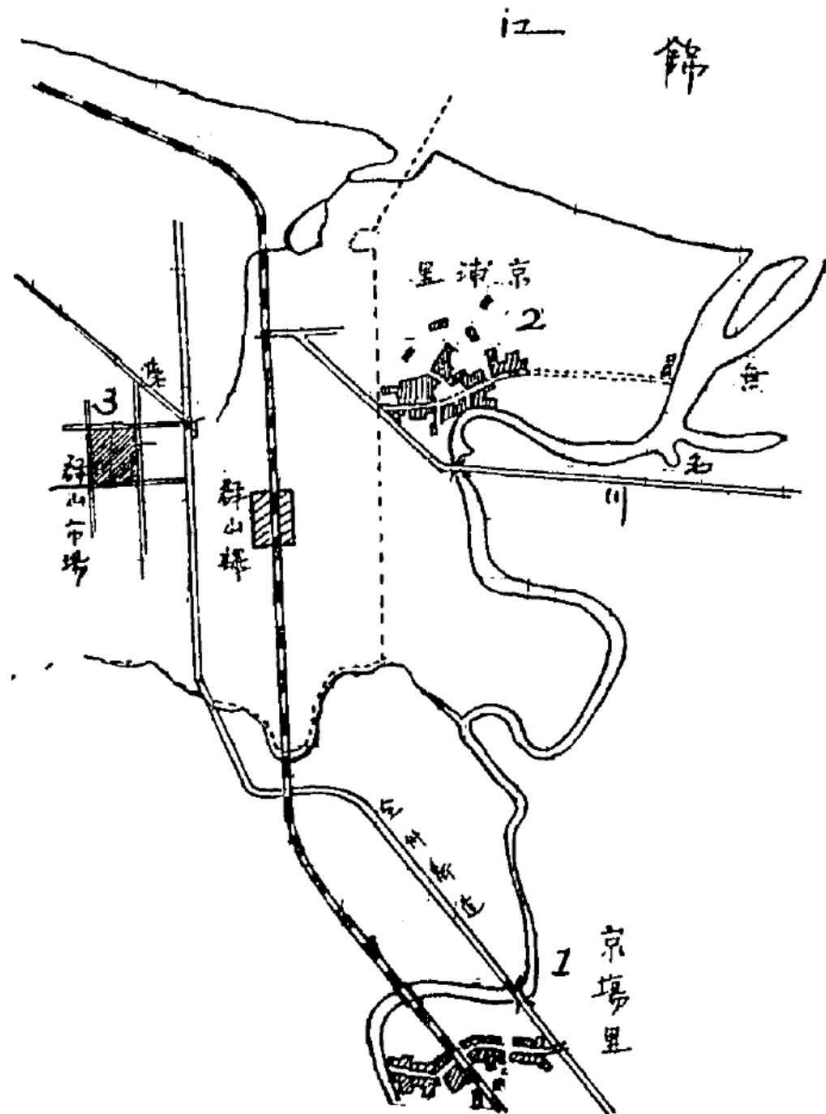
[표 26]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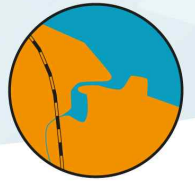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군산시가도	1:10,000	연도미상	군산시가도(群山市街圖) 연도미상.jpg
지도			



[표 28]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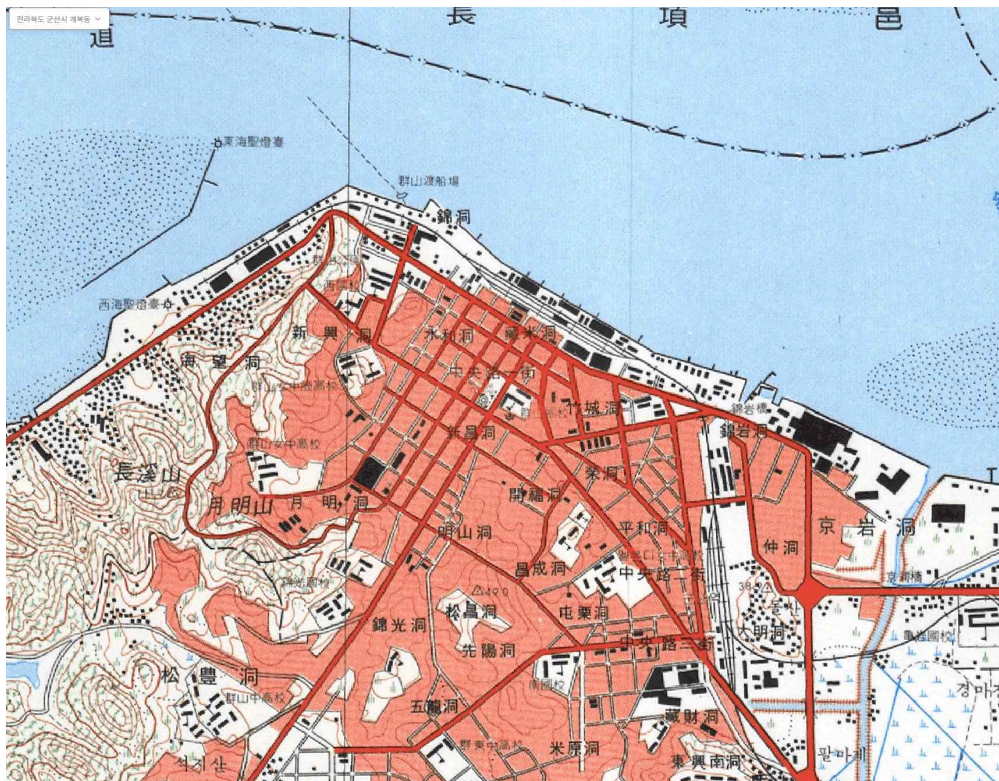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군산시장	-	1935	군산개항전사_군산시장.jpg
지도			





[표 29]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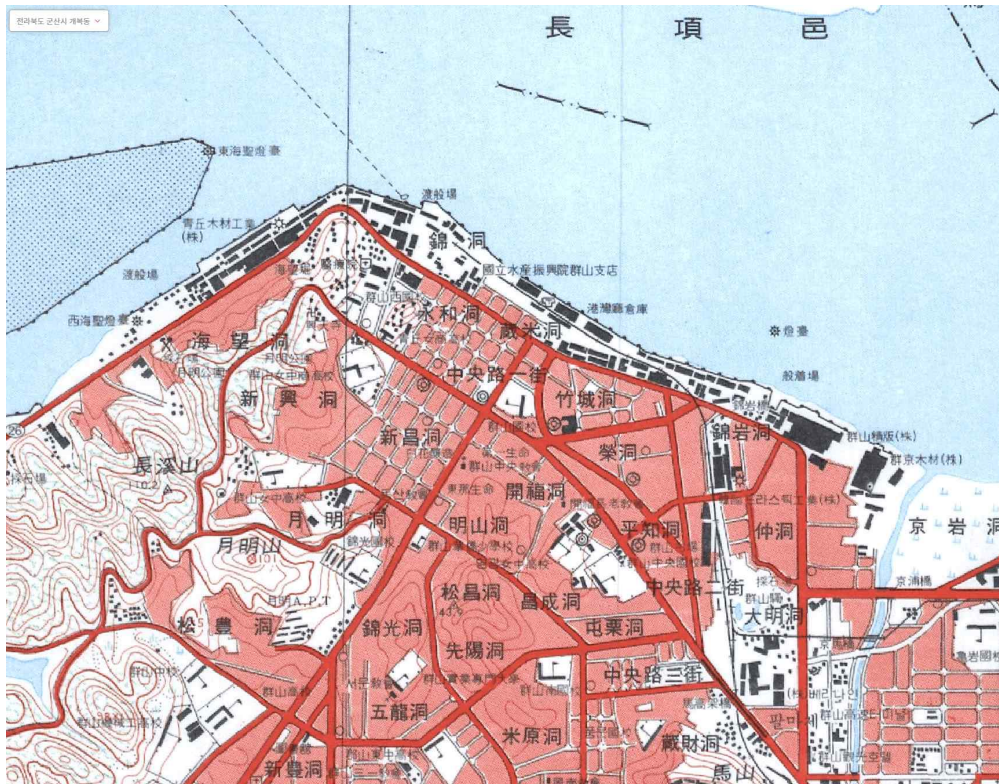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지형도	1:25,000	1970	지형도(25k)_1970.png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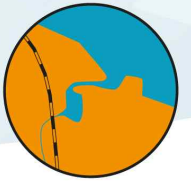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째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표 30]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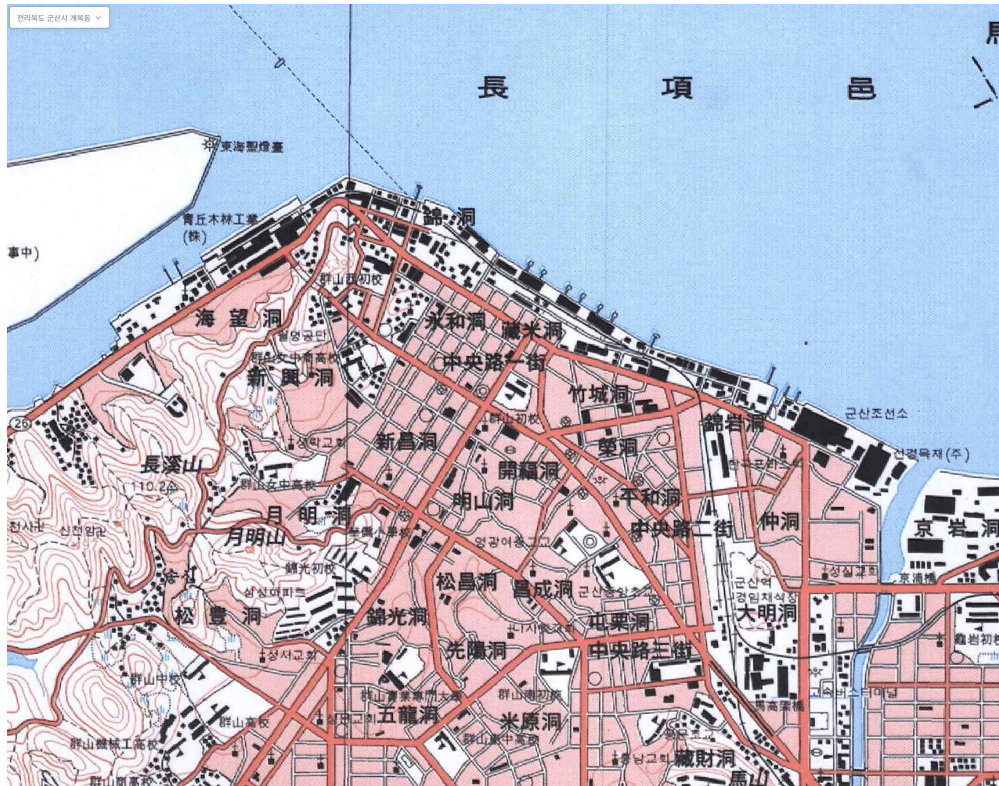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지형도	1:25,000	1980	지형도(25k)_1980.png
지도			





[표 31] 지도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지형도	1:25,000	1990	지형도(25k)_1990.png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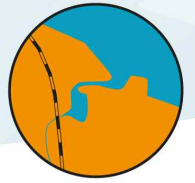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째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표 32]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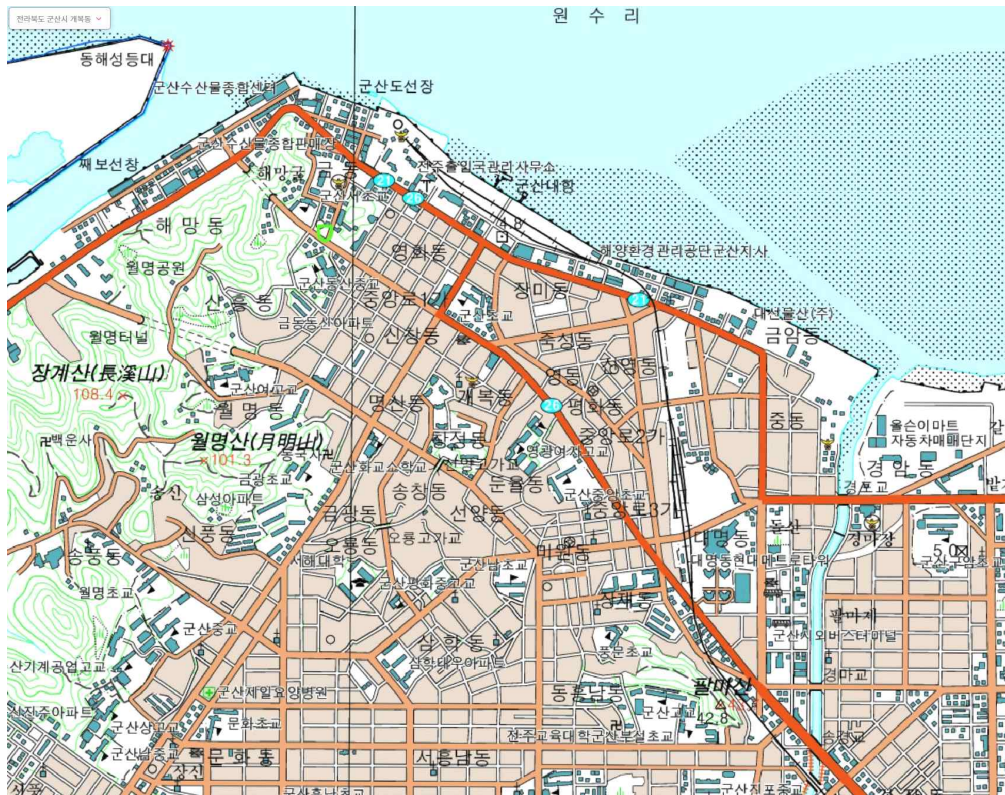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지형도	1:25,000	2000	지형도(25k)_2000.png
지도			





[표 33] 지도

제목	축척	발행년도	파일명
지형도	1:25,000	2015	지형도(25k)_2015.png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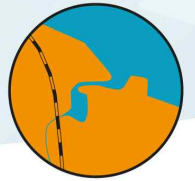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3. 사진

3.1 째보선창 및 부근 사진

[표 34] 사진 목록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개항이전의 군산	군산부사		개항이전의 군산_군산부사.png
군산경찰서	worthpoint.com		군산경찰서_엽서.png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	군산부사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_군산부사.png
군산부영 서해안 철로(1930년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30	군산부영 서해안 철로(1930년대)_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군산부영 어시장	군산부사		군산부영 어시장_군산부사번역본.png
군산부영동빈창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부영동빈창고_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군산수산학교(1920년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20	군산수산학교(1920년대)_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군산항	동국사		군산항_동국사.png
동부어판장	전북일보	1923	동부어판장_전북일보.png
군산항 쌀 수출	우리역사넷	1932	군산항 쌀 수출 1932년경 - 우리역사넷.JPG
군산항_1960s	EBAY(NEXGEN)	1960	군산항_1960s.png
군산항과 시가	군산개항전사		군산항과 시가_군산개항전사.png
군산항과시가_개항기념엽서	worthpoint.com		군산항과시가_개항기념엽서_EARLY JAPAN OCCUPIED KOREAN POSTCARD BIRDS EYE VIEW CITY AND PORT OF KUNSAN GOOD_worthpoint.com.png
서군산항_개항기념엽서	worthpoint.com		서군산항_개항기념엽서_EARLY JAPAN OCCUPIED KOREAN POSTCARD EXPORTING RIVER FROM KUNSAN KOREA PORT_worthpint.com.png
째보선창 민야암 등대	군산매거진		째보선창 민야암 등대.png
선상에서 장작 소매하는 광경	동아일보	1934	선상에서 장작 소매하는 광경(1934.12.30)_동아일보.png
군산항 부잔교	동아일보	1935	군산항 부잔교_1935_동아일보19350828.png



째보선창의 옛모습	신영대 국회의원 블로그		째보선창의 옛모습_신영대 국회의원 블로그.jpg
한국주정공업주식회사군산공장(1960년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60	한국주정공업주식회사군산공장(1960년대)_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1952년 째보선창	https://blog.naver.com/cjkks	1952	1952년 째보선창(출처 httpumz.kr03AVt, httpsblog.naver.com/cjkks70115362296.jpg
항공사진 1954	국토지리정보원	1954	항공사진 1954_국토지리정보원.jpg
항공사진 1954	국토지리정보원	1954	항공사진 1954_부분확대.jpg
항공사진 1966	국토지리정보원	1966	항공사진 1966_국토지리정보원.jpg
군산오염실태	동아일보	1975	「맑은來日(내일)」을 위하여 (6) 第一部 (제일부) 汚染(오염)의 實態(실태) [6] 群山(군산) - 동아일보 1975-09-13.png
항공사진 1984	국토지리정보원	1984	항공사진 1984_국토지리정보원.jpg
항공사진 2005	국토지리정보원	2005	항공사진 2005_국토지리정보원.jpg
항공사진 2011	국토지리정보원	2011	(B060)정사영상_2011_35603009s.jpg
항공사진 2020	국토지리정보원	2020	(B060)정사영상_2020_35603009s.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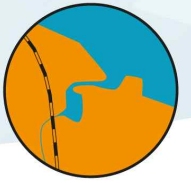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표 35] 개항이전의 군산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개항이전의 군산	군산부사		개항이전의 군산_군산부사.png

사진



개항 이전의 군산



[표 36] 군산경찰서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경찰서	worthpoint.com		군산경찰서_엽서.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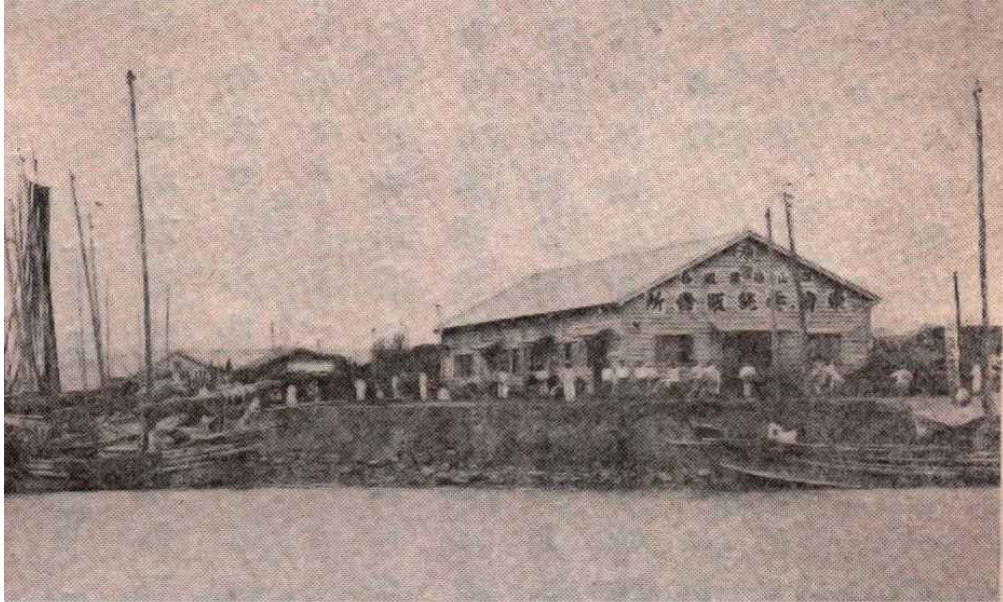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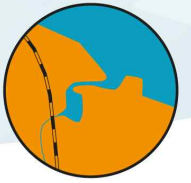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표 37]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	군산부사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_군산부사.png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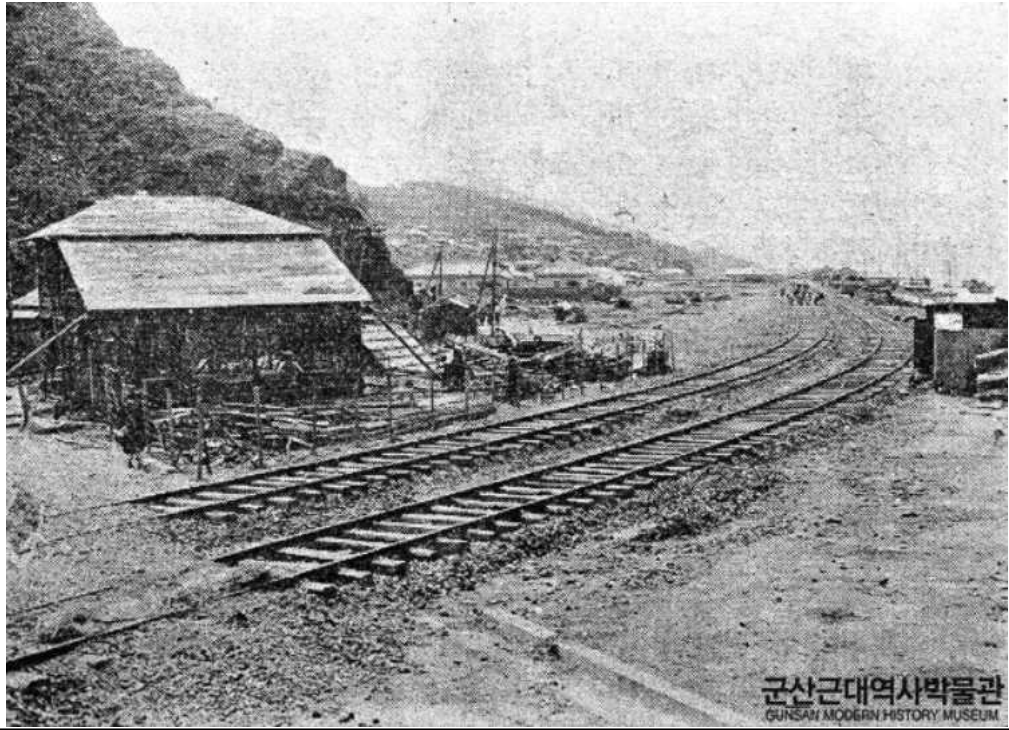
군산부영 동빈 수산시장



[표 38] 군산부영 서해안 철로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부영 서해안 철로(1930년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30	군산부영 서해안 철로(1930년대)_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사진



[표 39] 군산부영 어시장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부영 어시장	군산부사		군산부영 어시장_군산부사번역본.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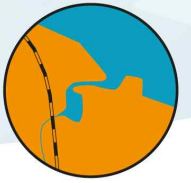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사진



군산부영시장



[군산부영 어시장]



[표 40] 군산부영동빈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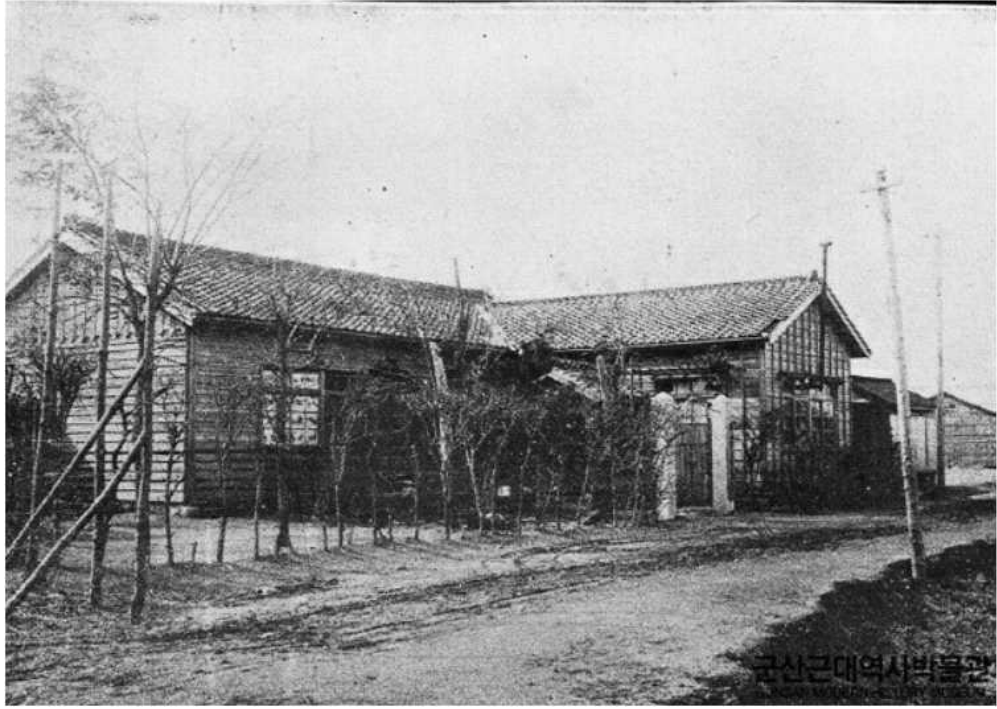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부영동빈창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부영동빈창고_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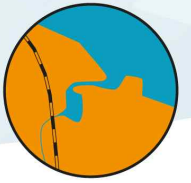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표 41] 군산수산학교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수산학교(1920년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20	군산수산학교(1920년대)-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사진





[표 42] 군산항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항	동국사		군산항 ©동국사.png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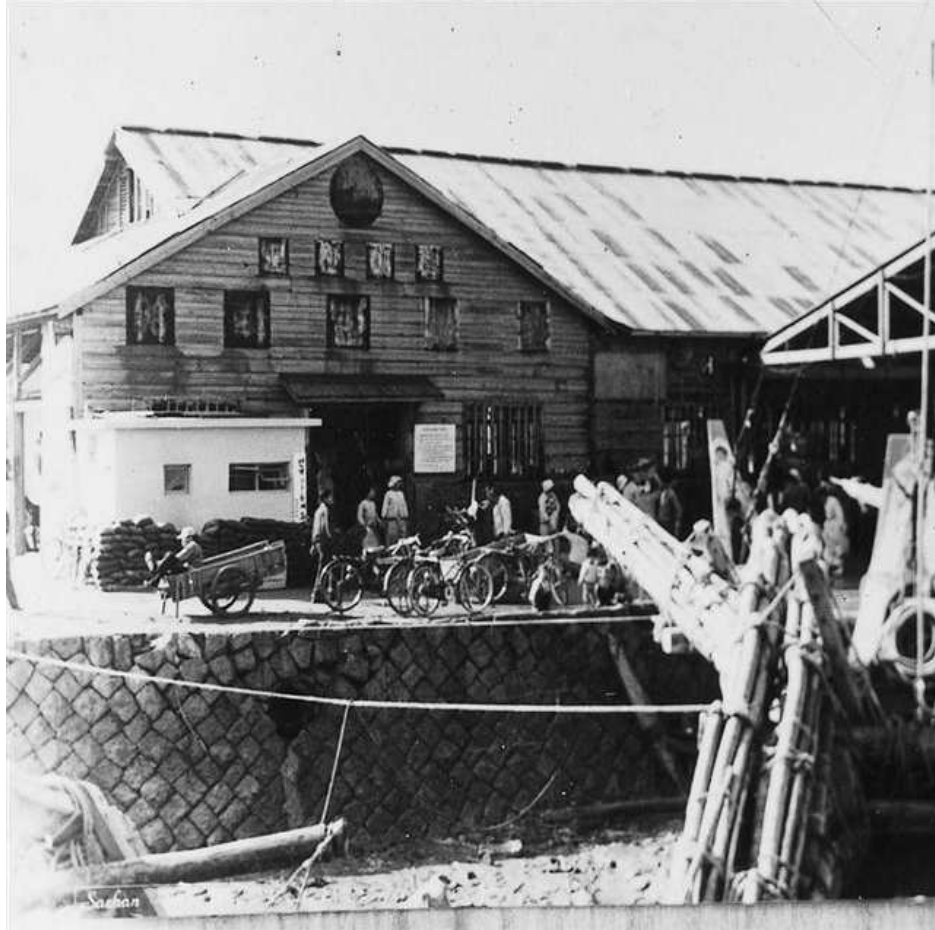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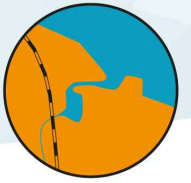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 쌀가마가 발디딜틈도 없이 쌓인 군산항 © 동국사

[표 43] 군산항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동부어판장	전북일보	1923	동부어판장_전북일보.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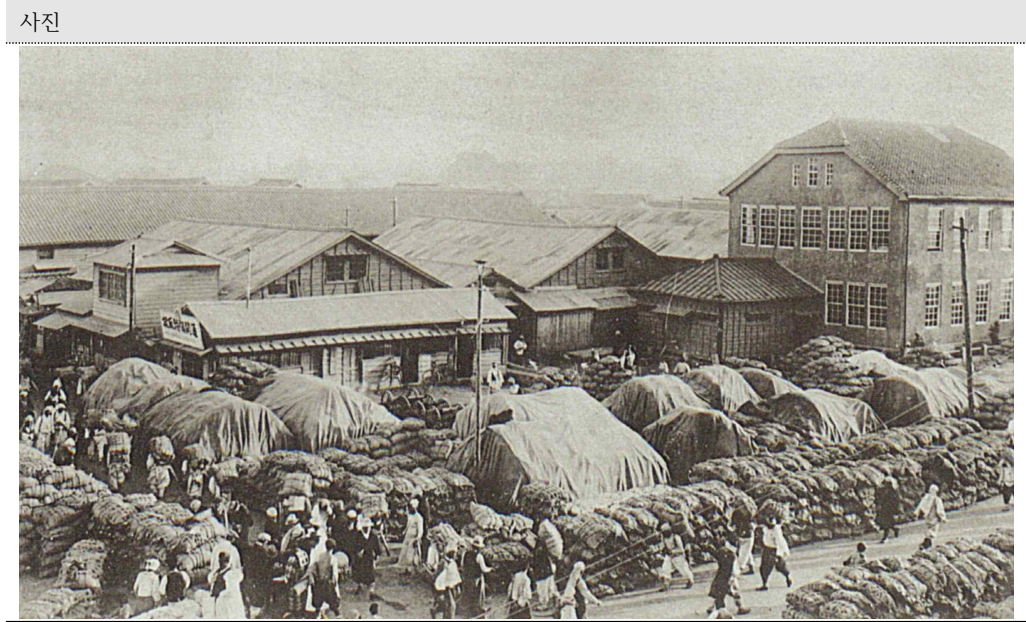
사진





[표 44] 군산항 쌀 수출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항 쌀 수출	우리역사넷	1932	군산항 쌀 수출 1932년경 - 우리역사넷.JPG



[표 45] 군산항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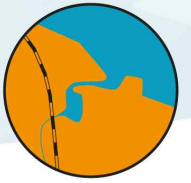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항_1960s	EBAY(NEXGEN)	1960	군산항_1960s.png

사진

Item Beach Scene Kunsan Harbor Korea 1960s - Original 35mm Slide (image 1/1)

Worthopedia™
Items in the Worthopedia® are obtained
exclusively from libraries and partners only.

FLAG ITEM FOR
COURTESY USE



[표 46] 군산항과 시가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항과 시가	군산개항전사		군산항과 시가_군산개항전사.png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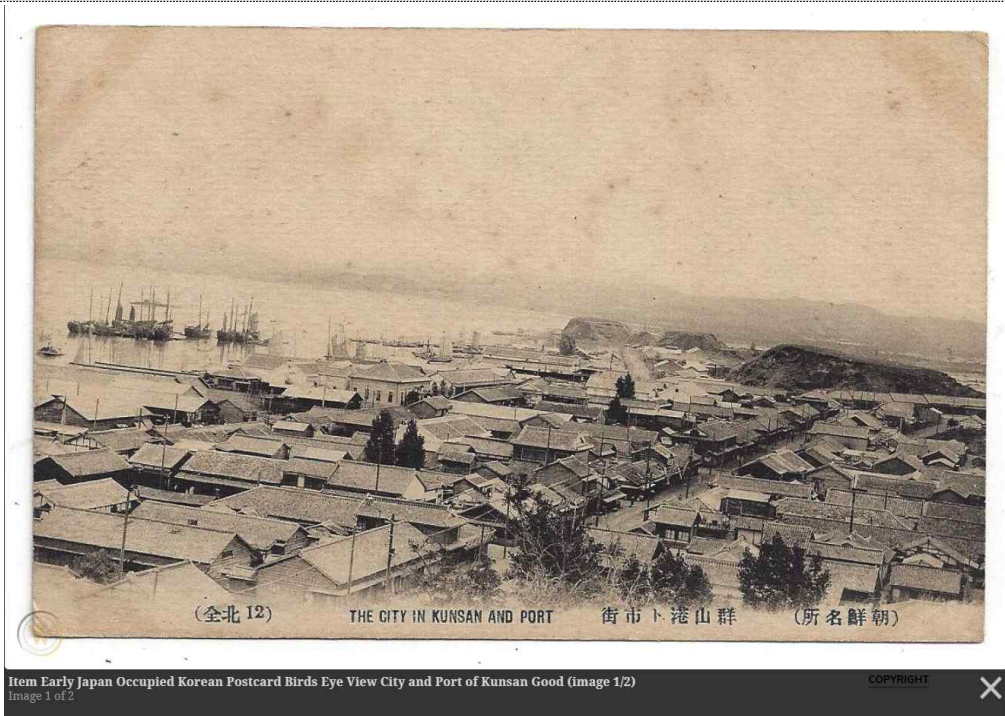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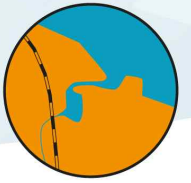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군산항과 시가

[표 47] 군산항과시가_개항기념엽서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항과시가_개항기념엽서	worthpoint.com		군산항과시가_개항기념엽서_EARLY JAPAN OCCUPIED KOREAN POSTCARD BIRDS EYE VIEW CITY AND PORT OF KUNSAN GOOD_worthpoint.com.png

사진





[표 48] 민야암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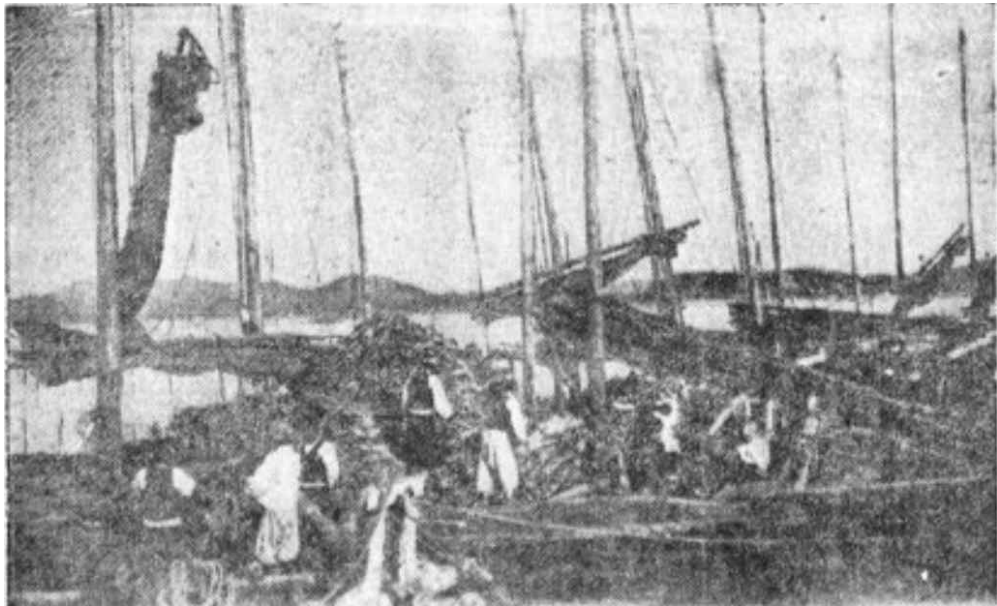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째보선창 민야암 등대	군산매거진		째보선창 민야암 등대.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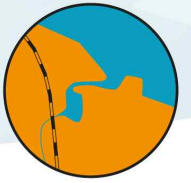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사진



[표 49] 선상에서 장작 소매하는 광경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선상에서 장작 소매하는 광경	동아일보 1934.12.30	1934	선상에서 장작 소매하는 광경(1934.12.30)_동아일보.png
사진			





[표 50] 꾀보선창의 옛모습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꾀보선창의 옛모습	신영대 국회의원 블로그		꾀보선창의 옛모습_신영대 국회의원 블로그.jpg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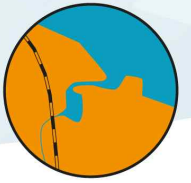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표 51] 한국주정공업주식회사 군산공장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한국주정공업주식회사군산공장(1960년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60	한국주정공업주식회사군산공장(1960년대)-군산근대역사박물관.png

사진





[표 52] 꾀보선창 1952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1952년 꾀보선창	https://blog.naver.com/jcjkks	1952	1952년 꾀보선창(출처 httpumz.kr03AVt, httpsblog.naver.com/jcjkks7011536229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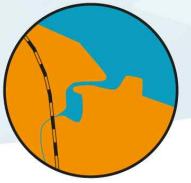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사진



[표 53] 항공사진 1954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항공사진 1954	국토지리정보원	1954	항공사진 1954_국토지리정보원.jpg





[표 54] 항공사진 1954 부분확대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항공사진 1954	국토지리정보원	1954	항공사진 1954_부분확대.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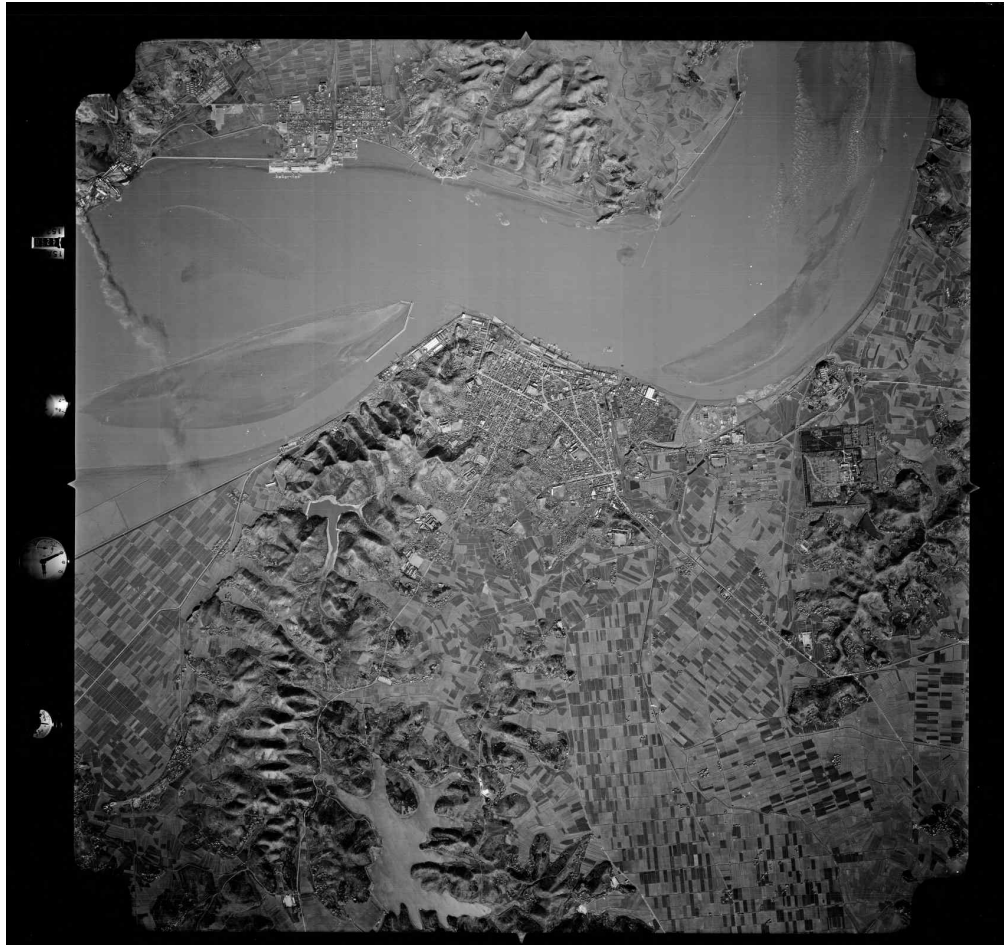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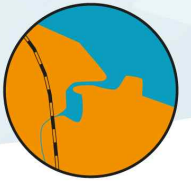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표 55] 항공사진 1966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항공사진 1966	국토지리정보원	1966	항공사진 1966_국토지리정보원.jpg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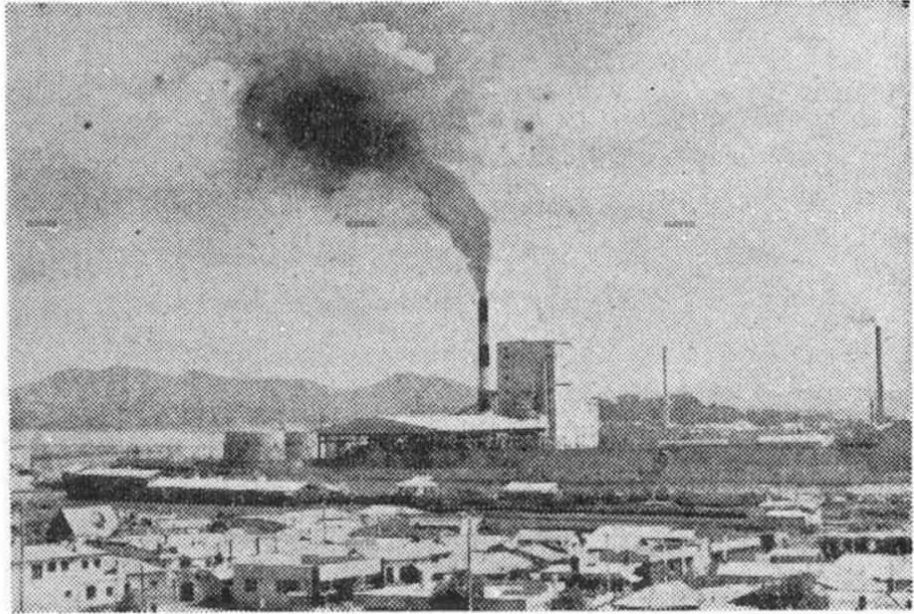




[표 56] 군산오염실태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군산오염실태	동아일보	1975	「맑은來日(내일)」을 위하여 (6) 第一部 (제일부) 汚染(오염)의 實態(실태) [6] 群山(군산) - 동아일보 1975-09-13.png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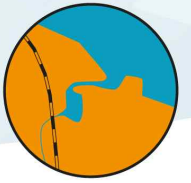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群山市內에는 주범가 한들파에서
크고작은 민가와 바다로
공작들이 1백여개소나 된다. 매연줄 뿜어대는
공장들.



[표 57] 항공사진 1984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항공사진 1984	국토지리정보원	1984	항공사진 1984_국토지리정보원.jpg






[표 58] 항공사진 2005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항공사진 2005	국토지리정보원	2005	항공사진 2005_국토지리정보원.jpg

사진



[표 59] 항공사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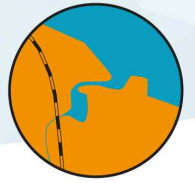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제목	출처	촬영년도	파일명
항공사진 2011	국토지리정보원	2011	(B060)정사영상_2011_35603009s.jpg
사진			
			

4. 보도자료

4.1 보도자료 목록

[표 61] 보도자료 목록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
신문기사	群山魚市場竣工(군산어시장준공)	1927-06-12	조선일보
신문기사	群山港は自然的に恵まれたる良港 (군산항은 자연적으로 평안한 항구)	1929-12-27	군산일보
신문기사	群山朝鮮人(군산조선인) 萬六千九百(만륙천구백)	1932-06-28	동아일보
신문기사	群山東濱町(군산동빈정)에 漁市場(어시장)을設置(설치)	1933-09-27	조선일보
신문기사	問題(문제)의東濱町魚市場(동빈정어 시장)新築入札(신축입찰)도完了(완료)	1933-10-08	동아일보
신문기사	群山港의漁夫들로 總數는千五百名 군산항의 어부들로총수는 천오백명	1934-06-04	동아일보
신문기사	「맑은來日(내일)」을 위하여 (6) 第一部(제일부) 汚染(오염)의 實態(실태) [6] 群山(군산)	1975-09-13	동아일보
신문기사	群山(군산)에 종합魚市場(어시장) 錦岩洞(금암동)에 내년완공	1978-12-05	매일경제
신문기사	짜보선창을 아십니까	1996-08-16	한겨레
신문기사	"세느강떠나문우리는모다죽어요!"	2010-10-31	신문고뉴스
신문기사	“식당꿀은우습지만,최불암도왔다간 명가'에유”	2013-12-01	매거진군산
신문기사	세느강변에서돼지국밥한그릇말아묵 자	2014-02-01	매거진군산
신문기사	짜보선창어부들, '금비라신'믿으라니 얼마나황당했을까	2015-12-01	매거진군산
신문기사	황석어가'참조기를달리어르는말'이라 고?	2015-12-01	매거진군산
신문기사	군산개항117주년	2016-06-24	nsp통신
신문기사	"상어는뜨거운물로목욕시켜먹는거여! "조종안기자의짜보선창생선이야기	2017-05-01	매거진군산
신문기사	죽성포구,언제부터'짜보선창'이라부 르기시작했을까사진과기록으로보는 군산짜보선창100년(1)	2017-07-01	매거진군산
신문기사	짜보선창생선도독을'갈매기'라부른까 닭은사진과기록으로보는군산짜보선 창100년(3)	2017-10-01	매거진군산



[표 62] 群山魚市場竣工(군산어시장준공)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群山魚市場竣工(군산어시장준공)	1927-06-12	조선일보
기사 전문			

群山魚市場竣工

露店營業者之手續希望

群山魚商親睦會에서市內에散在
한魚商의福利를爲하야群山東海
岸端埋立地千數百坪에數月前早
러魚販을建築中이라함은既報와
如하거니와近日에爲先三十六限
이工事完了되었슴으로一般同會
會員으로露店에서營業하든者는
速히同會에手續을經한後同建築
舍屋으로移轉하기바란다고
(群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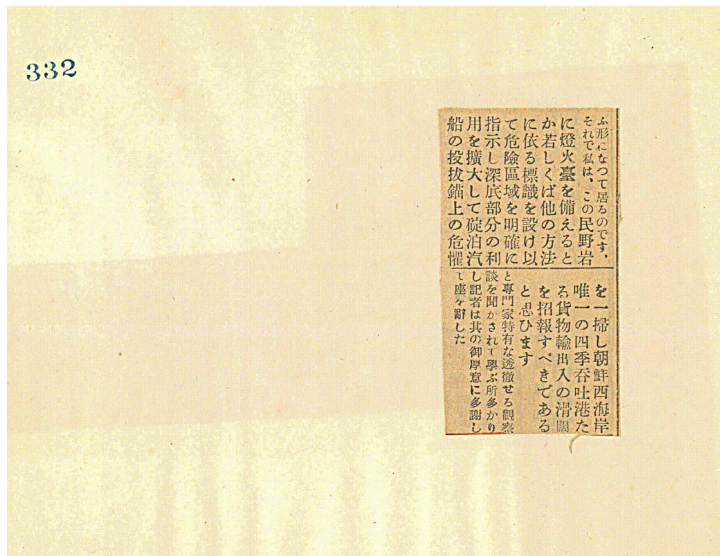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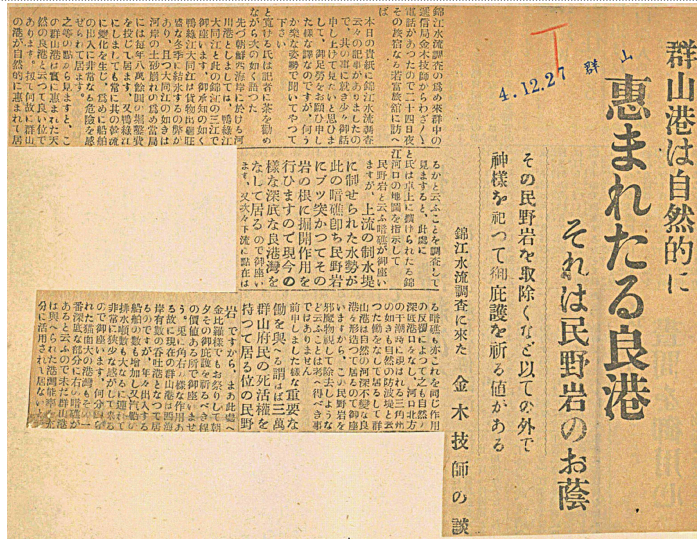
군산어시장준공

노점영업자의 수속희망

군산어상친목회에서 시내에 산재한 어상의 복리를 위하여 군산동해안단매입지천수 백평에 수월전부터 어전을 건축중이라함은 기보와여 하거니와 근일에 위선삼십육 전이 공사완료되었슴으로 일반동회회원으로 노점에서 영업하는자는 속히 동회에 수속을 경한후동건축사옥으로 이전하기바란다고

[표 63] 群山港は自然的に恵まれたる良港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群山港は自然的に恵まれたる良港 (군산항은 자연적으로 평안한 항구)	1929-12-27	군산일보
기사 전문			



群山港は自然的に恵まれたる良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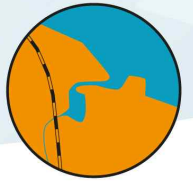
それは民野岩のお蔭

その民野岩を取除くなど以外のT 測機%祀って細庇護を新る値がある

錦江水流調査に來た 金木技師の談

本日の貴紙に錦江水流調 | ますが、上流の制水堤

の雨水塊| 山港は自然の河深不變な良 云々の記事がありました



に制せられた水勢が で、其の事に就き少 申し上げて見たいと 此の暗礁即ち民野岩
去しような して、御足労をお願か
得べき事 た様な譯なのですが、何5
ではありませ か楽な姿勢で聞いてやつて 行ひますので現今の
前申しました様な重要な 寛ける氏は記者に茶を勧め 標な深底な良港湾を
働を與る謂はば三萬 ながら次の如く語つた
なして居る ので御座い 山府民の死活權を一 先づ朝鮮西海岸に於ける河
ま、又次々下流に在は 持って居る位の民野一 港としまして
岩 ですから、まあ此嬉へ は、鴨緑江) 同江と此の錦江の三江で
金比羅様でもお 御承知の如く
庇護学所るべき理 鴨緑江大同江は世物伝線!!
の價値ある所で御座いませ するの弊が」
見る 同江の如きは 河岸の土砂 の為め當局
岸有数の途吐港となつて居 には毎年八英餘國小堀空襲 を投じて居ます、又鴨緑
にしましても常に其の幹 変化を生じ、爲めに船舶
ので御座います、何分 入に非常なる危険を感
れた血大の港灣そ 一 せられて居ます。」
底な部分 之等の場から見ますと、こ
と云ふので 群山港に愛に恵まれた天
へられた港の 然の良港と云って良い位で
分に活用され、居な あります。扱て何故に群山 の港が自然的に悪

[표 64] 群山朝鮮人(군산조선인) 萬六千九百(만륙천구백)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群山朝鮮人(군산조선인) 萬六千九百(만륙천구백)	1932-06-28	동아일보
기사 전문			

群山朝鮮人
萬六千九百

호수는 三천二백八十六호
昨年보다二百名增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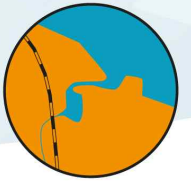
【군산】 군산부의 금년 4월 1일 현재의 조선인인구급 호수를 보건대 삼천이백팔십육호에 인구는 1만6천8백4십3명이라한다. 이를 작년동기에 비하면 호수에 있어 1백2십2호와 인구에 있어 2백2십5명이 증가되엇다하며 이를 정동별로보면 다음과 같다한다

戶數	人口	町名
八六二	四一七九	新興洞
八〇八	三八五〇	開福洞
五〇九	二八一九	榮洞
四〇三	一七二九	松昌洞
二八七	一五〇三	藏財洞
八〇	四一六	江戸町
八四	四九〇	蘆町
四七	四四〇	明治町
二五	一四七	東濱町
九	五八	西濱町
二	一〇	淺山町
二	一一	錦山
二	一一	曙町
二	一一	本町通
二	一一	州通
三	一一	大和町
三	一一	旭町
三	一一	横田町
二	一一	浪花町
二	一一	幸町
三	一一	九福洞
三	一一	大井洞
三	一一	計

군산조선인 만륙천구백
호수는 삼천이백호
작년보다 이백명 증가

군산부의 금년 4월 1일 현재의 조선인인구급 호수를 보건대 삼천이백팔십육호에 인구는 1만6천8백4십3명이라한다.

이를 작년동기에 비하면 호수에 있어 1백2십2호와 인구에 있어 2백2십5명이 증가되엇다하며 이를 정동별로보면 다음과 같다한다



[표 65] 群山東濱町(군산동빈정)에 漁市場(어시장)을設置(설치)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群山東濱町(군산동빈정)에 漁市場(어시장)을設置(설치)	1933-09-27	조선일보
기사 전문			

**群山東濱町에
漁市場을設置**

府會議에서決定

【群山】군산근해에서일년동안 어산액이사십만원이라는 거대한금액에 달한다함은 그보한바어니와 이제그들의 생활상태를보면 풍우를무릅쓰고 천신만고하야 잡은고기를 실고도라오면 소위객주라는자들이 돈을대용하였다는 구실로 자유판매를못하게하고 그들임으로 팔어가지 고 대금을제하고 또는수수료를 제하는등하야 죽음을무릅쓰고 장은고기가 결국중개업자의배를 채울뿐임으로 이러한폐단을일소하야 어민의리익을 도모하얏다는의견으로 어시장(어시장(魚市場))을설치안이 지난이십이일부회의에서 가결되며 곳설치에착수할모양이라고 하는바 일반어민들은 깃버한다고 한다

군산동빈정(群山東濱町)에 어시장(漁市場)을설치(設置)

부회의(府會議)에서결정(決定)

【군산(群山)】군산근해에서일년동안 어산액이사십만원이라는 거대한금액에 달한다함은 그보한바어니와 이제그들의 생활상태를보면 풍우를무릅쓰고 천신만고하야 잡은고기를 실고도라오면 소위객주라는자들이 돈을대용하였다는 구실로 자유판매를못하게하고 그들임으로 팔어가지 고 대금을제하고 또는수수료를 제하는등하야 죽음을무릅쓰고 장은고기가 결국중개업자의배를 채울뿐임으로 이러한폐단을일소하야 어민의리익을 도모하얏다는의견으로 어시장(어시장(魚市場))을설치안이 지난이십이일부회의에서 가결되며 곳설치에착수할모양이라고 하는바 일반어민들은 깃버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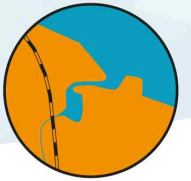
[표 66] 問題(문제)의東濱町魚市場(동빈정어시장)新築入札(신축입찰)도完了(완료)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問題(문제)의東濱町魚市場(동빈정어시장)新築入札(신축입찰)도完了(완료)	1933-10-08	동아일보
기사 전문			



필사적반대도 결국은수포
관계자등타처이주

【군산(群山)】 어업통제라는 미명으로 군산부에서는 소화8년도의 신규사업의 하나로 동빈정에 어시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바 조선부회의원과 2백7십여명의 관계자의 반대로 회의일자까지 거듭 연기하여 6개월간이나 보류하였다가 지난9월22일 부회에서 결국 원한이 가결이되었다 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군산부에서는 그간 어시장 신축과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하여 지난 5일 입찰까지 마쳤으므로 근근 공사에 착수하리라 한다. 그런데 일반관계자들은 결국 동빈정에서 시장이 설치만 되면 그들은 모두 대안인장항 또는 응포등지로 이거한다하므로 일반주민들은 그를 가장 우려하고있다 한다



[표 67] 群山港의漁夫들로 總數는千五百名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群山港의漁夫들로 總數는千五百名 군산항의 어부들로 총수는 천오백명	1934-06-04	동아일보
기사 전문			

群山港의漁夫들로
總數는千五百名
 七山海 出漁中 魚群따라漂流
四百五十名만生存

【군산지국전화】 이버네 황해도 연평도에서 침몰된 어선은 군산부동빈정
 임겸상회군산냉장고경영의 조기잡이배로 판명되었는데 군산서 떠난 이 조기잡이
 배척수는 백십사척이고 그배에 탄 어부들은 일천오백명이라 한다.
 그런데 연평도발 무선전신 군산착전에 의하면 삼일오후 2시까지 연평도의
 피해판명은 행방불명된 배가 육척으로 그배에 탄 사람 오십명이 생사가 알 수
 없고 생존한채로 연평도에 상륙된사람이 사백오십명이고 그 외 천명가량은 파손된
 배 이백척에 탔던사람으로서 전부조난된 것으로 방금 구조중인데 그주에는
 부상자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군산항의 어부들로
 총수는 천오백명
 칠산해 출어중 어군따라 표류
 사백오십명만 생존

【군산지국전화】 이버네 황해도 연평도에서 침몰된 어선은 군산부동빈정
 임겸상회군산냉장고경영의 조기잡이배로 판명되었는데 군산서 떠난 이 조기잡이
 배척수는 백십사척이고 그배에 탄 어부들은 일천오백명이라 한다.
 그런데 연평도발 무선전신 군산착전에 의하면 삼일오후 2시까지 연평도의
 피해판명은 행방불명된 배가 육척으로 그배에 탄 사람 오십명이 생사가 알 수
 없고 생존한채로 연평도에 상륙된사람이 사백오십명이고 그 외 천명가량은 파손된
 배 이백척에 탔던사람으로서 전부조난된 것으로 방금 구조중인데 그주에는
 부상자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표 68] 「맑은來日(내일)」을 위하여 (6) 第一部(제일부) 汚染(오염)의 實態(실태)
[6] 群山(군산)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맑은來日(내일)」을 위하여 (6) 第一部(제일부) 汚染(오염)의 實態(실태) [6] 群山(군산)	1975-09-13	동아일보
기사 전문			

너무늦기前에 公害對策을...

군산의 공해는...
군산의 공해는...
군산의 공해는...

「맑은來日」을 위하여

第一部 汚染의實態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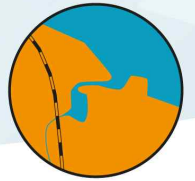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群山

지나친農藥使用도問題

조밀하게 들어선 工場113개

맑은來日(내일)을 위하여 (6) 第一部(제일부) 汚染(오염)의 實態(실태) [6] 群山(군산)

군산의 공해는...
군산의 공해는...
군산의 공해는...



맑은 내일을 위하여 군산
너무늦기전에 공해대책을..
제1부 오염의실태
지나친 농약사용도 문제
조밀하게 들어선 공장 113개

군산항 서쪽부두 한끝에 시내에서 흘러내리는 개천과 바닥 맞닿는 속칭 짜보선창이 있다. 선창에는 개천을 통해 흘러내린 시내의 하수와 공장폐수 등이 괴었다가 썰물때 바다로 씻겨나간다. 폭 3m가량의 개천에는 선창바로위 우풍화학 주정공장에서 버리는 검붉은 유독성폐수가 흘러들고 있고 그래서 간장 빛깔이된 개천위에 붕어등 민물고기 10여마리가 흰배를 드러낸채 죽어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간밤에 내린비로 개천물이 불자 어디선가 붕어떼가 개천까지 흘러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 같다. 물빛을 보니 민물고기가 살아남지못하는 이유를 알듯했다.

5,6년전만해도 개천에는 짜보선창을 통해 올라온 장어 망둥이가 제법많아 낚시를 드리우면 한나절에 20~30마리씩은 낚였으나 최근에는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다고했다.

개천 끝에 철망으로 울타리를 한 한국플라스틱공장의 1천t들이 동그런가스탱크가 보인다. 유독성 폭발물인염화비닐가스가 들어있다는 탱크와 주택가와의 거리는 5m안팎으로 지난3일밤 군산시내에 집이 흔들릴정도의 번개와 천둥이 심했을 때 플라스틱공장3층에 벼락이 떨어져 원료실일부가 탔다. 이때 공장부근주민들은 “가스탱크에 벼락이 떨어져 터지면어찌나하고 밤새 한잠도 못잤다”는 것. 가스가 노출되면 상당거리안의 인명이 위험하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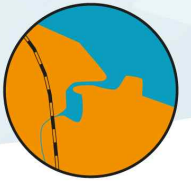
이일대는 또 대교합판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대는 매연으로 주부들이 빨래를 내걸수없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공장 옆 금암274 국명래 부인(30)은 “바다에서 서풍이불면 방안에까지 그을음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공장은 작년 전북도의 공해검사에서 시설개선을 필요로하는 업체로 판정되기도 했는데 연료로 사용하는 나무찌꺼기, 톱밥등이 불완전연소되면서 많은 매연을 내뿜고 있다는 것이다. 매연은 부근 군산화력발전소에서도 상당량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위생당국은 지난 1년이래 발전소의 매연이나 주민피해가 얼마나되는지 조사조차 한적이 없다고 주민들은 불평했다.

장재동 미원동 흥남동 경성고무공장 부근 2천여가구 주민들은 지난수년래 고무공장의 독한 gas와 냄새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미원동 294 박정희 부인(48)은 “고무찌는냄새대문에 비위가 상해 소화도안되고 몸마저 여위어가는것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군산시내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 1백13개소가 들어서서 가스나 매연을 뿜어내거나 유독한 폐수를 바다로 흘러보내고 있다. 지역에 비해 공장들이 너무 조밀하게 들어선것같다. 그런데도 공해검사를 맡은 시보건소나 도위생계는 아무런

측정기구도 없이 1년에 한번씩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공해여부를 “조사”한다는 것. 이 때문에 공장측도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공해방지시설로 눈가림하게되고 그나마 전혀 신경조차 쓰지않는 업소가 많다는 이야기. 우풍화학의 전칠표 생산과장(40)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려면 1억원이나 듭니다. 회사총자산이 2억여원인데... ” 1억원씩들여 공해 막는 시설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군산에는 아직은 주오화학공업등 대단위 공장이 없어 공해로인한 특이질환등은 없는것같다는 낙관론을 펴는 측도있다. 그러나 노동청군산지방사무소에서 지난달 1백여 사업장 1만2천여 종업원에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백80여명이 질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병으로도 볼 수 있는 호흡 순환기질환 특히 시각청각장애자가 50여명이나 나와 사업장공해의 위험신호를 알려주고 있다. 오준식사무소장은 “지금부터라도 늦지않으니 공장측이 공해방지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69] 群山(군산)에 종합魚市場(어시장) 錦岩洞(금암동)에 내년완공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群山(군산)에 종합魚市場(어시장) 錦岩洞(금암동)에 내년완공	1978.12.05	매일경제
기사 전문			

群山에 종합魚市場
錦岩洞에 내년완공
 군산시수협은 올부터 79
 년까지 총사업비 4억 4천
 여만원을 들여 시내 금암
 동에있는 서부위판장의 판
 매장과 접안장을 확장하는
 등 대단위 종합어시장을 세
 울 계획이다.
 군산시수협조합에 의하면
 군산시가 준공예정인 속칭
 「짜보선창」 매립지 1천 5
 백평을 2억 2천만원에 매
 입, 이곳에 2억 1천여만 원
 을 들여 5백평의 위판장
 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군산시 수협은 올부터 79년까지 총사업비 4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시내 금암동에 있는 서부위판장의 판매장과 접안장을 확장하는 등 대단위 종합어시장을 세울 계획이다. 군산시 수협조합(전 군산어업조합)에 의하면 군산시가 준공예정인 속칭 '짜보선창' 매립지 1천 500평을 2억 2천만 원에 매입, 이곳에 2억 1천여만 원을 들여 500평의 위판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표 70] 째보선창을 아십니까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째보선창을 아십니까	1996-08-16	한겨레
기사 전문			

‘째보선창’을 아십니까

군산시, 소설 '탁류' 무대 3곳 채만식문학비

군산/임석규 기자

"이곳이 바로 소설 '탁류'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중심 무대로 등장하는 '째보선창', '미두장', 옛 조선은행 앞 등 군산 시내 3곳에 문학비가 세워져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문화원(원장 이병훈)은 최근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3곳에 각각 '백릉 채만식 소설비'를 세워 그의 작품정신을 기리는 한편 그때의 시대상을 새겨넣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째보선창은 주인공 정주사가 군산항에 첫발을 디딘 곳이고, 미두장은 정주사가 몰락할 무렵을 그린 곳이며, 조선은행은 정주사의 사위 고태수가 근무하던 장소로, 모두 소설의 주요한 공간 배경으로 등장한다. 지

금은 모두 헐리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지만 지명만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식민지시대 일제의 수탈과정을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 사실주의 소설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군산문화원의 이병훈 원장(72)은 "싸전, 약국, 집터, 병원을 비롯해 소설의 배경이 됐던 곳들마다 기념비를 세워 기념비만 따라가더라도 소설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고 그때의 시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는 '채만식 문학관 건립추진위'가 꾸려져, 유품을 전시하고 문학세계를 소개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 소설 '탁류' 무대 3곳 채만식 문학비

"이곳이 바로 소설 '탁류'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중심무대로 등장하는 "째보선창", "미두장", 옛 조선은행 앞 등군산 시내 3곳에 문학비가 세워져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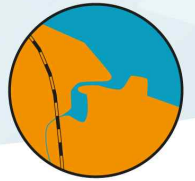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군산문화원(원장이병훈)은 최근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3곳에 각각 "백릉채만식 소설비"를 세워 그의 작품정신을 기리는 한편 그때의 시대상을 새겨넣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째보선창은 주인공 정주사가 군산항에 첫발을 디딘 곳이고, 미두장은 정주사가 몰락할 무렵을 그린 곳이며, 조선은행은 정주사의 사위 고태수가 근무하던 장소로, 모두 소설의 주요한 공간배경으로 등장한다. 지금은 모두 헐리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지만 지명만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식민지시대 일제의 수탈과정을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 사실주의 소설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군산문화원의 이병훈원장(72)은 "싸전, 약국, 집터, 병원을 비롯해 소설의 배경이 됐던 곳들마다 기념비를 세워 기념비만 따라가더라도 소설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고 그때의 시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는 "채만식 문학관건립추진위"가 꾸려져, 유품을 전시하고 문학세계를 소개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군산/임석규기자>



[표 71] "세느강떠나문우리는모다죽어요!"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세느강떠나문우리는모다죽어요!"	2010-10-31	신문고뉴스

기사 전문

가을걷이가 끝나가면서 겨울의 문턱인 입동(立冬)이 가까워지면, 따사한 햇볕이 그리워지고 얼큰한 돼지국밥 한 그릇이 생각난다. 고소하고 따끈한 국물로 속을 풀면서 꼬들꼬들한 곱창을 안주로 친구와 소주 한 잔 나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지난 200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결정되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인 군산 공설시장(구시장)의 '돼지국밥집 골목'(일명 세느강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1918년)에 '신영시장'으로 개장한 공설시장은 몇 년 전 내홍동으로 이전한 기차역과 공설운동장을 끼고 있어 한때는 강경, 논산, 부여, 대천, 서천, 장항 등 충남 일부와 김제, 부안 등 전북 서부권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지역의 서민경제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역사 깊은 장소다.

돼지국밥집 13곳, 보신원 1곳, 그릇가게 1곳이 영업 중인 세느강변은 원래 약단지에서 대형 김치독까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질그릇을 진열해놓은 가게들이 이웃한 '옹기전 골목'이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돼지국밥집이 하나씩 들어서고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면서 군산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왔다.

원래 공설시장과 돼지국밥집이 모여 있는 옹기전 사이엔 껌보선창으로 유입되는 '셋강'(일명 깨꼬랑)이 있었다. 이후 1970년대 중반 복개공사로 셋강이 사라지자 국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아련한 추억을 잊지 못해 프랑스 세느강에 빗대, 세느강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 세느강변은 이곳의 별칭이자 애칭이다.

세느강변 돼지국밥은 시골에 사는 노인층은 물론 40~50대 중년층에게도 인기가 좋다. 60~70년대 학교에 다녔던 그들은 점심 도시락에 밥 대신 찢 고구마를 서너 개씩 넣어서 다녔고, 학교를 오가며 지나야만 했던 공설시장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에 '한 그릇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던 추억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부담 없는 가격에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하며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즐겨 찾았던 신영동 세느강변 돼지국밥집 골목이 공설시장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길을 넓힌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건 서민들이 겨울에 애용하는 사랑방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죠. 맛과 향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전통 있는 장소이니까 보존돼야 합니다."

취재 중에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워했고, 대답도 같은 내용이었다. 재개발을 이유로 돼지국밥집 골목을 없애는 것은 적은 돈으로 친구와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를 없애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

세느강변 '서울집' 주인아주머니(65)는 내년 8월에 공사가 끝나고 이곳 업소들을 재건축 시장건물 2층 식당가로 옮기면, 현재 영업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죽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그서 세를 살면서 장사를 허요. 근디 시청서는 우리 모다(모두) 새 건물 2층으로 가서 장사를 허라고 합니다. 글은 좋아요.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내년에 모다 2층으로 올라간다고 봅시다. 새 건물로 들어가니 좋지요. 허지만 장사는 안돼요. 왜냐. 여그 집주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내줄 것 아니겠소. 그러문 우리는 터만 닦아놓고 공중으로 뜬 고무풍선이 되야뿔고, 서로 경쟁이 붙은 게 모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께 우리가 여그서 그냥 장사허도록 놔두는 게 켈 좋다 이거요. 우리는 여그다 목매고 사는 사람들잉게..."

아주머니는 세느강변 업소들이 헐리고 새로 건축하는 건물 2층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도 단골손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어야야 알았다며 어이없어했다. 업주들은 골목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하고 작업장을 설치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나같이 말했다. '잠깐만집' 주인 황승운(54)씨는 그동안 과정을 설명하며 답답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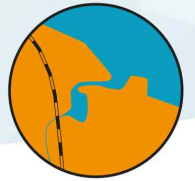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몇 개월 전이었어유. 시청에서 두 분이 와서는 가게 앞 주변을 정리해주겠으니 작업을 안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허드라구유. 그러서 보시다시피 가게가 좁아 들어갈 장소가 없다면 작업장을 설치해달라고 했쥬. 그랬더니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며 가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나와서는 길을 넓히겠으니 새 건물로 이사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되문 여기 업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세느강도 사라지거든유."

업주들은 지난 5일 시청 직원들과 몇 시간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했지만, 시원하게 결정된 게 없다면 아쉬워했다. 그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새 건물로 입주한다고 해도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회현집' 주인 김진호(65)씨는 세느강변 돼지국밥이 맛있는 이유는 국물이 진국이고 반찬 하나도 싱싱한 양념으로 정성 들여 만들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루에 소비하는 돼지머리 7~8개와 내장 등을 넣고 푹 고아낸 국물에 다시 뼈를 넣고 종일 고았으니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세느강변 돼지국밥 특징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가리'(뚝배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그릇을 주문해도 따로 끓여 내오고, 고기양이 많아 국밥 한 그릇만으로도 소주 한 병 안주는 충분하다는 게 김진호씨 설명이다.

국밥 한 그릇에는 연하고 고소한 맛이 별미인 머리고기와 꼬들꼬들한 내장 등 돼지의 다양한 부위가 들어가는데, 손님이 구미에 맞는 부위를 많이 넣어달라고 주문하면 요구대로 들어준다고. 내가 보기에든 가게는 허름했지만, 음식을



깔끔하게 차려주는 것이 손님들에게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었다. 뒷맛이 개운한 새우젓과 적당히 익은 깍두기, 한 사람이 가도 즉석에서 버무려주는 싱싱하고 상큼한 부추 곁절이가 입맛을 돋워주기 때문이다.

군산 경제와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

'중동집' 주인 박윤봉(56)씨는 세느강변 골목은 군산의 서민경제와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 하고 있으니 시청에서도 알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밥집 13곳에서 판매되는 돼지머리가 하루에 170~180개 정도 되고, 행사가 많은 봄가을에는 200개 넘게 소비하는 날도 있다는 것.

"이곳 가게들은 한 그릇에 6천 원씩 받는 국밥만 파는 게 아닙니다. 고사 머리와 편육도 많이 나가요. 고사를 지내거나 개업 집에서 많이 사가는 돼지머리는 하나에 2만 5천 원. 머리 고기는 2만 원. 큰 행사나 잔치 때 빠지지 않는 편육(누른 고기)은 한 근에 6천 원씩 파는데요. 외지에서도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박씨는 군산 손님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충남 장항, 서천은 물론이고 한산, 대천, 전북의 익산, 김제, 전주에서까지 와서 사가고,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식당을 경영한다는 교포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와 편육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사정해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까지 알려주었던 일화도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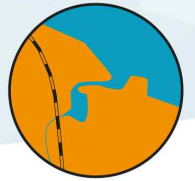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진출입로 확보 최소화해서 명소로 지정해야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세느강변을 찾는다는 한 시민은 "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돼지국밥집 골목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돼지고기 부산물을 다루는 과정을 청결하게 하고, 골목도 시대에 맞게 정비해서 명소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진출입로 폭을 최소화하고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서 지금의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되기를 업주들이 요망하고 있다는 기자의 말에 군산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세느강변으로 불리는 '돼지국밥집 골목'을 군산을 상징하는 명소로 보존하려고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에 완공되는 재건축 건물 2층 입주 문제는 전적으로 업주들 의사에 달려있다"면서 "부산물 관리와 간판 정리 등 청결과 미관을 갖추고 단체를 구성하면 공식협의를 통해 (이곳을)군산의 재래시장 역사와 음식문화 중심의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예산을 세워 공동작업장도 설치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단체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음식 테마거리를 조성한 후에 업주들이 스스로 냉동실과 냉장고 등 작업장 내부와 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표 72] “식당꼴은우습지만,최불암도왔다간‘명가’에유”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식당꼴은우습지만,최불암도왔다간‘명가’에유”	2013-12-01	매거진군산

기사 전문

단골들에게 ‘아귀찜의 달인’ 소리를 듣는 ‘국일복집’ 주인 장창용(62)씨. 그는 옥구군 대야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산으로 유학(?), 옛 청과시장 골목에 있던 ‘국일집’ 주방에서 요리 기술을 익혔다.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장씨는 주인의 종매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식도 올렸다. 1978년에는 가게를 인수하여 간판을 ‘국일 복집’으로 바꾸고 오늘에 이른다. 식당 경력 35년. 하지만 요리 경력은 50년이 되어간다.

가장 자신하는 밑반찬을 추천해달라니까 다른 식당에서도 다 나오는 메뉴라며 손사래를 친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니냐고 하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신은 생선탕과 생선찜 조리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 새로운 반찬은 만들지 못한다며 한술 더 뜬다. 요즘 젊은이들 입맛에 맞는 새콤달콤한 음식은 만들지도 모르고 새롭게 개발하고 싶지도 않단다.

“식당 손님의 20%는 젊은층(20~30대)이고, 80%는 중년층(40~60대) 이상인데요. 젊은층은 대부분 아귀탕에 된장 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국물에 콩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중년층 이상은 된장을 풀어야 국물이 깊고 개운하다며 좋아하거든요. 변화를 요구하는 손님도 있는데, 저는 처음 배울 때 그 맛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반세기 가까이 동네(신영동, 죽성동)를 지키면서 생선과 함께 살아온 장씨. 그는 고집도 대단하다. 예전엔 군산시청, 옥구군청, 은행, 세무서, 경찰서, 수협, 한국합판, 우풍화학 등이 한 마장 거리에 있어 종업원을 4~5명씩 고용해도 손이 모자랐단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떠나고 동네가 적막강산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사는 하기 싫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탤런트 최불암도 두 번이나 다녀간 맛의 명가

장창용씨가 스물다섯에 식당 주인이 된 배경에는 운(?)도 따랐다. 당시 세무서 직원에게 세금폭탄을 맞은 국일집 주인이 그냥 문을 내리기는 아깝다며 장씨에게 인수하라고 권하면서 자신의 사촌 처제를 종매까지 썼다고 한다. 그 사촌 처제가 36년을 동고동락 하면서 살아온 이양례 아주머니. 부창부수 아니랄까봐 아주머니도 한마디 하고 나섰다.

“식당 꼴은 우습게 생겼지만, 탤런트 최불암도 두 번이나 왔다간 맛의 명가(名家)에유 명가.. 처음에 혼자 와서 복탕 국물이 진하고 개운하다고 허더니 두 번째는 스태프들을 데리고 와서 맛있게 먹고 가더라고유. 옛날에 타지로 떠났던 사람 중에 맛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손님도 있어유.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하루에 한 그릇을 팔어도 이 자리를 뜰 생각은 없어유. 식당 하면서 애들 셋 낳아서 가르치고, 시집·장가보내고, 손자 손녀 여섯이나 봤으면 됐지, 그 이상은 욕심이쥬..”

옛날에는 자주 다녔는데 요즘에 발길이 끊긴 손님도 있느냐고 묻자 이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잇는다.

“손님은 손님인데 공짜 손님들이었쥬. 지금은 새벽시장을 이용하니까 만나기 어렵다. 옛날에는 푸성귀나 잡곡을 한두 되씩 가져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할머니가 많았어유. 아무리 밥장사지만 행상 할머니 잡곡을 받고 밥을 줄 수는 없잖유. 그래서 ‘잡곡은 팔아서 용돈이나 하시라’고 말하고 누룽지나 생선탕을 끓여주면 땀을 흘리면서 맛있게 먹고 가고 그랬는디,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네유...”

입담이 구수한 아주머니의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넉넉한 인심이 묻어난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유도 느껴진다. “아주머니는 젊었을 때 공덕을 쌓으셔서 훗날 고생도 안 하시고 저승에 가도 좋은 곳으로 인도되겠다”고 하자 “그야 있는 반찬이고, 밥을 솥에 해먹을 때니께 누룽지도 지천으로 널렸었는데 공덕은 무슨 공덕이냐?”고 되묻는다.

김(쌈)+양념장+밥+광어회+콩나물=?

아귀찜 2인분을 주문했다. 곧바로 상이 차려진다. 송이 버섯탕, 대파나물, 콩나물 무침, 홍어회, 목은김치, 총각김치, 도토리묵 등 식단이 간결하면서도 침샘을 자극한다. 홍어회 한 찜을 목은김치에 싸서 입에 넣는다. 씹을수록 새콤, 달콤,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식욕을 돋운다. 밑반찬 하나하나가 그 옛날 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들어주던 그 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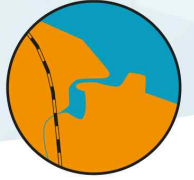
넉넉한 인심을 빼놓을 수 없다. 광어회가 서비스로 나오기 때문. 광어회 서비스는 기본이란다. 살코기가 부드러운 광어회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자체로 일품이다. 하지만 파래 냄새 향긋한 김(쌈)에 밥을 한 수저 담아 양념장을 바르고 광어회 한 찜과 콩나물 무침을 한 젓가락 얹으니 멋진 ‘콩나물회 김밥’이 된다. 그 맛 또한 별미 중의 별미.

국일 복집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정한 ‘착한가격 물가안정 모범업소’. 그래서 그런지 값도 착하고 맛도 착하다. 일반 식당에서 아귀탕은 1만 3000원~1만 5000원, 복탕은 1만 5000원~20000원씩 한다. 그러나 이곳은 우럭탕(8000원)을 제외하고 모두 7000원이다. 아귀찜도 2인분에 2만 원, 복찜은 2만 5000원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내장 많이 넣으라는 손님 때문에 골치 아파

군산 짜보선창 대폿집 주모들이 해장에 술국으로 내놓기 시작해서 1960년대 후반 대중화되기 시작한 아귀탕. 육수에 된장을 풀어 생물로 걸쭉하게 끓여낸 아귀탕은 국물 맛이 깊고 개운하다. 육질 또한 쫄깃하고 담백하다. 뼈를 발라먹는 재미도 쏠쏠하고, 살코기를 건져내 물기를 살짝 뺀다가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일품이다.

보기만 해도 포만감이 느껴지는 아귀찜이 대접에 가득 담겨 나온다. 양념을 적당히 버무려 아귀 맛의 진수인 쫄쫄득득한 ‘암뽕’(내장) 한 찜을 입에 넣는 순간 매콤한 맛이 입안에 감돌면서 ‘국일복집 아귀찜 과연 명불허전이로세!’ 소리가 절로 나온다. 장씨는 “주방까지 찾아와 내장을 많이 넣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고개를 젓는다.



아귀찜에는 암뽕 외에도 부드러운 살코기, 날감지, 연골 부분이 들어가 발라먹는 재미까지 더한다. 숨이 죽지 않아 아삭아삭 씹히는 콩나물은 입안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렇게 건더기를 건져 먹고 남은 국물에 공기밥 한두 공기 비비면 입에 착착 감기는 비빔밥이 되는데, 숙취 해소에 으뜸인 것은 애주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

독특한 매운맛과 싱싱한 재료의 조화가 환상적인 아귀찜은 이제 군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예전에는 경남 마산이 원조로 알려졌으나 언제부터인지 군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70~80년대까지는 서울의 아귀요리 전문 식당에 가면 대부분 '마산아귀찜'이라 적혀 있었는데, 요즘은 '군산 아귀찜' 글귀가 자주 보인다는 것. 국일복집 아귀찜이 전국을 제패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표 73] 세느강변에서돼지국밥한그릇말아묵자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세느강변에서돼지국밥한그릇말아묵자	2014-02-01	매거진군산

기사 전문

제1의 항구도시 부산과 경상도 지역 주민들은 돼지국밥을 무척 즐겨먹는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에 나가면 돼지국밥 전문식당 간판이 자주 눈에 띈다. 피난시절부터 먹기 시작했으니 부산이 원조라며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애향심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은 ‘글쎄요?’다.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군산 공설시장(구시장) 옹기전에도 한국전쟁 이전부터 돼지국밥 전문식당 골목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 이름 하여 ‘군산의 세느강변’. 아래는 ‘중동집’ 주인 박윤봉(61)씨의 전언이다.

“서너 달 전이었어요. 일본에서 여든이 넘는 할머니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통역하는 분과 함께 우리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일제강점기 이 건물에 살면서 중앙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해방(1945)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는 할머니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옛날에는 국밥집이 4~5개밖에 없었는데 많이 늘어났다’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밥집 골목이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소원을 성취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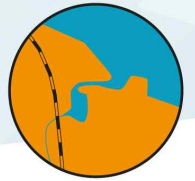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박씨 말마따나 한때 ‘구시장’으로 불리었던 공설시장은 일제강점기(1918) 장재동에서 옮겨와 ‘신영시장’으로 개장,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첫 번째 골목에 호미, 낫, 곡괭이 등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이 10여개나 됐고, 가축을 사고파는 ‘닭 전’도 있었던 공설시장은 인근 농촌과 섬주민은 물론 충청도 강경, 논산, 장항, 서천, 한산 등지에서 장보러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정성과 인심이 가장 큰 무기인 '중동집'

‘복어는 때릴수록 맛이 나고, 복은 칠수록 신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군산의 세느강 ‘중동집’이 그 짝이다. 갈 때마다 감칠맛이 더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철부지 시절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 옛날 사람들의 정겨운 숨결도 느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 할까. 돼지고기 냄새도 맡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 고소한 냄새가 그리우면 옹기전 골목으로 학교를 오갔다. 자장면 냄새가 그리우면 ‘쌍성루’ 옆 골목을 택했는데, 주방 창문이 골목을 향해있어 얼마든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하루는 국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부처님처럼 눈감고 있는 돼지머리를 구경하다가 발길을 돌리는데, “할로야!” 하고 정겹게 부르는 소리가 발길을 멈추게 했다. 아버지와 형님 이름은 몰라도 ‘선창 쌀집’이나 ‘할로네 집’은 우체부 아저씨가 사연을 물어볼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 고개를 돌릴 수밖에. “고놈, 머리가 장군처럼 크고 잘생겼네..., 너 할로 동상(동생) 맞지? 국수 한 그릇 말어줄 티니께 먹고 가그라...”

곱상하게 생긴 ‘중동집’ 주인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짓을 하기에 갔더니 국수를 말아주며 어머니 안부도 묻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했던 외식이고, 엄한 부모 밑에서 밥보다 칭찬에 굶주렸던 터라서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찾아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곱상했던 아주머니가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가 됐고, 식당은 30년 전부터 전수받은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 술과 안주를 공짜로 얻어먹는 건달 손님이 많다.

식탁은 3개, 술·반찬 인심은 무한정

예나 지금이나 '중동집'은 식탁이 4~5개 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식당이다. 그러나 고기와 양념을 아끼지 않고 퍼주고 손님 한 사람이 가도 즉석에서 반찬을 만들어 주는 정성과 서비스는 호텔 레스토랑 못지않다. 특히 국밥을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버무려주는 싱싱한 부추 곁절이는 입맛을 돋아주고, 국물이 얼큰하고 개운해서 과음한 다음 날 속을 푸는데 그만이다.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국밥을 처음 먹는 사람은 보신탕으로 착각할 정도다.

젓과 육젓 등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새우젓과 국밥을 주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간이나 순대·꺾불·막창 등을 넣어달라고 하면 마다지 않고 넣어주는 인심은 어머니의 손맛을 떠오르게 한다. 많은 사람이 돼지 뼈를 고아낸 국물로 돼지국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든다고 자랑하는 식당도 있다. 세월이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기자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국물이 우유처럼 하얀 설렁탕은 소머리를 고아낸 국물이어야 하고, 샘물처럼 국물이 맑아야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곰탕은 양지부위와 소 내장이 재료이듯 돼지국밥도 돼지머리와 내장을 온종일 고아낸 국물이어야 전통 돼지국밥 국물로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얼큰하고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중동집' 돼지국밥은 시장 상인은 물론 시골에서 장보러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여전히 인기가 좋다. 소주 한두 잔 정도는 서비스로 나오기 때문이다.

옹기전 골목에 얽힌 이런저런 추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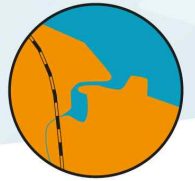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그 옛날 중동집은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퍼내 생계를 유지했던 서래산 피난민촌 아이들의 거래처이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사들인 석탄에 쌀겨와 황토를 적당히 배합해 말렸다가 땀감으로 사용해서다. 석탄을 쏟아놓고 새카만 손으로 국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며 야릇한 감정을 느꼈던 그때가 새롭다.

철길 건너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거나 선거 유세가 있는 날이면 옹기전 골목도 시끌벅적했다. 국수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로 허기를 채우고 "자~알 먹었소!"라고 인사를 건네며 수염에 묻은 국물을 손으로 닦던 노인들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60년대 중반까지 한 그릇에 10원이던 국밥은 7000원으로 오르고, 5원하던 국수는 찾는 사람이 없어 메뉴판에서 사라졌다. 이렇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국밥 한 그릇 값에서 놀라운 경제성장과 세월의 무상함을 함께 느낀다.

옹기전 옆에는 껌보선창으로 흐르는 샛강이 있었는데, 동남아지역 집들처럼 갯벌에 나무기둥을 박아 지은 집들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뱀어가 잡힐 정도로 물이 맑았고, 배도 떠다녔는데 지금은 복개공사로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아스라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어서일까. '중동집'을 갈 때마다 더욱 정겹고 마음이 아련해진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돼지국밥집 골목을 '군산의 세느강'이라 소개해오고 있다.

'서울 촌놈'이란 말이 있듯, 군산에 살면서도 서른이 넘도록 시장 옹기전이나 돼지국밥집 골목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 198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중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세느강'이라 했더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곧바로 이해하고 낭만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세느강 '중동집'에서 저녁이나 하자"라고 전화하면 금방 알아듣고 달려온다. 그 옛날 뱅어가 헤엄치던 냇강은 복개되어 주차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공설시장 옹기전은 '군산의 세느강'으로 다시 태어나 내 마음 속에서 계속 흐를 것이다. 60년 가까이 고목처럼 터를 잡은 '중동집' 음식 맛과 넉넉한 인심 또한 영원히 이어질 것이리라.



[표 74] 재보선창어부들, '금비라신' 믿으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재보선창어부들, '금비라신' 믿으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2015-12-01	매거진군산
기사 전문			

며칠 전 종결 스님(군산 동국사 주지) 전화를 받았다. 스님은 보여줄 사진이 있으니 언제 시내에 나오면 절에 들르라고 했다. 무슨 사진인지 궁금했다. 당장 보고 싶은 마음에 도깨비 대동강 건너듯 한달음에 달려갔다. 스님은 일제강점기 '군산 신사' 관련 자료와 신사 본전으로 올라가는 화강암 계단 흔적을 찍은 최근 사진 몇 장을 내놓았다.

신사(神社)란 일본 국조신과 왕실의 조상신, 각 지역 향토신, 국가 공로자 등을 모신 사당을 말한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전부터 일선동조(日鮮同祖)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명분을 내세웠다. 경술국치(1910) 이후에는 황민화 정책의 하나로 전국 곳곳에 1천 개가 넘는 신사와 요배소를 설치하고 조선 백성에게 노골적으로 참배를 강요하였다.

일제는 한민족 정기가 흐르는 백두대간 곳곳에 쇠말뚝을 박고 산허리를 잘라 도로를 만들었다. 풍수지리학에서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에 신사와 관청 건물을 짓고, 용천수가 솟는 우물에 쇠말뚝을 박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궁 앞 조선총독부(옛 중앙청) 건물과 서울 남산의 조선신궁(안중근의사 기념관)이다.

일제가 서둘러 '금비라신사'를 설치한 이유

군산 역시 개항(1899)과 함께 군산진(群山鎭) 자리에 일본영사관(훗날 부청)이 들어선다. 군산진은 왜구들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조선 초에 설치한 수군기지였다. 일제는 1902년 지금의 월명공원 수시탑 부근에 일본 어업신을 모시는 금비라신사(金比羅神社)를 설치한다.

1915년에는 부청 옥상에 '천조대신'을 모신 신사를 임시로 마련했다가 1920년 대사산(현 서초등학교 뒷산) 중턱에 본전과 배전을 신축 이전한다. 초기 부청 옥상의 군산신사는 일본 혼슈 이세신궁(伊勢神宮)의 1/12로 축소한 규모였다. 그해 11월 상량식 때는 군산 부민의 영원무궁한 수호신으로 삼고자 동쪽을 향해 만세삼창을 외쳤다고 한다.

1926년 발행된 <군산안내>는 "군산공원(현 월명공원)은 군산부 서쪽에 있으며 경치가 웅대하고 소나무 숲이 우거져 창연하며 벚꽃이 필 때 조망이 가장 좋다. 금강이 눈앞에 흐르고 있으며 전북의 섬들, 충남의 산야가 일시에 펼쳐져 4계절 놀기에 적당하다. 산(대사산)허리에 '군산신사'가 있어 경내에는 장엄한 기운을 느낀다"라며 군산의 명소로 소개하고 있다.

일제가 군산에 금비라신사를 서둘러 설치한 이유는 뭘까. 조·일 통어장정(1889) 이후 일제는 조선침략의 전초전으로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군산 경포와 고군산군도 각 섬에 이주촌이 조성된다. 따라서 군산 지역에는 개항 훨씬 전부터 일본에서 이주한 어민 수백 명이 살고 있었다. 1900년에는 일본 후쿠오카(福岡縣) 어민 30호가 지금의 해망동 일대에 이주한다.

해마다 재현되는 용왕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예로부터 군산지역 어민들의

풍어와 안녕을 지켜주는 신령은 군산의 진산인 월명산 산신과 서해바다 용왕님이었다. 짜보선창 어부들은 북어를 선왕신(船王神)으로 모시고 고사를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놈들이 나타나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금비라신'과 '천조대신'을 받들라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가정집과 수감자들에게도 신사참배 강요

종결 스님이 내놓은 사진은 군산신사 본전과 배전, 1930년대 신사광장 모습, 군산신사 도리이(鳥居), 군산신사에서 찍은 일본인 결혼사진과 조선인 결혼기념 가족사진, 군산중학교와 군산공립보통학교(현 중앙초등학교) 봉안전, 심상고등소학교 교정에 세워진 내목장군(乃木將軍) 동상 앞에서 찍은 일본 학생들 기념사진, <군산개항사>(1925년 발행) 인쇄본 등이었다.

'도리이'는 신사 입구에 세워진 전통 일본식 출입문을 말한다. 일제는 조선인 학교에도 교육칙어와 소화천황 사진 등을 봉안하고 아침조회 때마다 참배를 강요하였다. 내목 장군은 러일전쟁(1904~1905) 영웅으로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적장을 살려준 일본 전통 사무라이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고 한다.

1910년에 업무를 시작한 군산형무소에도 봉안전이 설치된다. 일제는 수감자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신사를 중심으로 천황까지 신격화하여 자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 지배에도 이용하였다. 군산신사 밑에는 신사광장(현 서초등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 및 집회 장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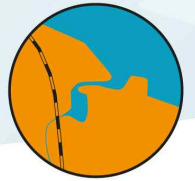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일제는 중일전쟁(1937)과 함께 일장기 게양, 궁성요배 등 황국신민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가정에 가미다나(神棚)라는 소형 신단을 만들어 모시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다. 조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때는 신사광장에서 장한 뜻을 품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송별하는 의미로 장행회를 거행했다.

조선인 식당 조합을 비롯해 제과점 조합, 철도 노동조합, 청년단체 발표회, 극장 공연, 환갑잔치, 결혼식장, 친목 모임 등에서도 기미가요(君が代) 열창과 궁성요배를 강요하였다. 결혼식도 일본 국조신을 모신 신사에서 올릴 것을 선전하였다. 군산신사를 배경으로 찍은 결혼기념 가족사진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이루어 많은 조선인이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동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일인과 소수 조선인으로 구성된 군산상공회의소는 해마다 군산 신사에서 상공제(商工祭)를 개최했다. 그들은 내선일체 근본을 신사에 두고 전쟁터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령제와 만주, 동남아 등에서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무운장구를 비는 의식을 가졌다. 이만수 경성고무 대표(상공회의소 부회두)는 1939년 8월 군산신사 개축비로 1000원을 기부, 6만 부민의 화제를 모았다.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마쓰리축제 때는 일본인들이 천조대신을 모신 금상여를 메고 신사광장을 출발, 하오리(羽織)와 게다가 소리 요란한 명치통(중앙로 1가), 소화통(중앙로 2가)을 지나 군산역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초기엔 일본인들만 참여했으나 황국신민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선 청년들을 동원, 신사에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군산 시내 교회 신도들 찬송가를 압수하고, 목사



장로들은 '미국의 앞잡이'라는 죄목으로 잡아다 고문을 가하였다. 1902년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군산영명학교(군산제일고 전신)는 교내 신사 설치와 참배를 거부하다가 1940년 졸업생을 끝으로 학교를 자진 폐쇄한다. 선교사들은 그해와 그 이듬해 모두 본국으로 추방당한다.

돌계단, 초석 등으로 군산신사 터 확인

일제강점기 국내에 설치된 신사는 1062개로 광복과 함께 대부분 파괴된다. 신사만큼은 남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꺼렸던 일본인들이 신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승신제(昇神祭)라는 의식을 통해 신사를 불태우거나 파괴했던 것. 현재 남아 있는 신사는 천조대신을 모셨던 '구 소록도 갯생원 신사'(등록문화재 71호)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산신사와 금비라신사도 광복과 함께 통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일제 수탈의 상징이자 수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을 군산 신사. 70년 전에 불타버린 그 건물터를 두고 누구는 지금의 서초등학교 뒤편이라 하고, 누구는 월명공원 대사산 중턱 회전그네가 있던 자리라 해서 헷갈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1980년대 중반, 군산 신사가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을 짓고 사는 김흥수(67)씨 설명이다.

"이 집으로 이사한 지 30년쯤 됐죠. 집을 소개한 분이 일본 사람들 신당(신사)이 있던 자리라며 명당이라고 살짝 알려주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쪽 해양경찰서 자리에 군산의료원(도립병원) 건물만 있었고, 앞에 서초등학교 건물은 없었어요. 옥상에 올라가면 군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으니까요. 뒤쪽 가파른 산비탈을 넘어가면 회전그네가 있던 자리죠. 집안 이곳 저곳에 기둥을 세웠던 초석 몇 개와 난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40평 남짓)만 구입해서 살다가 돈을 모아 밭이랑 앞집까지 사들여 넓혔죠. 모두 합해서 170평쯤 되는데, 건물 번지(9-24, 9-49, 9-10)가 각각 다릅니다. 집을 손보다가 일본어가 조각된 바위를 발견했는데, 주위에서 일본인들이 물 떠놓고 절하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을 지으면서 덮어버렸죠. 지금 생각하니 뭐라고 써 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집을 헐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웃음)"

군산신사 자리였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종결 스님이 지목한 가파른 돌계단이었다. 까치발을 하고 시멘트 담을 넘어다보니 일제강점기 신사광장에서 '도리이'를 지나 본전으로 올라오는 돌계단 일부가 잡초와 흙더미로 덮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회한이 밀려왔다.

자료출처: 군산시사(2000), 동국사 침탈사료관, <군산수협 70년사>(2004), 1930년대 동아일보

[표 75] 황석어가‘참조기를달리이르는말’이라고?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황석어가‘참조기를달리이르는말’이라고?	2015-12-01	매거진군산
기사 전문			

어족자원의 보고 서해바다. 그 서해로 흘러드는 금강, 만경강 하구에 자리한 항구도시 군산(群山)은 예로부터 수산물이 풍부했다. 구릉과 들녘을 끼고 흐르는 하천이 10개 가까이 되고, 비옥한 임피·옥구평야와 광활한 호남평야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농산물도 풍족했다.

군산은 1995년 옥구 임피와 통합, 농어촌 복합도시가 됐다. 군산 앞바다는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서쪽은 어청도, 남쪽은 위도, 북쪽은 개야도와 충남의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다. 서해 연안은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얇은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금강, 만경강 하천의 토사 유출로 썰물일 때는 강 하구에 넓은 갯벌이 형성된다.

조선 시대 군산의 주요 어류

1454년(단종 2) 펴낸 <세종실록지리지>는 옥구현 해산물(조기, 준치, 대하, 송어 등)을 진상품으로 거론한다. 옥구·임피 주민이 참냉쿨을 그물 형태로 엮은 기구와 대나무로 만든 발(죽방) 등으로 잡은 수산물 20여 종도 소개하고 있다.

1486년(성종 17)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염(소금), 방풍(미나릿과 식물) 등이 나온다. 이밖에 오곡(쌀·보리·콩·조·기장), 밀, 목화, 대나무, 밤, 마(麻), 뽕, 명주, 감, 배(柿), 사과, 매실, 잣, 꿀, 옷 등의 농산물과 모래무지, 굴, 정어리, 굴비(조기), 오징어, 민어, 농어, 황새기(황석어), 잉어 등의 어류를 토산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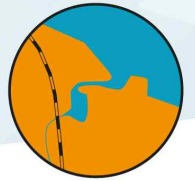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군산 연근해는 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발달해 다양한 어장이 형성됐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8)에 따르면 주요 어종은 조기, 복어, 상어, 민어, 흥어, 뱀어, 갈치, 게, 삼치, 대구, 청어, 새우, 송어, 병치, 오징어, 가오리 등 35종에 달하였다. 그중 일본인은 값비싼 민어, 준치, 뱀어 등을 먹었고, 조선인은 흔하고 값싼 갈치, 송어, 아귀 등을 먹었다.

진어(眞魚)로도 불리는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최고의 맛을 자랑했다. 진어는 ‘참다운 물고기’라는 뜻으로 금강에서 많이 잡혔다. 살에 가시가 많은 게 흠. 일제강점기에는 일인들이 ‘가시만 없으면 조센징 먹기는 아까운 생선’이라며 한국인을 비하할 때 빗대어 말했다. 광복 후에는 ‘조센징’이 ‘촌놈’으로 바뀌어 실소를 터뜨리게 한다.

1945~1961년까지 군산 수협에서 위판된 주요 어종은 조기, 갯장어, 고등어, 서대, 병치, 농어, 도미, 갈치, 대구, 민어, 상어, 복어, 대하 등 22종이었다. 1964년 기록은 뱀어, 전어, 웅어 등이 추가되어 27종으로 늘어났다. 1990년 통계는 강물 오염으로 뱀어가 사라지고, 주꾸미가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짜보선창을 상징했던 황석어젓

황석어는 농어목 민어과에 속한 바닷물고기다. 군산 지역에서는 ‘황새기’로



불리었다. 1960년대 이전 서남해안에서 많이 잡혔다. 가정에서는 찌개나 구이보다 젓갈을 담가 먹었다. 한때는 군산 꾀보선창을 상징하는 젓갈이기도 했다. 지금도 선창가 동네에서 황석어젓을 담그던 젓탱크(젓당꼬) 흔적을 볼 수 있다.

황석어는 잡히는 시기도 조기와 비슷한 봄철이었다. 생김새와 색깔도 비슷해 조기 새끼로 착각하기 쉬운 생선이다. 어학사전에서도 ‘참조기를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멸치가 크다고 콩치가 될 수 없듯, 황석어는 아무리 커도 참조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황석어는 맛과 어종이 조기와 다르고 씨알도 훨씬 작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들을 웅긋중긋 떠받고 물이 안 보이게 선창가로 뻑뻑이 들이 밀렸다. 칠산 앞바다에서 잡아온 젓조기가 한창이다. 은빛인 듯 싱싱하게 반짝이는 준치도 푼다. 배마다 썸 세는 소리가 아니면 닻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

채만식 소설 <탁류>의 한 대목이다. 5월 초순 어느 날 군산 꾀보선창 풍경을 전하고 있다. 예전엔 매년 곡우에서 입하 사이에 조기 파시가 섰다. 어상자가 없던 시절이어서 생선을 바닥에 무더기로 쌓아놓거나 광주리에 담아 경매했다.

소설에서 말하는 ‘젓조기’ 역시 ‘황석어’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주석에서도 ‘젓을 담그는 조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젓 담그는 조기가 따로 있지 않았다. 젓갈을 즐겨 먹는 주부들이 곡우(穀雨) 파시 때 씨알이 좋은 황금빛 참조기를 골라 젓을 담그거나 해풍에 꾸둑꾸둑 말려 보관했다가 제사나 명절 때 사용하였다.

조기는 민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의 총칭이다. 그중 참조기는 머리 부분에 귀돌(耳石)이 있어 석수어(石首魚)로도 불리었다. 몸 전체는 황백색을 띤다. 어기(漁期)는 4월~5월. 조기떼 이동에 따라 영광, 군산은 4월에서 5월 초순, 연평도는 5월 중순쯤 파시가 섰다. ‘동지나 어장’ 개발(1969) 이후에는 어구 발달과 해수면 온도 변화로 4계절 내내 맛볼 수 있게 됐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몸길이 20cm 넘어가는 참조기는 구경조차 힘들어졌다. 60~7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생선탕 전문 식당에서 조기탕을 주문하면 흥두께 크기(25cm~30cm)의 참조기 한 마리에 햇고사리 두세 가닥이 고품으로 얹혀 나왔다. 국물 가득한 뚝배기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한 향에 취해 침이 꼴깍 넘어갔다.

황석어는 ‘조기 사촌’으로 알려지는 부세(부서)보다 맛이 좋았다. 백조기, 수조기도 있는데, 어종 자체가 조기와 다르다. 조기를 인간에 비유한다면 부세는 흑인종, 황석어, 백조기 등은 침팬지 아니면 오랑우탄 수준이랄까. 한때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놀리는 말로 ‘멸치도 생선이나’, ‘황석어도 조기냐!’ 등의 우스개가 유행되기도 하였다.

무동력선이 주종을 이뤘던 1960년대 이전에는 조기 어장이 끝나면 황석어잡이가 시작됐다. 꾀보선창에는 황석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 많은 황석어는 아낙들의 광주리와 짐꾼들의 달구지에 실려 젓당꼬(젓탱크)로 옮겨졌다. 젓당꼬에서 여름을 보낸 황석어젓은 가을이 제철이었다.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밥도둑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잘 숙성된 황석어 젓국을 양동이에 남실남실 담아놓으면 누런 기름이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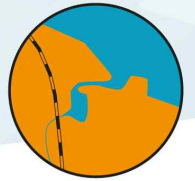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떠다녔다. 손가락으로 짚어 맛보면 짠맛이 나면서도 뒷맛이 구수하고 입안에 단맛이 감돌았다. 집으로 배달된 황석어젓국은 주부들이 장작불을 피워 가마솥에 간장 달이듯 달였다가 김치를 담가 먹었다.

군산 지역 주부들이 황석어 젓국을 얼마나 선호했는지는 30개가 넘는 짜보선창 부근 젓탱크와 가을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당시 선창가 풍경이 말해준다. 김장철이 되면 젓국을 물지게로 나르는 일꾼들 고함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검정고무신에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른 무명옷 차림의 아낙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황금빛 젓국을 물지게로 나르며 킁킁대던 형들 모습과 구수한 젓국 냄새가 골목골목 파고들던 선창가 풍경이 아스라이 그려지는 요즘이다.

도움말: 김흥배 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장항 지원장

자료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작성자 조종안



[표 76] 군산개항117주년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군산개항117주년	2016-06-24	nsp통신
기사 전문			

‘자주적 개항’에서 일제 미곡수탈 전진기지로 전략..한적한 호변촌락에서 호남 최고 도시로 번영 구가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세관 옥상에도, 부두에도, 도로에도 눈길 가는 곳마다 도처에 수백 가마씩 쌓여 20만 쌀가마니가 정열하였으니…오호 장하다! 군산의 쌀이여!’ <군산개항사 중>

백제시대에는 기벌포, 고려시대 때는 진포라 불렀던 금강 하구. 갈대로 뒤덮인 작은 포구에 19세기 말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열강의 침탈과 일제강점기에 걸친 반세기 동안 민족의 아픔을 등에 지고 호남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117년 전 군산항 개항이다.

군산이 개항된 것은 1989년 5월 1일. 19세기 끝자락을 잡고 20세기 벽두를 연 말 그대로 세기적 전환기였다. 시대상황 또한 500년 왕업의 조선이 외세의 침탈에 맞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며 자주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시기다.

한편으로 국권상실과 미곡수탈의 아픔을 뒤로 하면 군산의 개항은 군산은 물론이고 전북 전역에 근대화의 회오리를 몰고 온 일대 사건이었다. 군산항을 통해 밀려든 신문명의 물결이 경제·사회·문화 등 전 사회에 걸쳐 새로운 사조의 불씨를 지폈다.

출발은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항

군산항 개항의 출발은 자주적 개항이었다. 1898년 5월 26일 외부대신 조병직이 “항시(港市) 개설은 상업을 확장해 민국(民國)의 이익을 발달케 한다”며 군산·마산·성진 등 3개 항 개항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가 회의를 거쳐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의결하니 고종이 “다수에 따라 시행하라”고 재가했다. 여기에 독립협회의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개항 운동이 군산항 개항을 촉진했다.

이후 지체되던 군산항 개항은 대한제국 의정부가 열강들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요구를 수용해 1899년 3월 20일 5월 1일로 개항 일자를 잡았다.

개항 일자가 결정되자 대역사가 전개됐다. 세관이 먼저 들어선 가운데 해안매립과 항만축조 공사가 진행됐다. 또 일본식 격자형 도로가 개설돼 그 중심지에 본정통이 들어서고 조차지가 조성됐다.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 납부 능력도 없었던 대한제국은 개항을 위해 천문학적인 일제 자본을 조달했다.

이 때 일제는 대한제국으로부터 평당 30전에 땅을 불하받았는데, 당시 눈깔사탕 1개 값이 1전이었으니 말 그대로 ‘사탕발림’이었다.

눈깔사탕 30개에 1평 불하

개항을 통해 해외무역을 촉진해 관세 수입을 늘리려던 대한제국의 계획은 공허한

꿈으로 끝났다. 오히려 나날이 국력이 쇠약해져 을사조약으로 사실상 일제에
예속되고 급기야 국권상실의 경술국치를 맞게 됐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아랑곳없이 군산은 일제강점기 들어 미곡
수탈기지로 번영을 구가하며 흥청거렸다. 1925년 어용학자들이 펴낸
'군산개항사'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세관 옥상에도, 부두에도, 도로에도 눈길 가는 곳마다 도처에 수백 가마씩 쌓여
20만 쌀가마니가 정렬하였으니...오호 장하다! 군산의 쌀이여!'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들을 군산항으로 수송하기 위한 교통망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1907년 항만이 축조된 후 1908년엔 최초의 포장도로인 전주-군산 간
전군가도, 1912년엔 익산-군산 간 철도가 들어섰다.

도로와 철도, 우마차를 통해 군산항으로 들어온 쌀들을 일제는 4개의 부잔교에
3000톤급 선박 6척을 동시에 접안해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군산의 도로는 주변 평야지대로부터 쌀을 끌어 모으기 위해 군산역과 군산항
주변으로 집결되었다. 지금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장미동과
영화동에는 군산세관, 조선은행 군산지점,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시청 제 3청사 등
관청이 들어섰다.

일본인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조선 농민들에게 고리채를 놓았다. 중앙로
동쪽 군산역과 군산항 사이에는 운반된 미곡을 가공하기 위한 정미소와 이를
지원하는 금융시설인 미곡조합 등이 밀집해서 들어섰다.

드넓은 호남평야로부터 수확된 쌀이 집산되고 가공돼 일본으로 송출되면서 여러
금융조합을 통해 돈으로 환산돼 거리로 흘러들었다.

정미소는 역시 당시 군산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시설의 하나로 일본인 농장주
소유의 창고시설과 함께 군산의 경관과 쌀 수탈의 역사성을 특징지어주었다.

3000톤급 선박 6척 동시 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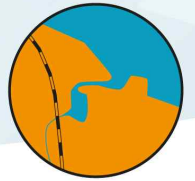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민족의 상처가 커질수록 더욱 호황을 누린 군산의 번영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개항 당시 군산의 거주 인구는 일본인 77명을 포함해 588명에 불과했다. 이것이
경술국치의 1910년엔 조선인 3830명과 일본인 3448명 등 7373명, 다시 1920년
조선인 8243명과 일본인 5659명 등 1만4138명, 1937년 조선인 3만2399명과
일본인 1만255명 등 4만2851명, 1942년 조선인 4만6959명과 일본인 8624명 등
5만6036명으로 급속히 팽창했다.

무역액도 급격하게 증가해 개항 당시 1만2000원에서 1934년 7400여만 원으로
6159배나 신장됐다.

수출 상품은 쌀이 거의 단일 품목이었다. 전체 수출액의 95%를 쌀이 차지하는
가운데 1909년 조선의 전체 쌀 수출량의 32.4%가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일제의 미곡수탈이 절정에 달했던 1934년에는 조선에서 생산된 1672만석 가운데
53.3%인 891만석이 일본으로 송출되었다. 그중 호남평야에서 생산돼 군산항을
통해 빠져나간 쌀은 300만석 이상이였다.

사람과 돈이 몰려들자 군산은 밤낮 없이 흥청거렸다. 유곽과 공창이 들어서고
음식점이 서울 못지않게 성업을 이뤘다.



미두시장의 투기도 극성을 부렸다. 일제가 재래시장 중심의 쌀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민관합작회사로 설립케 한 미두취인소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기꾼들이 부나방처럼 모여들었다.

‘화투는 백석지기 노름이요, 미두는 만석지기 노름’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채만식은 소설 ‘탁류’에서 이 시절의 군산을 ‘도박꾼의 공동조계요, 모나코의 도박도시인 몬테 카를로’로 비유했다.

노형석 역시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에서 ‘논, 밭, 집을 저당 잡히고 미곡 투기놀음에 골몰하는 조선의 미두꾼과 고리대로 한몫 보려는 일본 정상배, 낭인들이 몰려들어 그 자체로 범죄와 모략, 궁핍이 뒤섞인 인간 탁류의 도가니를 이루었다’고 당시 군산 시가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민족의 아픔 뒤에서 투기로 흥청

일제의 미곡수탈 정책에 편승해 약삭빠른 소수는 거액을 챙겼지만 대다수인 민중은 계량하기 힘든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1926년 말 30정보 이상의 규모를 가진 일본인 농장수는 전복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많은 자영농들은 소작으로 전락했다. 1916년 53%였던 소작농이 1930년 87%로 급증했다.

농지의 상실은 살인적인 굶주림으로 이어졌다. 1935년 군산 주민의 60% 이상이 보리가 여물기도 전에 곡식이 떨어지는 춘궁 농가였다. 굶어 죽는 사람이 514명에 달했다.

고통을 겪기는 일본 농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에서 들여온 쌀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자 쌀 수입 반대 시위에 나섰다.

117년 전 군산개항은 오늘날 역사의 화두로 다가오고 있다. 수탈과 인명의 대가로 들어선 구조물들이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 모으고 있다. 아픈 역사의 생채기의 위에서 ‘희망의 땅’으로 부상하는 군산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발판 삼아 바야흐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군산 신시도에서 김제를 거쳐 부안 해창을 잇는 33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고 1억2000만 평의 광활한 간척지를 개척해 관광산업과 첨단산업을 통한 아시아 허브를 꿈꾸고 있다.

세월과 함께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역사의 변증법’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표 77] "상어는뜨거운물로목욕시켜먹는거여!" 조종안기자의짜보선창생선이야기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상어는뜨거운물로목욕시켜먹는거여!" 조종안기자의짜보선창생선이야기	2017-05-01	매거진군산
기사 전문			

"내가 늙어서 할머니 되든 어디로 가겠냐, 우리 '종아니'하고 살아야지."
"하이고 엄니도, 나는 커서 돈 벌면 아무도 모르게 부산으로 도망가서 살라고
허는디요."
"부산이라니... 그럼 어머니 아버지 제사도 거기(부산)서 지낼라고?"
"그러믄요, 나는 편하게 중국집에 가서 지낼라요.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시켜놓고
절허믄 되니까."

철부지 시절, 50대 초반이었던 어머니와 나는 대화이다. 겨울철만 되면
동상(凍傷)으로 시달리던 참에 "부산은 겨울이 없는 따뜻한 도시"라는 아버지
얘기를 듣고 농을 섞어 했던 대답이었다. 그런데 스물이 넘도록 놀림을 당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다. '크면 부산으로 도망갈 놈'이 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왜 부산이냐?"라며 한숨짓는 어머니를 보며
후회됐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제사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가 조상 모시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명절날 차례(茶禮)와 집안 제사를 정성껏 모셨다. 가족들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위해 해마다 음력정월에 독경(讀經)을 했다. 그래서일까. 음력
10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는 "요새는 손발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다!"라고 푸념할
정도로 바빴다. 설날은 물론 어머니 아버지 생일, 할머니·할아버지 제사, 매월
초사할 고사(告祀), 독경, 대보름 등이 모두 겨울에 들어 있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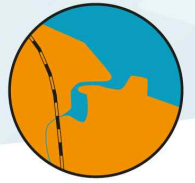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어머니가 꼭 챙겼던 생선 조기, 흥어, 상어

동네에서 음식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어머니는 제사나 명절 때 조기, 흥어, 상어는
꼭 챙겼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우물가에 가마니 넓이의 흥어
밑자리(大)나 내 키보다 큰 상어가 얹어져 있는 것으로 제삿날과 독경하는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었다.

흥어와 상어는 항상 어머니가 다뤘고, 바쁠 때는 단골 식객이던 '난순네 엄니'가
대신했다. 흥어 다룰 때 옆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다가 코끝 물렁살 한 점
얻어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내장에서 박대, 우럭 등 생선 새끼들이 나올
때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옛날 어른들은 흥어를 바닷물이나 샘물로 씻었다. 수돗물로 씻으면 흥어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맛이 감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겨울철 생선이어서,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날 독에서 금방 꺼낸 김장김치에 흥어를 싸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았다.
전라도를 상징하는 생선 흥어는 양념 무침, 흥탁, 탕, 찌개, 포 등 먹는 방법도
다양했다. 그래도 제사상에는 꼭 찜을 해서 올렸다. 흥어찜은 양쪽 몸체에 그어진
결을 따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채반에 가지런히 놓고 가마솥에 찜냈다.

흥어는 살코기에 유장(양념장)을 발라 찜먹기도 했는데 맛이 그만이었다. 그러나



제사음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맛있는 음식을 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지 궁금했으나 어른이 되니 이해가 되었다. 제사음식은 마늘이나 고춧가루를 양념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겉은 무서워도 속은 부드러운, 상어

생선을 물로 씻어내고 적당하게 자르는 과정을 '손본다', 혹은 '다룬다'고 했다. 그러나 뜨거운 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내는 상어는 '튀긴다'고 했다. 그래서 상어를 가져오면 가마솥에 물부터 끓였다. 왜 뜨거운 물로 씻느냐고 묻는 나에게 "야야, 상어는 뜨겁 물로 목욕시켜서 먹는 거여!"라고 했던 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돈다.

날이 어스름해지는 오후 4시만 돼도 혼자 뒷간에 못 가던 나였다. 그렇게 겁이 많았음에도 괴물처럼 무섭게 생긴 상어 튀기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 넓은 주둥이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이빨, 뱀눈을 떠오르게 하는 눈, 낭자한 선혈 등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상어는 우리나라 근해에 40여 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몸통이 원추형이고, 가시가 없으며 연골로 이루어진 어류이다. 특히 부레가 없고 청각과 후각이 발달해 4km 밖의 피 냄새도 맡는다고 한다. 웃기는 것은 배 뒷부분에 달린 수컷의 성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흥어 수컷의 성기와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상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다른 생선과 함께 가마솥에 찌거나 부침개를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다. 겉모양은 흥촉스럽게 생겼으나 찜을 해놓으면 살코기가 목화솜처럼 뽀얗고 부드러우며 생태 부침개보다 담백하고 고소하다.

선조들이 상어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게 된 연유는 첫째,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찌놓으면 '백의민족(白衣民族)'이 즐겨 입는 옷과 살코기 색깔이 비슷하다는 것. 셋째,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다는 것 등으로 생각된다.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던 생선으로는 '치' 자로 끝나는 꽁치, 갈치, 준치, 멸치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정어리 등이었다. 이유는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붕장어, 장어 등 가시와 기름기가 많은 생선도 올리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 생선' 조기

머리 부분에 큰 귀돌(耳石)이 있어 석수어(石首魚)로도 불리는 조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동지나 어장' 개발(1969년)과 해수 온도 변화로 1년 내내 싱싱한 조기를 먹을 수 있게 됐지만, 1960년대만 해도 그렇지 못했음을 말하고 싶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부지역 주민은 제수용 생선으로 '조기'를 으뜸으로 쳤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성장하여 아버지를 만나 군산 꾀보선창에서 뱃사람들을 상대로 쌀가게와 물장수를 했던 어머니도 조기를 최고로 여겼다.

냉동기술이 빈약했던 1950~1960년대. 어머니는 곡우(穀雨) 때 잡히는 1등급 조기 무더기에서 큰놈을 골라 살짝 얼간을 해서 해풍에 꾸둑꾸둑하게 말려 통풍이 잘되는 곳간이나 대청에 보관해두었다가 제삿날이나 명절 때 사용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3월이 되면 흑산도 근해에 2000척이 넘는 조기잡이 배들이 몰려 만선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조기떼가 조류를 따라 북상하여 5월 중순쯤에는 연평도에 파시가 서는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은 예로부터 황금어장의 보고였다.

5월 초쯤 되면 군산의 금암동, 해망동 부둣가에도 조기 파시가 섰다. '째보선창에 가면 강아지들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소문도 그때 나온 유행어이다.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도 조기는 한국의 미각(味覺)으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국민적 생선으로 사랑받고 있다.

'상어' 경매가, 경상도 높고 전라도 낮은 이유

옛그제였다. 흑시 상어가 나왔는지 알아보려고 해망동 수산물센터에 다녀왔다. 마침 고깃배들이 들어오는 음력 조금 때여서 싱싱한 생선이 가게마다 가득가득 쌓여 있었다. 그러나 매장을 찾는 발길은 뜸했다.

작년 가을 대하(大蝦)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 흥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는 반갑게 인사 하면서도 장사가 시원치 않다며 울상을 지었다. 상어에 대해 묻자 배들이 많이 잡아왔지만, 팔리지 않아서 들여놓지도 않았단다.

군산수협 소속 고깃배들이 잡아온 상어는 모두 200여 상자.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획량이란다. 어군(魚群)을 따라다니다 보니 많이 잡게 되었는데 경매가격은 생각보다 낮았다고 한다.

이유는 하나였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상어 고기 맛을 알거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조금씩 구매할 뿐 제수용으로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상어가 제사용으로 인기가 좋은 경상도 부산, 마산, 대구, 울산 지역은 경매가가 항상 군산보다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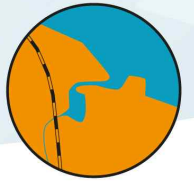
한때는 한국의 10대 어업에 들었던 '상어'

요즘은 상어를 얘기하면 거대한 '식인 백상아리'나 상어지느러미 요리(삭스핀)를 먼저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예전에는 부둣가에 나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생선이였다. 다만, 다루기가 어렵고 복잡해서 대중음식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군산수협 50년사>(1984년 발행)에서도 상어가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생선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동력선(風船)에 어벌·어구가 부실했던 1954년~1961년까지 군산 '동부공판장'(째보선창)의 연도별 어가와 어획량에서 상어가 고급 어종과 어깨를 겨루고 있어서다.

1954년 군산 동부공판장에 위탁 판매된 조기는 1720톤, 상어 570톤, 홍어는 585톤이었다. 1958년에는 조기 998톤, 상어 104톤, 홍어는 625톤이었다. 들쭉날쭉하면서 해마다 차이는 보였으나 다른 생선에 비해 꾸준히 어획량을 올리고 있었다.

1954년~1970년까지 고깃배들이 짚보선창에 쏟아놓는 어류, 즉 군산 동부 공판장에서 경매된 생선은 40종이 넘었다. 1973년을 기준으로 고등어, 정어리,



명태, 조기, 대구(大口), 청어, 삼치, 도미, 갈치, 상어 등은 한국의 10대 어업(漁業)으로 꼽았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 애주가들에게 인기 상한가인 '아귀'와 '물메기'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당시 아귀, 물메기는 뱃사람들의 천덕꾸러기. 즉 생선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에도 상어가 10위권에 들어 있어 놀라웠고, 흥어가 빠져 섭섭하기도 했다.

[표 78] 죽성포구,언제부터‘째보선창’이라부르기시작했을까
사진과기록으로보는군산째보선창100년(1)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죽성포구,언제부터‘째보선창’이라부르기시작했을까사진과기록으로보는군산째보선창100년(1)	2017-07-01	매거진군산
기사 전문			

죽성포구, 언제부터 ‘째보선창’이라 부르기 시작했을까

사진과 기록으로 보는 군산 째보선창 100년 (1)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해상왕 장보고(?~846) 역사가 말해주듯 바다를 주름잡았을 때 나라도 융성했다. 임진왜란 역시 이순신 장군이 45전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바다를 지켰기에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특히 서해는 예로부터 어족자원의 보고로 알려진다. 서해안 중심부이자 금강 하류에 자리한 항구도시 군산(群山), 그 금강 하구의 여러 포구 중 애환과 영욕이 서린 죽성포(째보선창) 100년의 자취를 기록을 통해 알아본다. -기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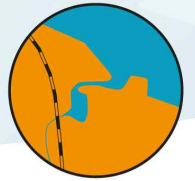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근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군산은 조선 시대부터 어시장(魚市場)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대표적인 포구로 죽성포(째보선창), 경포(설애장터), 궁포(구암포), 월포(달개나루), 서포(서시포), 나포(나리포) 등을 꼽는다. 이곳에 거주하는 객주들은 여각을 운영하며 어부들이 잡아 온 물고기를 위탁받아 매매를 주선하였고, 보부상들은 각 지역의 오일장에 내다 팔았다.

군산은 조선 시대 전라도 7개 고을 세곡을 취급하는 군산창(群山倉)이 있어 객주도 많았다. 이곳 객주들은 군산포, 죽성포, 경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다수에 따라 시행하라’는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1899년 5월 군산이 개항하자 객주 90여 명은 상권을 지키기 위해 순흥사(順興社), 영흥사(永興社), 창성사(昌盛社) 등 각종 상회사(商會社)를 추진하였다.

순흥사는 군산이 개항하던 해(1899) 조직되고, 영흥사는 1900년 설립된다. 1903년 창립된 창성사에는 60여명의 객주가 참여한다. 당시 <황성신문>은 군산지역 객주들의 활동으로 일본 상인들의 경제침투가 어려웠다고 보도하였다. 군산의 객주들은 을사늑약(1905) 이후 국채보상운동과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일제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째보선창은 옥구군 죽성리에 속했던 죽성포의 별칭이다. 나지막한 석산(石山) 주위로 흐르는 금강의 지류(일명 세느강)와 대밭이 성(城)처럼 마을을 감싼 모습이어서 ‘죽성리(竹城里)’ 혹은 ‘대재’라 불렸다고 전한다. 이 지역은 봄 안개 자욱한 대나무숲 풍광이 그지없이 아름다워 군산의 팔경(八景)에 들기도 하였다. 이름하여 죽성춘로. 죽성춘무로도 표기한다.

째보선창 유래도 사뭇 해학적이다. Y자로 살짝 꺾인 강안(江岸)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포구가 째보(언칭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곳에 힘센 째보가 살았는데 부둣가에서 날품팔이나 노점을 차리려면 그에게 자릿세를 상납해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째보 객주가 사는 선창이라 하여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다.



째보선창 부근에 있었던 사업체와 기관

죽성포는 1932년 10월 군산부로 편입되면서 동빈정(東濱町)이라 하였다. 군산어업조합과 수산물 위판소가 있어 동빈(東濱)으로도 불렸다. 동빈정은 광복(1945) 후 왜식 동명 변경으로 금암동(錦岩洞)이 된다. 금암동 역시 바닷물이 드나드는 간석지였으나 매립공사로 육지가 됐다. 옥구군 경장리에 속했던 이 지역은 1932년 군산부로 편입되면서 일출정(日出町)이라 하였다. 일출정은 광복 후 일출동이 됐다가 금암동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1930년대, 당시 동빈정(1~3정목)에 있었던 주요 사업체 및 기관은 군산어업조합을 비롯해 전북어업조합 판매소, 신탄시장(숯, 장작 등을 파는 시장), 전라북도 수산시험소, 임경상점(林兼商店·군산냉장고), 수호제염소(水戶製鹽所), 중도인길(中島寅吉) 선구상, 황목조선소, 전북조선철공소분공장, 정목조선철공소, 대척조선철공소, 해안순사파출소, 경마장(헌병, 경찰기마대 훈련장) 등이었다.

국가 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해안순사파출소는 군산경찰서 직할로 1914년 설립됐다. 놀라운 것은 군산보다 개항이 2년 빠른 전남 목포경찰서 해안순사파출소와 같은 해 설립됐다는 것이다. 헌병과 경찰기마대 훈련장도 동빈정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짚보선창 일대가 일제 경찰의 요시찰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째보선창은 군산지역에서 객주가 가장 많은 포구였다. 여객선 선착장이 있었고, 인근에 객주거리도 조성되었다. 선박들의 길잡이 등대도 일찌감치 설치됐다. 금강 파수꾼처럼 우뚝 서 있는 민야암(民野岩) 등대가 그것이다. 등대 점등일은 1933년 10월 1일. 이는 일제강점기 금강은 전라·충청 지역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뱃길이자 수탈의 통로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제가 설립한 수산학교도 있었다. 1915년 군산공립농림학교 부설 간이실업학교로 개교했다가 1916년 짚보선창 부근으로 옮기면서 '군산 간이수산학교'로 정식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교실, 기숙사 등을 갖췄다. 교사는 단층 목조건물이었고, 소형 실습선도 3척 있었다. 교과 과목은 일본어, 조선어, 산술, 수신(修身), 그물 짜기, 기관 설비, 항해 등이었다. 조선인 학생도 다녔던 수산학교는 1923년 폐교된다.

째보선창, 1920년대 중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

어민들의 애환이 깃든 짚보선창은 매립된 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음에도 관광객과 문학도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소설을 비롯해 논문, 수필, 기행문, 수상록 등에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도 근대식 포구의 기본 시설인 물양장(物揚場)과 간만의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잔교설치 등의 공식기록은 대할 수 없었다.

궁금했던 기자는 짚보선창 부근 갯벌 매축과 부두 시설물 설치시기 등을 확인하는데 단서가 되어줄 옛날신문 기사와 행정문서, 흑백사진, 지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중 죽성포가 표기된 지도(1898)와 동해안(째보선창) 매축공사 관련 신문기사(1926), 잔교 가설공사 서류(1929) 등을 소개한다.

1926년 11월 10일. 이날 군산 부청(府廳)에서는 일본인 부윤(府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전북수산인회 토목출장소장, 군산상업회의소 회두 등.

주요 의제는 군산 어항설치문제였다. 이어 12일 오후에는 부청 회의실에서 군산부 협의회원 최종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정 15년도(1926) 추가경정예산건을 이의 없이 가결하고, 차기 협의회에 인계할 주요과제 11건을 토의하였다.

토의 내용은 군산-제주도 직항로 개시, 군산 전기(電氣) 부영(府營) 실현, 제2기 하수구와 도로 개수, 조선인 공동묘지 확장, 전북-충남 도선(渡船) 잔교 신설 및 객선 대형화 추진, 군산공원 월명산까지 확장, 신사(神社) 이전, 어항(漁港) 설비 실현 촉진, 군산개항 30주년 기념 공진회(共進會) 개최, 상수도 확장, 동해안 매축 상업회의소와 공동시행 등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동해안 매축공사 시작을 알리는 보도가 뒤따른다.

“군산 향만 수축에 반(伴)하여 동해안에 약 3천 평을 매축하고 신탄시장(薪炭市場)급 염건어(鹽乾魚) 공장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군산부와 군산상업회의소와 타협한 결과 부급의소(府及議所)에서 공동 경영하기로 출원중이라 하며 우(右) 사업이 실현되는 때에는 상업회의소에서는 약 3만 원의 재원을 득케 되어 차(此) 군산향 30주년 기념 공진회 개최시 비용 일부에 충용(充用)하리라 하며 공사는 명년(1927) 9, 10월 출곡왕성기(出穀旺盛期)에 완성됨을 따라 미곡(米穀) 적재하기에도 다대한 편의를 여(與)하리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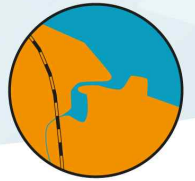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1926년 11월 24일 치 <동아일보> 기사이다. 기사에 나타나듯 당시 군산부는 조선총독부 재가를 받아 동해안(짜보선창) 갯벌 3000평을 매축하고 강기슭에 콘크리트 축조물과 잔교를 설치하는 등 근대식 부두 조성작업에 착수한다.

1933년에는 운영권을 일본인이 거머쥔 군산어업조합(조합장 군산 부윤)이 출범한다. 그리고 일제는 짜보선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선 객주들의 해산물 위탁 판매권을 통제한다. 일찍이 설립됐던 객주조합도 문옥조합(問屋組合)으로 바뀐다. 따라서 1930년대 군산에는 곡물 문옥조합과 해물 문옥조합이 존재하였다. 이 모두가 조선 어민들의 어업권과 객주들 상권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함이었다.

경술국치(1910) 이후 일제는 지금의 해망동에 서부어시장을, 금암동에 동부어시장을 개설한다. 당시 해망동은 군산의 중심지로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고, 금암동은 외곽지역이었다. 그런데도 서부어시장 거래 규모가 동부어시장보다 현저히 작았다. 이는 개량된 선박과 근대화된 어구를 갖춘 일본 어민 대부분이 동부어시장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 자료(조선총독부)에 따르면 1918년 서부어시장, 1923년 동부어시장이 들어선다. 그리고 1928년에는 동해안(짜보선창)~항만, 항만~도선장까지 수면매립 공사가 완공된다. 이어 1929년 동해안에 잔교(길이 49m, 폭 4m)가 설치되면서 어항으로서 제반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된다. 짜보선창은 이처럼 일제의 필요에 의해 일제의 주도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짜보선창’이란 지명은 동부어시장이 건립되는 1923년에서 매축공사가 끝나고 포구에 근대식 어항 시설이 갖춰지는 1929년 사이, 즉 192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설 <탁류> 주인공 정주사가 강 건너 용댕이(서천)에서 식솔들을 데리고 짜보선창 부두에 첫발을 내디딘 시기도 그때쯤이어서 흥미를 더한다. (계속)



[표 79] 꾀보선창생선도독을'갈매기'라부른까닭은
사진과기록으로보는군산꾀보선창100년(3)

유형	제목	날짜	보도매체명
신문기사	꾀보선창생선도독을'갈매기'라부른까 닭은사진과기록으로보는군산꾀보선창 100년(3)	2017-10-01	매거진군산

기사 전문

“선창은 분주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를 웅긋중긋 떠받고 물이 안보이게 선창가로 뽀뽀이 들이밀렸다. 칠산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온 젓조기가 한창이다. 은빛인 듯 싱싱하게 번쩍이는 준치도 푼다. 배마다 셈 세는 소리가 아니면 닻 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

강안(江岸)으로 뺀친 찾길에서는 꾀지 빠진 참새같이 방정맞게 생긴 기관차가 경망스럽게 달려다니면서, 뽀뽀 성급한 소리를 지른다. 그럴라치면 멀찍이 강심에서는 커다랗게 드러누운 기선이, 가끔가다가 우웅 하고 내송스럽게 대답을 한다. 준설선이 저보다도 큰 크레인을 무겁게 들먹거리면서 시커먼 개흙을 파 올린다. 마도로스의 정취는 없어도 항구는 분주하다.”

군산을 배경으로 1930년대 식민지 사회상을 날카롭게 풍자한 채만식 소설 <탁류>의 앞부분이다. 해마다 5월 초순이면 조기 파시가 섰던 꾀보선창 풍경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는 대목과 "준설선이 저보다도 큰 크레인을 무겁게 들먹거리면서 시커먼 개흙을 퍼 올린다."는 대목은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놀라운 것은 50~60년대 선창 분위기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이다.

출어했던 배들이 만선을 알리는 오색기를 펄럭이며 들어오는 날이면 꾀보선창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선주와 어부 가족들, 만선을 축하해주러 나온 친구들 그리고 벗집으로 조기를 엮는 아낙들, 짐꾼들, 구경꾼들, 행상들까지 모여들었다. 아랫녘(전남) 사투리와 충청도 사투리가 뒤섞인 아낙들의 걸쭉한 수다는 어부들이 배에서 내지르는 고탄소리와 어우러지면서 흥을 돋우는 추임새가 되어 주었다.

"뱃사람들은 원래 목소리가 커요. 왜냐. 바다(바다)에서 일을 할라 큰 소리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서 클 수밖에 없죠. 꾀보선창 파출소 뒤에 대폿집이 많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뱃놈들이 술 마시고 있구나!' 하고는 들어와서 얼큰하게 걸치고 갔죠. 그래서 '뱃사람에게 술 얻어 마시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내려오죠. 그만큼 선창이 풍성풍성 잘 돌아갔다는 얘깁니다. '뱃놈이 버는 돈은 자식 먹이기도 아깝다.'는 말이 있듯 어부들 생활은 모질었지만, 인정은 많았죠."- (임성식 전 군산시수협조합장)

고깃배 대부분이 무동력선이던 시절, 입하(立夏)를 앞두고 꾀보선창에 나가면 조기가 지천이었다. 이때가 되면 소금배, 상고선, 화목선(장작배) 등도 바쁘게 드나들었다. 고깃배가 들어오는 조기를 전후해서는 어부들 씹씹이도 푼푼했다. 철도와 어판장 주변에 설치된 건조대에 줄줄이 매달려 파시를 노래하는 오통통한 굴비들은 풍요 그 자체였다. '꾀보선창에 가면 강아지도 1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도 이때 나왔다.

부둣가는 인심도 후했다. 선주나 중매인들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나 구경나온 동네 이웃에게 "금방 잡아 온 것인데 물(선도) 좋을 때 맛이나

보라고!"라면서 팔뚝만 한 황금빛 조기 몇 마리를 포대에 담아주는 게 인사였다. 어부들이 잡아 온 조기는 어판장 바닥에 무더기로 쌓아놓거나 대광주리에 담아 경매했다. 그러한 방식은 어상자가 등장하는 1970년대 초까지 이뤄졌다. 경매가 끝나면 중매인과 대매인(중매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구매하는 중간상) 등을 통해 기차나 트럭, 생선 장수 아낙들의 다라이(함지박)로 옮겨져 각지로 팔려나갔다. 생선과 소금을 짐자전거에 싣고 농촌을 찾아다니며 곡식과 맞바꾸는 물물거래 방식을 병행하는 행상도 많았다.

모두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군산에는 '째보선창 갈매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부둣가에서 '생선 도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밑바닥 인생들이었다. 그들은 어판장 바닥에 쌓아놓은 생선 무더기 주위를 맴돌며 눈치를 살피다가 경비가 눈을 돌리는 사이 재빨리 다가가 허리춤에 감추고 있던 갈고리로 생선 몇 마리를 게 눈 감추듯 찍어 달아났다.

지역 사투리를 섞어 '갈마구 행님들'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별명은 선주(船主)들이 지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어부들이 험한 파도와 싸우며 잡아 온 생선을 훔쳤다고 하지만, 생계형 좀도둑에게 '도둑'이란 딱지를 붙이기에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망망대해에서 작업하는 어부들에게 친구도 되어주고 '어군탐지기' 역할도 해줬던 갈매기에 빗대 불러서다. 안타까운 별명이긴 하지만 풍자와 해학, 여유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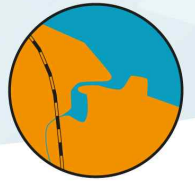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충청·전라 경계를 이루며 흐르는 금강(錦江)은 지역 문물이 왕래하면서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낸 시대의 젓줄이었다. 출퇴근길이자 학업의 길이기도 하였다. 충남 부여, 논산, 강경, 한산, 화양, 서천, 대천 등지 학생들이 군산으로 유학을 왔다. 도선장(군산-장항)은 직장인과 통학생으로 매일 붐볐고, 주말이나 방학 시즌이면 군산~강경, 군산~화양 여객선 승객의 절반 이상이 학생이었던 것에서 잘 나타난다.

충청도는 물론 전북 서해안 도서(島嶼)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선착장도 째보선창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여인숙 골목도 진즉 생겨났다. 여인숙은 해안파출소와 신영동 구시장 부근에 많았다. 재미있는 것은 고군산여인숙, 한산여인숙, 충남여인숙, 강경여인숙, 선유도여인숙 등 지명이 들어간 간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하숙을 하거나 자취하는 학생도 째보선창과 가까운 중동, 금암동 등에 많이 살았다.

조정래의 <아리랑> 고은의 <만인보>에도 등장

째보선창은 망둥이낚시로도 이름이 높았다. 수심이 꽤 깊어 농어, 민어 등 고급어종도 잡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정이 달라진다. 기록에 따르면 1975년 당시 째보선창 부근 공장들은 유독성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아무런 공해측정 기구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눈으로 보고 다니며 공해 여부를 조사할 뿐이었다. 째보선창 매립은 종합어시장 신축과 산업도로(해망로) 확장공사가 원인이었으나 강물 오염도 한몫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군산시 수협은 올부터 79년까지 총사업비 4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시내 금암동에 있는 서부위판장의 판매장과 접안장을 확장하는 등 대단위 종합어시장을 세울 계획이다. 군산시 수협조합(전 군산어업조합)에 의하면 군산시가 준공예정인 속칭



'짜보선창' 매립지 1천 500평을 2억 2천만 원에 매입, 이곳에 2억 1천여만 원을 들여 500평의 위판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1978년 12월 5일 치 <매일경제> 위에서 말하듯 짜보선창은 1978년 매립된다. 군산시수협조합 위판장 부지를 제외한 매립지가 지금의 공용주차장이다. 복개 전에는 소설 <탁류> 기념 빗돌이 세워진 곳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기념 빗돌 옆에는 다리(금암교)가 있었다. <탁류> 주인공 정주사가 용댕이(장항)에서 똑딱선을 타고 군산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자 신세를 한탄하며 자살을 생각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조정래의 <아리랑>에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보름이가 서무룡의 도움으로 떡장수를 하는 곳으로 나온다.

"역시 떡장사는 짜보선창이 가장 잘된다는 것이었다. "자리야 걱정 말고 아무 때고 나오라등마." 손판석이 보름이와 부안댁에게 전해 준 서무룡의 말이였다. 보름이가 떡함지를 이고 나가는 날 서무룡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그의 부하 둘이 보름이를 맞이해서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길목이라는 것을 보름이는 나중에야 알았다. 주먹패들은 보름이한테서는 자릿세를 받아가지 않았다."-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서

짜보선창은 고은 시인의 대하시집 <만인보>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쌍욕을 육자배기처럼 질펀하게 내뿜는 '짜보선창 주모(酒母)'와 뱅어잡이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짜보선창 천씨' 실컷 얻어맞고도 낄낄 웃는 '짜보선창 갑술이' 등이다. 실제로 1·4후퇴 때(1951년 1월) 중학교 4학년이던 고은이 아버지를 따라 돛이 둘 달린 목선을 빌려 타고 피난길에 올랐던 곳이 짜보선창이었다.

"나는 자드락종이 한 다발과 옥편(玉篇) 그리고 지리부도와 이태준의 <문장독본>과 잉크와 철필을 챙겨 집 속에 꾸러 넣었다. 화가가 되리라는 내 꿈은 이런 전란으로 사라져갔다. 그대신 시인이 될 꿈이 더 크게 익어간 것이다. 아침나절에 군산 내항의 어선 부두인 짜보선창에 도착했다. 돛대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나는 '임립(林立)'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일중선(안강망) 쌍돛대, 세 돛대의 배들이 거의 항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4백 평 정도의 선창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고은 시인의 <나의山河 나의 삶>에서

광복 후 짜보선창은 군산어업조합(동부어판장)을 비롯해 해안파출소, 장작 거리, 여인숙 골목 등을 끼고 있었다. 선구점, 철공소, 용접소, 젓당고 등이 즐비했다. 쌀장수, 물장수, 떡장수, 팔죽장수, 모주 장수 등 노점상들이 길목 대부분을 차지해 조금 때는 장속을 이뤘다. 선창가 열두냥짜리 인생들인 지계꾼과 구루마꾼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아낙이 가득 퍼주는 팔죽 한 그릇 아니면 새콤달콤한 모주 한 대접으로 허기를 달랬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쇠머리찰떡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맛이 좋았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하는 검정콩이 곁을 따라 줄줄이 박혀 있어 '기름 바른 콩떡'으로도 불리었다. 떡을 마름모꼴 모양으로 찢어 떡판에 쌓아놓으면 반짝반짝 빛나서 침을 꿀꺽 넘어가게 했다. 재료가 찹쌀이어서 식감이 쫄깃하고 입안에 착착 감겨 가장 인기 좋은 먹을거리로 대우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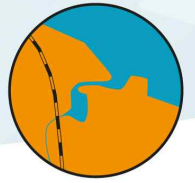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선창에 가면 철공소가 많았고, 부근에는 용접소도 있었다. 용접소에서 사용하는 암모니아 가스찌꺼기는 아이들 놀이의 재료가 되었다. 가스통에 남은 찌꺼기(가스)를 길가에 버리면 가져다 가스불놀이를 했다. 비오는 날 진흙을 모아 무덤처럼 만들어 그 속에 넣고 구멍을 내면 활화산의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 게

.....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또 그곳에 성냥불을 가까이 하면 불꽃이 솟았는데
신기해서 탄성을 지르곤 하였다.

죽성포, 어제와 오늘

위는 군산 개항(1899) 1년 전, 당시 옥구 감리가 그린 지금의 원도심권 지도이다.
왼쪽 하단 산(石山) 표시와 초가 다섯 채가 그려진 촌락(동그라미 표시)이
죽성포구이다. 조선 시대 편찬된 <옥구군지>에서도 죽성포구와 대밭이 발견된다.
그 대밭이 성(城)처럼 마을을 감싼 모습이어서 '죽성리(竹城里)' 혹은 '대재'라
했다고 전한다.

촌락 왼쪽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류가 일명 세느강이다. 세느강을 거슬러 조금
올라가면 철교(내향선)를 만난다. 이곳 역시 오래전 메워졌지만



5. 사람

5.1 꾀보선창 인물

- 꾀보선창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며 지내온 사람들의 이야기

[표 80] 인터뷰 대상자 목록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조종안	기자	기자_조종안.wav
송정록	개야도 수산	개야도수산_송정록.wav
이순심	선술집	선술집_이순심.wav
이태용	한일어구	한일어구_이태용.wav
이규봉	대동죽재	대동죽재_이규봉.wav
조규철	진우슈퍼	진우슈퍼_조규철.wav
이분례	중동집	중동집_이분례.wav
이영자	만흥집	만흥집_이영자.wav

[표 81] 조종안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조종안	기자	기자_조종안.wav
인터뷰 전문		

1)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 취재부장, 대기자, 논설위원, 편집위원 등을 거쳐 2007년 11월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3권): <군산 야구 100년사>(2014), <군산 헤어화 100년>(2018), <금강, 그 물길 따라 100년>(2018)

향토사: <디지털군산문화대전>(2012) 군산의 철도, 언론, 의료, 체육, 문화, 예술, 민속, 현대사, 인물 등 102항목 집필했다.

2)짜보선창 기획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군산 관련 기획기사들을 보니 군산에 대해 남다른 애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짜보선창 기획기사를 기획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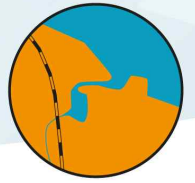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짜보선창이 언제 매립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됐는지 그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때(50~60년대) 어머니가 짜보선창에서 쌀가게 하셨다. 그래서 1978년경 매립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해야 기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짜보선창은 옥구군 죽성리에 속했던 죽성포의 별칭이다. 나지막한 석산(石山) 주위로 흐르는 금강의 지류(일명 세느강)와 대밭이 성(城)처럼 마을을 감싼 모습이어서 '죽성리(竹城里)' 혹은 '대재'라 불렸다 전한다. 이 지역은 봄 안개 자욱한 대나무숲 풍광이 그지없이 아름다워 '군산 팔경'에 들기도 하였다.

짜보선창 유래도 사뭇 해학적이다. Y자로 살짝 꺾인 강안(江岸)에 석축을 쌓아 조성한 포구가 짜보(언칭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곳에 힘센 짜보가 살았는데 부둣가에서 날품팔이나 노점을 차리려면 그에게 자릿세를 상납해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짜보 객주가 사는 선창이라 하여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다.

3)짜보선창을 취재하시면서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듣고 싶습니다.

짜보선창 매립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 시청에 갔다가 허탕치고 발길 돌렸을 때가 생각난다. 취재에 몰입해서 그런지, 특별한 에피소드는 떠오르지 않는다. 대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기사를 쓴 것에 보람을 느낀다.



◆ 1969년 가을 20톤급 목선으로 동지나(동중국해) 어장을 개척, 우리나라 어업정책을 바꿔놓은 주인공도 꾀보선창 어부들이었다.

◆ 1930년대, 당시 동빈정에 있었던 주요 기관 및 사업체는 군산어업조합, 전북어업조합판매소, 신탄시장(장작시장), 전라북도 수산시험소, 임경상점 군산냉장고(제빙공장), 수호제염소(소금 제조공장), 중도인길 선구상, 황목조선소, 전북조선철공소분공장, 정목조선철공소, 대척조선철공소, 해안순사파출소(1914년 설립), 경마장 등이었다. 꾀보선창에는 여객선 선착장과 일본인 선주들이 사는 부자촌(골목)도 있었다.

◆ 꾀보선창에는 여객선 선착장이 있었고, 어부들의 길잡이인 등대도 일찌감치 설치됐다. 지금도 금강 파수꾼처럼 우뚝 서 있는 민야암 등대가 그것이다. 등대 점등일은 1933년 10월 1일. 이는 일제강점기 금강은 전라·충청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뱃길이자 수탈의 통로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일제가 설립한 수산학교도 있었다. 1915년 군산공립농림학교 부설 간이실업학교로 개교했다가 1916년 꾀보선창 부근으로 옮기면서 '군산간이수산학교'로 정식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교실, 기숙사 등을 갖췄다. 교사는 단층 목조건물이었고, 소형 실습선도 3척 있었다고 전한다. 교과 과목은 일본어, 조선어, 산술, 수신(修身), 그물짜기, 기관설비, 항해 등이었다. 조선인 학생도 다녔던 수산학교는 1920년대 중후반 폐교된다.

◆ 특히 꾀보선창이란 지명은 동부어시장이 건립되는 1923년에서 매축공사 끝나고 포구에 근대식 여항 시설이 갖춰지는 1929년 사이, 즉 192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설 <탁류> 주인공 정주사가 강 건너 용댕이(서천)에서 식솔들을 데리고 꾀보선창 부두에 첫발을 내디딘 시기도 그때쯤이어서 흥미를 더한다.

4) 꾀보선창을 취재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추가적으로 취득하고 싶으신 자료나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1930년대 꾀보선창은 군산 지역에서 객주가 가장 많은 포구로 발돋움 한다. 군산 객주들은 주로 꾀보선창에서 가까운 조선인 거리(지금의 개복동, 영동, 중앙로2가, 장재동, 죽성동, 신영동 등)에 점포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차역 부근과 일본인 거리(본정, 명치정, 빈정 등)에 주소를 둔 업소도 종종 눈에 띄었다.

1908년 전군도로가 완공되고 1912년 군산선(이리-군산)이 개통된다. 이어 선창으로 흘러드는 셋강(현 세느강) 중심으로 객주 거리도 조성된다. 물류 유통이 '해상운송'에서 기차와 자동차를 병행하는 '육상운송'으로 쏠리면서 객주들 활동 거점도 다양해진다. 포구 중심으로 활동하던 객주들이 기차역, 버스터미널, 대로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제강점기(1920~1940) 신문 기사와 광고에서 만난 군산의 객주는 60여 명으로

예상보다 많이 만났다. 신흥호(信興號), 영창호(永昌號), 덕창호(德昌號) 등의 상호와 취급 품목까지 친절히 안내하고 있었다. 명함과 간판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여서 그런지 아니면 광고료 부담 때문인지 대부분 객주가 자기 이름만 소개하였다.

천일상회, 동일상회, 보성상회 등 '상회(商會)'를 사용하는 객주도 많았다. 해산물, 곡물, 어염(魚鹽) 등 취급 품목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자신을 무역상(貿易商)으로 소개하는 객주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들의 자료가 부족하여 더는 깊이 들어갈 수 없었다. 하루빨리 그들의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5)세느강(셋강) 관련 기사도 작성하셨는데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서 취재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짜보선창 기획기사처럼 연재가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대로 세느강 관련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자료를 찾고 있다. 그동안 정리한 기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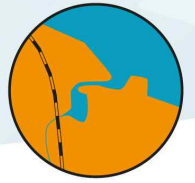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군산은 금강, 만경강 하구에 위치해서 지류(하천) 또한 많았다. 대표적인 하천으로 경포천, 탑천, 미제천, 둔덕천 등을 꼽는다. 그중 탑천, 미제천은 만경강 수계, 둔덕천과 경포천은 금강 수계에 속한다. 짜보선창(죽성포구)으로 유입되는 셋강(일명 세느강)은 큰 물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름이 없었다.

돼지국밥집 13곳, 보신원 한 곳, 그릇 가게 한 곳이 영업 중인 세느강변(돼지국밥집 골목)은 본래 약단지(약탕관)에서 대형 김치독까지 다양한 모양의 옹기그릇을 무더기로 펼쳐놓은 '옹기전'이었다. 그런데 국수와 막걸리를 곁들여 내놓는 순댓국밥집이 하나씩 들어서고 맛이 좋기로 소문나면서 외지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호칭도 초창기에는 '옹기전'으로 불리다가 한국전쟁 후 '옹기전 골목', 셋강 복개(1978) 후 '순댓국밥집 골목', '돼지국밥집 골목', '세느강변' 등으로 변해왔다.

옹기전에서 매매되는 그릇 대부분은 군산 지역 특히 나포에 있는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외지에서 배를 이용해 들어온 옹기도 있었다고 한다. 옹기전 역사는 10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개성에서 손꼽히는 부호 아들이었던 홍종식 씨가 1913년경 군산에 정착 이곳에 만동토점(옹기점)을 열어 재미를 봤다는 보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셋강은 옹기전과 공설시장 사이로 흘렀다. 발원지는 옛 지도에 구 옥구군청 자리에 있던 방죽과 팔마산으로 나타난다. 두 곳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신영동 부근에서 만나 금강으로 유입되었다. 1978년 복개공사로 셋강이 사라지자 아련한 추억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프랑스 세느강'에 빗대, '세느강변'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옹기전 국밥집에서 파는 국밥도 처음에는 '순대국밥(선짓국)'이었다. 요즘의 순대는 돼지 창자에 고기불이, 두부, 숙주나물, 선지, 버섯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그러나 예전에는 창자에 선지(돼지 피)만 넣고 양쪽 끝을 동여맨 뒤 찢찢 끓는 가마솥에 삶아냈다. 따라서 옹기전 국밥집 순대는 선지가 듬뿍 들어가 진득하니 입에 번지는 맛이 일품이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호칭에서도 음식 메뉴의 변화가 느껴진다. 식생활 문화가 발달하고,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순대 인기가 높아지자 선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것. 선지가 귀해지자 국밥집 주인들이 순대국밥 재료를 머리 고기와 내장으로 바꾸기 시작하였고, 메뉴도 자연스럽게 돼지국밥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세느강변'이란 애칭이 따라다니는 순댓국밥집 골목은 보릿고개 시절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순댓국을 안주로 주전자 막걸리를 마시던 옛 추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옛 향수를 느껴보려는 단골손님은 물론 최근에는 색다른 맛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6)광복 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해망동 쪽에 집단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시기에 꾀보선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950년대 꾀보선창은 한국전쟁 직후임에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출어했던 배들이 만선을 알리는 오색기를 펄럭이며 들어오는 날이면 잔칫집 마당처럼 흥이 넘쳤다. 선주와 어부 가족들, 만선을 축하해주러 나온 친구들 그리고 벗짚으로 조기를 엮는 아낙들, 짐꾼들, 구경꾼들, 행상들까지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고깃배가 들어오는 조금(매월 음력 8일, 23일)을 전후해서는 어부들 씹씹이도 푹푹했다. 철도와 어판장 주변에 설치된 건조대에 줄줄이 매달려 파시를 노래하는 오통통한 굴비들은 풍요 그 자체였다. '꾀보선창에 가면 강아지도 1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도 이때 나왔다.

"선창은 분주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를 옹긋중긋 떠받고 물이 안보이게 선창가로 뽀뽀이 들이밀렸다. 칠산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온 젓조기가 한창이다. 은빛인 듯 싱싱하게 번쩍이는 준치도 푹다. 배마다 썸 세는 소리가 아니면 닻 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

1930년대를 풍자한 채만식 소설 <탁류>의 앞부분이다. 해마다 입하(5월 6일경) 때 조기 파시가 섰던 꾀보선창 풍경을 그리고 있다. "칠산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온 젓조기가 한창이다"는 대목과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는 대목은 50~60년대 선창 분위기와 너무도 흡사해 실제 현장을 보는 듯해서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선창가는 인심도 후했다. 선주나 중매인들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나 구경나온 동네 이웃에게 "금방 잡아 온 것인데 물(선도) 좋을 때 맞이나 보라고!"라면서 팔뚝만 한 황금빛 조기 몇 마리를 포대에 담아주는 게 인사였다.

째보선창은 진즉 복개되어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그 옛날 선창가 막일꾼들과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진다. 째보선창은 수백, 수천의 아낙들이 만선의 꿈을 품고 바다로 나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비련의 공간'이기도 했다.

7)70년대에는 군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들어선 공장들로 인한 환경오염이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째보선창 부근에도 대기와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거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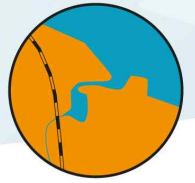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50~70년대 금강하구 주변에는 고려제지, 한국주정(우풍화학), 풍국제지, 화력발전소, 신흥목재(대교합판) 한국합판 등 대규모 공장들이 자리하였다. 수질오염이 심각했으나 당국은 외면하였다. 언론들이 '어족이 멸망 직전'이라고 보도를 통해 경고했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음에도 공장들은 간장 빛깔의 폐수를 계속 방류하였다. 결국 폐수 방류 30여년 만에 어족의 씨가 말랐다. 가장 대표로 꼽는 생선이 뱅어였다.

8)째보선창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째보선창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째보선창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뭔가를 누구에게 알리려고 하기에 앞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인이 애착을 가지고 바라볼 때 외지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다. 그렇게 되려면 숨겨진 콘텐츠를 발굴, 보존하는 작업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9)사람들에게 째보선창을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는 군산시가 노력하고 있고, 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10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다.

1934년 6월 군산의 고깃배 수백 척이 만선의 꿈을 안고 연평도로 조기잡이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어부 1천여 명이 희생되는(익사 및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주는 일본인이었고, 어부는 대부분 조선인이었음) 그럼에도 피해 어부들이 보상 받았다는 기록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다. 피해자가 세월호보다 더 많았던 미증유의 해상조난 사고였다.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어민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지내고, 적당한 자리에 자그만 추모 빛돌이라도 세웠으면 한다.



[표 82] 송정록(개야도수산)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송정록(71세)	개야도 수산	개야도수산_송정록.wav
주요내용		

우리 아버님도 안강망 사업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여기를 가끔 왔었는데
 신영시장 뒤에가 뜰이 있었고, 석탄, 차로 석탄같은것도 실어나르고 대장간
 같은것도 있었고
 공설시장 그 근처로 뜰이 있었어 그 물이 여러 다 나오는거야

그전에는 철공소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많았어
 그때는 배가 판판하지 않고 기울게 생겼었어

개야도에서 배타고 자주 나오지는 않았고, 어릴 때 아버지가 철공장에 취업시키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배를 한 척 사 주셨어. 그거 가지고 살면서 돈 벌어서
 동생들 가르치고 그랬어
 내가 배 탈때는 이쪽으로 오지는 않았고

짜보선창 가게로는 86년도인가 그랬겠네
 처음엔 저기 선창 저기께 있었네.

두 번 이설했어, 질대 저것이 건물에 닿을까 말까 했었어
 집앞에 턱이 있어서 시멘트 사다가 바르고 했어

뿔이 쌓인거여, 등대 있는데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다 메꿔졌잖아
 1호여 1호. 등대가 등대마다 번호가 있어, 해도같은거 보면 다 나와

현 혁신선외기 자리에 수협금융과 있었고 파출소 있었고

뒤 철길 없어진지는 얼마 안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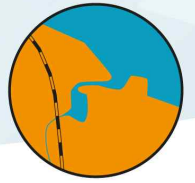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메꿔지고는 원목만 들어왔었어
 원목 떼내려가는거 잡으러 다녔어, 장항으로 출퇴근도 시켜주고
 그때만해도 조기도 퇴근할때 몇 마리씩 잡아오고 그랬어

[표 84] 이태용(한일어구)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	----	------------

짜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이태용(78)	한일어구	한일어구_이태용.wav
주요내용		
<p>고향같아요, 52년 살았는데 여기 나가면 우리가 터줏대감 같아요, 나이값을 하려면 동네가 돌아다닐만하구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떠나야는데 걱정이 됩니다.</p> <p>68년도에 답사를 하고, 가게를 70년에 오픈했죠 회사에서 군산을 개척해보자 해서 부산 해성어망 군산 영업소장으로 왔어요. 목포보다도 컸었고, 여수랑 대등할 정도로 컸어요</p> <p>출장다니면서 여기서 괜찮다 싶었고, 회사에서도 나가라 했고 어부들 의견을 듣고 제품 개발을 해서 회사도 좋고 어부들도 좋고 이렇게 했죠</p> <p>주로 비행장 있는데는 조개, 섬에는 대하랑 꽃게, 전어 작은 배들은 낭장망이라고 했어요 지금 배 조합은 대천으로 갔어요</p> <p>150척 적도 배가 대고 2중 3중으로 배를 댔어요, 안강망이 그랬을 적에는 여기가 정말 부자였었어요</p> <p>한번 고기 찢다 하면 1억 5천, 2억, 3억 하니까 금방 배 또 사고 집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구가 그렇게 줄었다. 군산인구가 33만이였었어요, 국회의원 둘.</p> <p>75년도부터 리어카로 배달을 했었어요. 짐빠라고 큰 리어카로 먼저 온 배가 다리 옆으로 바짝 붙으면 차가 뚫대 밑으로 차가 지나가고 그랬었어요</p> <p>막내를 업고 시장갈때 철길을 건너는데 철길 밑에 물이 흘렀어 아 떨어지면 큰일난게 막내가 41살이니까, 그때는 한 30명을 두고 일을 시켰거든, 그래서 장을 많이 봤지 그물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직업보다도 돈을 많이 벌었어</p> <p>철길이 있어가꼬 길이 반듯해, 여기서 몽땅 싣고 쪽 나와서 삼거리에서 이렇게 나갔어 역사박물관 쪽에는 철로가 15줄 정도 있었어 일본에서 조기, 갈치보다도 대하 많이 가져가고 그랬어</p>		



쌀 한가마니가 4천원이기 했었는데 500가마니를 가져와도 여기서 집을 못 구했어
사람들이 기차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신경쓸 겨를도 없고

물이 더러워~ 물이 시커먼게 더 바다 안 갈애 부산서 살다 옹게
몰래 버리고 그래서

민야암 등대가 없으면 장항제련소 굴뚝에 박아버려~
월명산에 박아버리고
신영시장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공설시장이 재래시장이었어
메꿔놓고 하니까 깨끗하고 좋고

형제상회 쌀집에서 리어카로 끌고가다가 길이 안 좋고 사람도 많은데 안
비켜주니까 리어카를 갖다가 물에 빠뜨리고 그랬는데도 길도 안 고쳐주고
그랬었지

서산이고 대천이고 사람들이 선주들이 와서 술한잔씩 하고 자고 우리는 물건
해줄라면 일을 하는거여
새벽 2시 3시 되면 장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 그렇게 고생을 했지
옆집 돌아볼 새가 없이 바빴지

소금집이 제일 크고 부자고 대장이고
몽땅 있어야 배에 몽땅 뿌리고

그다음 모래, 벽돌

4개 동사무소가 하나되고
파출소 3개가 어디로 가고 없고
그 시절에는 워낙 잘 되고 하니까 도둑놈도 많고 하니까 파출소 3개가 바빴어
낙후되고 하니까 철거 한거죠

[표 85] 이규봉(대동죽재)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이규봉(69)	대동죽재	대동죽재_이규봉.wav
주요내용		

이곳으로 이사온지 계산해 보니까 한 51 년 정도 됩니다.

그때 18살 때, 뭐 이사왔다기보다도 저쪽으로 왔었어요 여기 근방에서 왔다 갔다 했다 세 얻어 살다가 이 집을 지었죠

Q)여기 지명이 죽성인데 대나무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대나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계기라 하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고향이 김제 만경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죽산에서 다니다가 14~5살 때 서울로 혼자 올라가 대나무 가공 기술을 배우고 18살 가을에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만경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 남았고 배운게 이것이라 군산에 내려오니 대나무 가공일 하는데가 대여섯 군데 있었어요. 대나무가 죽성동에서 나는게 아니고 이 주위에서 대나무를 가져다가 가공을 하더라고, 배에도 쓰는 거, 일상생활품 뭐 그런 거를 조금 두고 한 집에 7~8명 씩 가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조금 일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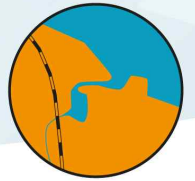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그 뒤로도 몇십년간은 아주 잘 됐었는데 어느 땐가 부터인가 플라스틱이 인자 나와가지고 밀려가지고 밀리고 밀리고 해가지고 음 제가 제일 막내였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종업원들도 일이 없으니까 이직하고 그렇죠, 나도 접은지가 한.. 대나무만 수십년간 하다보니까 쓰시던 분들이 어디서 구하기가 힘들니까 가져다 놓으쇼 하면 가져가고 돈 입금 시켜 드릴 테니 그렇게 마진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종업원들도 여럿 두고 가공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최종적으로

Q)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부심 있어봐야 뭐 돈이 되야

이거 정확히 제가 그 몇년도에 한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음 십 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년 이상?

그때 내가 왔을 때는?그 지금 그 지금 권회장님 댁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밑으로 선구점 이라고 이런 선구도 팔고 그렇게 해서 큰 가게가 있었어요. 그 오래된 집에 그게.그리고 이 지금 여기가 매립지 아닙니까 매립지 이 건너편에는 여인숙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뭐 거북장인가



음 여기도 소금 창고였어요

이게 지금 께꼬랑, 여기가 조합이구만 조합 그리고 이것이 이게 희미하게 있게 되는데 이것이 나무 삼바시라고 이렇게 그 물 빠져도 그 이렇게 배도 대고 음 짐도 싣고 삼바시라고 나무로 돼 있어요

냉동 그 얼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얼음은 여기도 그런 게 있었어요. 냉동창고, 이 정도에 있었고 이쯤 되면 이 얼음 내려가는 게 있어요 얼음은 이제 물고기 잡아 가지고 바로 올리고, 회사가 이제 얼음을 이렇게 싫어지는 그런 그. 얼음 얼음 내일 만들어놓고 그렇게 부셔 오늘부터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그 쏟아지면? 그전에는. 소금을 염장해서 가져왔는데 조금 지으니까는 이제 얼음을 채워 가지고 생물로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 권회장님 집 앞으로 물이 잔물이 들어갔죠 잔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큰 길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 우풍화학 옆길로 해서 또랑을 타고 저 구 시장까지 물이 들어갔어요 아마 지금도 물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사각형 하수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들이 역류하기도 할거예요 지금 수문이 거기에 있어요 그 저기 구시장쪽에서 내려오는.. 역류하니까 그 문을 달아가지고 맨들어놨더라고

그 내가 오니까 이것들은 창고였었어요 이 건물을 우리 지금 현재 집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건물이에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 건물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스라브 건물 내가 왔을 때도 있었어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300 평 건물이라고 그대로 지금 이 건물 있잖아요. 그. 50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는 근데 요거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이 이거는 내가 못 봤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어판장 자리거든요. 지금 저 지금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 이 창고도 이 창고도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 창고는 헐었다. 일부 헐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이것도 소금 창고였었어요 그리고 이 철로 그리고 이제 요리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녔죠 이걸 이리이리 많이 여기다 이 이 안강망 같은거 대고 유자망 같은데 많이 있었고. 여기가 여객터미널이었고 여객선터미널

.그래서 그럼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대표님 처럼 이렇게 가게 랑 주거랑 같이 있었던 것들은 거의 없고 이제 여인숙이나 주택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고 여기는 이제 창고 이런 걸 주로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여기가 예나 지금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한 오십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 주변에는 인자 우리같이 진짜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점포에다가 방하나 그냥 의지해가면서 그냥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했지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가게 놓고 뭐

아파트에서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장사하고
하다가 어디가서 뭐 평상 같은데서 자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겨울 거기다가
연탄이라 가스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근방에서 여기 선창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 양반은 여수 분이시고.또
그 옆에 식당은 보령 사람이고

보통 짜보선창이 여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심가니까 이렇게 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었는데.이게 배들을 여기다 정박해 그러다가 작은
배들은 바람불고 그러면 이리 다 돌아와서 정박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여기는
안가죠, 어? 그게 이제 큰 배들은 인제 여기다 놓고 작은 배들은 전부 다 이 바람
태풍 불편 이리 다 들어오는 경우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내가 왔을 때는 다리가
있어서 못 들어가 다리가 있어서. 그냥 그 큰 길까지 그렇지 여기 큰 길까지.

Q)물이 깨끗하진 않았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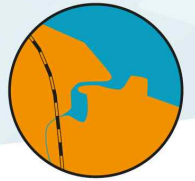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큰 화학공장이 하나 있었고, 그게 개천이었다 앞에 도로가 좁았어. 복개공사를
하고나서야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길이 크게 넓어진거지, 그게 개천이었다,
뭐 부산물 같은 거 뭐 뭐 다 버리고, 또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헐쓸려 나가고
그랬어요.

Q)여기 있었던 가게들 중에 기억나는 가게들이 있다면

선술집이 많았다. 선창쪽으로도 조금 있었고, 식당, 선술집
배 들어오면 뱃사람들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씩 하고, 파출소가 딱 찼었다
4~5년 전에는 개도 만원짜리 물고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었다.
배가 감축이 되고 뿔이 묻히고 배가 못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폐허가 되었지만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Q)배들이 대나무 제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대표님도 많이 바쁘셨을텐데

그때는 저도 종업원이 너댓명씩 있었어요, 배에서 얼음같은거 푸고 이런거
바구니로 다 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상자에 고기를 담고 그 위에 바구니로
얼음을 뿌려요, 대나무 바구니도 소모품이어서 많이 사용했지, 긴 대나무에 깃발을
달아서 어장 표시를 했어요
보름동안 배가 들어왔다 나가면 대나무가 몇백개씩 나갔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나가 배가 없으니까



그렇게 품이 박하든 후하든 먹고 살기는 했지

그때 당시에 평상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때까지는 하선을 하면 집에 가기 전에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다에서 힘들었겠지만 스트레스도 받았을 테고 그게 육지에 나오면은 한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취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그러다가보니 파출소가 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배 들어온다고 하면 부인하고 애들이 나와서 뭐 가방이나 이제 빨래감이라도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은 못 오지만 중동이나 가까운데는 나온다고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무슨 뭐 꼴랑 잘났다고 뭐야 들어갈 테니까 가라고 큰소리 빵 치면 또 짝소리 못하고 한쪽에 서있어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몽땅 먹고는 이제 파출소가고 싸움하고 동료들끼리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고 선상에서 더럽고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그 생활에 연속이고 또 나갈 때 또 준비해서 우리들은 이제 준비물 쌀도 실어야 되고 줄도 실어야 되고, 식품도 싣고, 어구도 또 망가지면 실어야 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배 들어오면 싣고 그렇게 계속 돌아갔죠

여기도 오징어잡이 했어요 그 그 나왔을 때는 안 잡았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낚시배가 여기서도 했었어요. 오징어. 그거는 안강망 하고 반대였었어요 그 배가 들어오는 이거는 어두울 때 불을 키고 잡더라구요. 오징어는 달이 환할때는 안 잡히니까 달이 어두울 때 그믐쯤 썸 되고 환하니까는 불켜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할때 고기들이 몰려들 때 그때

Q)부잔교 있던 자리, 지금 진포해양테마공원 이부분은 어땠는지요

그쪽은.그 때 나 왔을 때만 해도 거기 못 들어가게 했어요. 통제 해가지고 큰 그 몇천톤 왜 좀 큰 배들이 들어왔고 거기서 뭐 곡식이 라든가 또는 뭐 사료라든가 그런 거 그거를 일반인들은 통제했었어요
낚시 배들이 별로 못 가고 뭐 그 관세청, 항만청 관리했어요

이게 민야암 등대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지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현 시의원이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어요
뉴딜사업 건의하면서 우리가 이 등대를 살렸으면 좋겠다, 등대 주변에 벤치도 만들어놓고,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고, 이 주변도 소룡동처럼 항만청에 이야기 해가지고 주차장처럼 넓게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잘 안됐더라고요

여기가 배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여기에 큰 배가 달고 여기 그 바위 같은 있으니까 등대를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등대랑 선창 사이가 물이 깊어서 이쪽으로 배들이 다녔어요 장항쪽 보다는 군산쪽이 깊었어요
등대까지는 걸어갈 수 없었어요

Q)더 하고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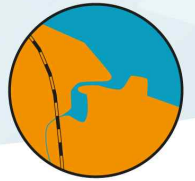
그 전에는 참 사람도 많이 했고 참 신명나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폐허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해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정이 없는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 69살 밖에 안 먹었지만 저보다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80이 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갈데가 없어요.

Q)대나무만 보고 우연히 들렀는데 굉장히 지역에 애착이 많은 분을 만난것 같습니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거면 벌써 안 했을텐데, 수십년동안 저를 애용하시던 분들이 해 주신다고 하기에 현재 보전하고 있는 것이예요, 누군가 그래요 그거 만드는거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래요, 아이고 손 놓은지가 언젠디 하기사 지금도 만들면서 만들죠. 이게 기술은 안 잊어버리는 거니까 기술은, 돈은 잊어버려지는데 기술은 안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기술을 물려주라고 그랬잖아요.

Q)요즘은 대나무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인테리어 소품이나 그런 것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동네 인근 카페나 식당같은데에 작게 판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주로 뭘 만들었냐면 또 여기 염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소금 바구니라고 있어요 소금을 담아서 끈으로 두 개 매달아서 바구니에 수북하게 담아가지고 그런 그리고 염전 바구니 라고 그러는데 그 염전바구니를 엄청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얼음바구니 만들고 또 어장에서 쓰는 멸치 건조시키는 멸치 따까리 라고 그래, 따까리 멸치 딱 삶아 가지고 따까리 건져 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그릇이거든요 그런 거 엄청 많이 만들고 또 김 양식할 때 쓰는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수공업으로 했으니까 긴 바구니 이만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김 채취해서 씻어가지고 찢어 바구니를, 바구니가 큰데도 불구하고 쪽 소금 바구니처럼 그렇게 안 찢고 갖고 좁게 찢어 적절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저 충남까지 나가고 그랬지



[표 86] 조규철(진우수퍼)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조규철(76)	진우수퍼	
주요내용		

여기가 어휴 사람사는데가 아니에요 지금, 낙후도 이렇게 낙후된데가 없어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이나 두갑 팔아요, 예전에는 차떼기 한데예요
그렇게 잘 되던데, 배도 많이 들어오고

저기 주차장 있는데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밑으로
저 끝에가면 물 문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물.
여기가 선창이고, 나룻배들이 여기에 다 대고, 여기는 중선들, 여기는
유자망이라고 사리때 들어오는 배, 안강망은 조금때 들어오는 배고

70년대에 여기 왔을 거예요, 십 오륙년 외지에 있다가 90년대에 다시 돌아왔어요
50년대에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밥 장사했고, 여기에 철길이 있어서, 해망동쪽으로도 가고
그랬었어요. 유신양복점, 파출소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있을 때는 고추밭이고
젓 담고 그런데가 여기 있었어요.
그정도뿐이 아는게 없어요

Q)복개공사는 언제 쯤 했는지 기억하세요

90년대쯤 했을 거예요
머릿고기 파는데, 구시장 옆으로, 그 앞까지 쪽~ 뜯어었는데 물이 더러웠어요
이 집에 샘이 있었어요, 우물. 아복집이 아니고 이발소였었어요
70년대 살 때, 꾀보선창이 동부선창이라고 배가 450척 여기로 들어왔어요,
해망동보다도 어판장이 더 컸어요.
배가 세줄 네줄 이렇게 대고, 내가 있을 때는 철선이 없고 나무로 된 배가
있었어요
여기 막은데는 찢어져서 꾀보선창이라고 하는데
작은배 나룻배들이 많이 댔었어요, 90년대나 80년대에 막았어요, 풀만, 하수도도
못 내요 강이라
여인숙이랑 술집들이 많았어요, 고군산 여인숙 화신여인숙 등 한 댓개 있었어요
지금 통신매장이 화신 여인숙이었어요
어판장 앞으로 술집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중동이 전부 뱃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배타고)나가면
(시내가)조용하고.

450척 이상이면 배당 열몇명씩이니까 다 합치면 만명 이상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고기냄새,

해망동은 100척도 안되고 다 이쪽에 대고, 배 델데가 없으면 강경까지 올라가서
고기 푸고, 장항가서 푸고

등대에 바위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파 묻혔어요, 내가 볼 때 1미터 50정도
메꿔진거여

예전에는 뽕을 피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거 같여

여기 사시는 양반들 다 죽었어 거즘 다 죽었어 내가 일흔 여섯살인데 내 위로는
다 죽었으니까 알기가 힘들지, 사람도 몇 사람 안 살고 아파트로 다 빠져가꼬,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 안 살고 나 혼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빈집도 많고

여기 사무실만 백여개가 넘었어요, 어업 관련 사무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돈 있어도 구할수가 없었고, 뱃사람들이 나가면 동네가
조용했어요

조금때 배가 들어오면 시끄러웠어, 차도 많이 오고

사리때는 유자망이 들어오는데 그건 몇 척 없었어

길 건너편도 우리 집인데 비어 있잖아요, 유래를 찾고자 한다면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알텐데

하루가 바쁘고 하니 전설이나 유래같은 거 누가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통장하던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많이 알았을텐데 돌아가셨어요

우물도 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망동까지 철길이 이어있었는데

해망동에 철길이 있을 거예요

국밥집 앞에 툇이, 내천이 있어가지고

오물이 내려오는 내천이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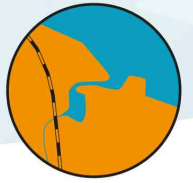
시장에서 국밥집 근처에 다리가 있었지

여기가 우풍화학이라고, OCI(동양화학) 이게 원래 여기 있었어, 여기에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거 터지면 군산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여기 공원(도시재생숲)만들었는데 거기가 거기 자리야

우풍화학 저쪽으로 플라스틱 공장이 있었어

지금 집들 많은데 여기가 공설운동장 자리였어



난장이라고 5일장, 허참이라는 사람이 그 때 한번 놀러온거를 봤어
금암동에 사람이 없어, 몇 명 안 살아서 유래를 찾기 힘들거여

지금 아침에 보면 한 예닐곱 사람 운동을 해요. 이걸 잘 만들어 냈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도 운동을 하고,

나도 귀동냥 한거는 없고 먹고살라고 하는건디
원래부터 사는 사람들 몇 명 아는디 다 죽고 없어
한일어구보단 내가 먼저 왔지 여기를

Q)여기 사시던 분들의 자녀들도 없겠네요

하나도 없어,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와서 조금씩 적어놓고 적어놓고 하면
집필하고 할 수 있겠는디 지금와서는 할 수 있겠어?

Q)사진은 있으세요?

없어. 시간도 없고 배들어오면 뭐 시간이 없어

[표 83] 이순심(선술집)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이순심(88세)	선술집	선술집_이순심.wav
주요내용		

33살에 유락식당 옆에 1년정도 장사를 하다가 여기 집을 사고 돈을 잘 벌었는데 그때만해도 고기도 많이 나고 배들이 여기 델데가 없어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병원다니느라 이제 돈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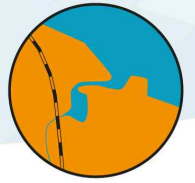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그때는 눈도 엄청 왔어, 아침에 밥좀 주소 하고 들어와서 곤로만 붙잡고 있어 어느날은 고기 푸는데 사람이 없다고 남편을 데리고 갔었는데 돈도주고 반찬도 주고 해서 다녀왔는데 막내딸 데리고 없어져버렸어, 동네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시장께 철도길로 갑디다 그랬는데 그날에 전기장판을 사가지고 왔어

그땐 간판도 없었는데 선술집이라고 그랬어
낮에는 국수장사를 많이 했어요, 김치 8백포기 담가도 모자라
국수 한 그릇에 2천원. 그렇게 김치를 많이 담가서 지금 몸이 많이 상했어

그때는 선술집이나 국수집이 더러 있었어
유락식당하고 나하고 똑같이 했어, 나는 회같은거 못하고 국밥 못하고
나는 돼지국밥 백반 국수 그런거 팔았지

요샌 배를 안대서, 뱃사람들이 안와 해망동으로 가

예전에 왔던 사람들이
국수 안하냐고, 김치 안하냐고 찾아와요
언제는 시장 갔다가 누가 손을 꼭 잡으면서 음식 맛있게 하는 손 요새 뭐하요
이러는거야
조금때 배 나가면 큰딸이랑 서울가서 츄리닝같은거 사다가 여기 작업복같은거로
팔고 그랬지



[표 87] 이분례(중동집)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이분례	중동집	중동집_이분례.wav
주요내용		

여기서 장사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40년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게가 쪽 있는게 아니라 여섯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가게들이
붙어있진 않았어요
시장입구조형물 있는 곳까지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건물을 지으면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간이 많잖아

깊었어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지금도 왔다갔다 해

뜯은 저 끝까지 있었어요, 시장 건물 끄트리까지
그 전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면 아이스박스같은거 동동 떠다니고 그랬어
물이 많이 들어와
안 문었을 땐 사람 많이 빠졌어요, 술먹고 소변보다가 빠지고 그랬어
물이 빠지면 발목정도 오는디 물 들어오면 사람 키보다 깊었어

장날이 따로 있진 않고 매일 열고 역전이 새벽시장

예전에는 배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때는 북적북적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다대기 넣지 말라면 안 넣어주고, 그렇지만
조리법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코로나땀에 낮에 조금 팔고 없어,
관광객들은 아직 없어

[표 88] 이영자(만흥집)

성명	직업	녹화(녹취) 파일명
이영자	만흥집	만흥집_이영자.wav
주요내용		

나 장가 나왔을때는 여가 풀이 있었는데 강물이 이리 오든 앉았어 또랑물이
내려갔지

후딱 말해서 하수도물이지,

나 있을 때는 화장실들이 없으게 술먹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거만 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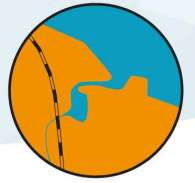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지금은 깨끗이 다 살아오고 하니까 깨끗한디

그때는 생물(돼지)이 온게 암만 깨끗이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났지,

여기 이 골목 들어오면 냄새가 났어

여자들이 (돼지)머리 오면 도끼로 다 쪼갬어

시장 끄트리에 다리가 있었어



제3장 재보선창 홍보방안

1. 가상복원 영상

1.1 시나리오

[표 89] 가상복원 시나리오




No	TIIME	THEME	Video	Rference	Caption
17	5" /1'25"	OUTRO 가치	[영상] # 과거 배틀이 몰비한 재보선창 현재 스산한 재보선창의 모습 디플브		근대 시대의 애환이 깃든 삶의 공간
18	5" /1'30"		[영상] # 배틀이 정박해있는 재보선창의 과거와 현재 디플브		해륙의 도시 군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배의 고향
19	5" /1'35"		[영상] # 근대시기 번영하던 재보선창 어시장		안개 속 같은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재보선창
20	5" /1'40"		[영상] # 위 19컷이 사진처럼 활짝 펴지며 저장되는 효과		그렇기에 더욱 또렷하게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
21	5" /1'45"		[영상] # 일제강점기, 재보선창의 '살' 수탈 폭력사건에서 # 현재 재보선창 칼라사진 디플브		그 오랜 풍경이 쓸쓸하지 않도록 뜻 깊은 문화와 예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22	10" /1'55"		[영상] # 재보선창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이라이프컷 편집 위로 강조 자막		군산은 재보선창의 역사와 현재를 이어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3	5" /2'00"		TITLE	[영상] # 타이틀	

영상 구성안






No	TIIME	THEME	Video	Reference	Caption
10	5" /1'50"	BODY2 재보선창 발전	[영상] # 군산항 개항 당시 사진 또는 영상		1899년 한국 해양교류의 역사적 중심지, 군산항 개항
11	5" /1'55"		[영상] # 당시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사진 또는 영상		1915년 한국 최초 근대수산교육기관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설립
12	5" /1'00"		[영상] # 당시 재보선창 거주를 사진 또는 영상		1923년 금강 최대 어시장 재보선창 조성
13	5" /1'05"		[영상] # 1933년 군산어업조합설립 관련 사진 또는 영상		1932년 군산부 편입, 동빈정(東濱町) 지명 변경 수산업계 및 전 산업 발달
14	5" /1'10"		[영상] # 현재 민아일등대 사진 또는 영상		1933년 선박 길잡이 '민아암 등대' 정등
15	5" /1'15"		[영상] # 재보선창 항구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쌀 포대 사진		1934년 동빈정 어시장 연간거래액 25만원 (현재가치 250억)
16	5" /1'20"		[영상] # 1920년대 군산 풍경거리 사진 http://www.sbs.com/program/1920/Walk-Vision-at-sea-04-10-11-0000011796		일제강점기 아래 번영과 상실이 공존하던 애달픈 시절

영상 구성안

재보선창가 스토리텔링 및 가상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No	TIME	THEME	Video	Reference	Caption
7	5" /35"	BODY1 재보선창 시작(개요)	[영상] # 기벌포해전 관련 이미지 # 진포해전 관련 (진포해양테마공원) 이미지		백제 최후의 전투 '기벌포해전' 고려 말 세계 최초 함포 해전 '진포해전'
8	5" /40"		[영상] # 현재 재보선창, 금강 하구 풍경		오랜 승리의 격전지, 금강 하구
9	5" /45"		[영상] # 일제강점기 당시 군산 포구의 풍경		그리고 19세기,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함께 같은 자리에 붙어 닦친 또 다른 역사의 물줄기

영상 구성안

No	TIME	THEME	Video	Reference	Caption
1	5" /05"	INTRO 도입	[영상] # 근대사를 고스란히 담은 군산 곳곳의 명소를 다들보		빛나고 애잔한 근대로의 시간여행
2	5" /10"		[영상] # 일제강점기 당시 재보선창 풍경을 다들보		그 중, 근대 개항 도시 군산의 번영을 이끈 영원의 물길
3	5" /15"		[영상] # 위 것에서 현재의 재보선창으로 다들보		과거와 현대가 맞닿아있는 추억의 항구
4	5" /20"		[영상] # 재보선창 빛길 비주얼컷		재보선창 (죽성포竹城浦)
5	5" /25"		[영상] # 1~4컷이 타임라인을 따라 시간 흐름처럼 다시 흐르며 자락 생성		포구에 남겨진 애환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와 마주하는 시간
6	5" /30"	TITLE	[영상] # 근대사를 고스란히 담은 군산 곳곳의 명소를		History of 재보선창

영상 구성안

2. 가상복원 방안

2.1 미디어별 특징과 적용 방법 제안

2.1.1 미디어 파사드

(1) 정의

-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

(2) 장점

- 건물 외부에 콘텐츠를 투영함으로써, 관람객이 시설 내부로 입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노출 가능
- 초기 설치 이후 콘텐츠만 제작하여 신규 적용 가능
- 건축물 규모와 모양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 가능

(3) 단점

-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유발
- 음향이 적용되는 콘텐츠인 경우 소음 유발
- 유지비 발생
- 주간 시인성 확보 어려움

(4) 껌보선창 적용 시설 제안



그림 1 군산콘텐츠팩토리



그림 2 민야암등대



그림 3 경기화학 사일로와 담장(트램구간)



그림 4 껌보선창 수문

2.1.2 프로젝션 매핑

(1) 정의

- 대상물의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여 대상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인 프로젝션 매핑에 상호작용 기능을 부가한 것
- 미디어 파사드와 달리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심지어 인테리어나 사물도 스크린이 될 수 있음.
- 입체화된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여 입체감을 극대화 함

(2) 장점

- 몰입감을 통한 공감 극대화
- 스토리텔링의 전달력 향상
- SNS 등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용이

(3) 단점

- 프로젝터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발생
- 관람시점에 따른 왜곡
- 주간 시인성 확보가 어려움

(4) 껌보선창 적용 시설 제안



그림 5 껌보선창 주문



그림 6 껌보스토리 1899

2.1.3 워터 스크린 프로젝션

(1) 정의

- 빔프로젝터 또는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고압분사되는 물로 만들어진 스크린에 투사하는 시스템



그림 7 워터 스크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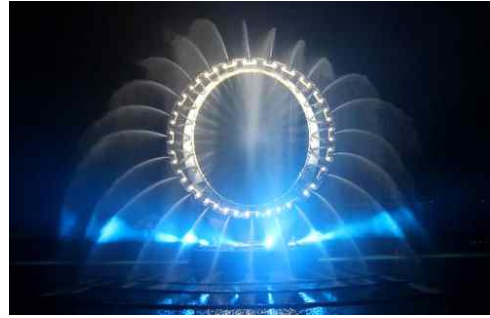


그림 8 여수빅오쇼

(2) 장점

- 최초 시설 이후 콘텐츠의 추가나 변경이 용이함
- 스크린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더 웅장한 스케일 구현 가능
- 동시 관람객 수의 제약이 적음

(3) 단점

- 조명 및 음향시설로 인한 빛 공해와 소음 유발
- 스크린 생성을 위한 시설이 추가되어 유지비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높음
- 주간 시인성 확보 어려움

(4) 재보선창 적용 시설 제안

- 민야암 등대 주변에 스크린 시설을 하고 프로젝션매핑 등 복합적인 미디어 구현으로 더욱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9 민야암등대

2.1.4 가상현실, 증강현실

(1) 정의

- 가상현실 : Virtual Reality, VR.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
- 증강현실 : 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2) 장점

- VR의 경우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 제공 가능
- AR의 경우 실사를 바탕으로 가상의 사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시설이나 지형에서 활용했을 때 효과가 두드러짐

(3) 단점

- 초기 개발비용 및 유지비용
- VR의 경우 VR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VR장비 성능에 따른 편차 발생
- AR의 경우 현장에 직접 가야하는 불편함이 존재

(4) 꾀보선창 적용 시설 제안

- 꾀보스토리 1899 내부에 VR체험시설 설치
- 기존 앱 활용(AR로 보는 군산근대문화유산, 한국역사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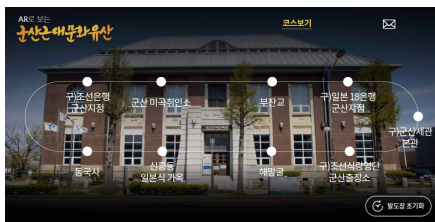


그림 10 기존앱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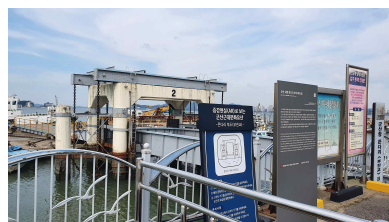


그림 11 부잔교



그림 12 기존앱 AR실행 화면캡처



그림 13 꾀보스토리 1899

2.1.5 루미스톤

(1) 정의

- 여러 가지광석에 축광 물질과 결합하여 생산된 가공석으로, 태양같은 광원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을 흡수 저장하였다가 저장된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데, 특정 파장대에 반응하여 발광하기에 지속적인 발광을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림 14 루미스톤 주간 야간

(2) 장점

- 유지비가 적고, 내구도가 강함
- 주간뿐만 아니라 우천시에도 관람 가능하며 광원이 없어도 자체발광
- 바닥 외에 벽체에도 시공이 가능

(3) 단점

- 정지 이미지만 표현할 수 있으며 세부묘사가 어려움
- 콘텐츠의 추가나 변형을 위해 재시공해야 함
- 도보 외에 차량통행로에 설치했을 경우 내구도 감소

(4) 껌보선창 적용 시설 제안

- 껌보선창 수문에서 국밥집 거리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 (물길이 존재했던 곳)



그림 15 껌보선창 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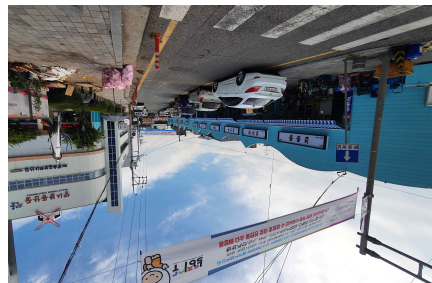


그림 16 돼지국밥집 골목

2.1.6 로고젝터

(1) 정의

- 전봇대, 가로등 등에 설치하여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 주는 장치로, 로고와 프로젝터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프로젝터와는 전혀 다른 물건으로서, 프로젝터는 입력된 영상신호를 투영하는데 비해 로고젝터는 LED조명으로 특정 내용이 담긴 이미지글래스에 새겨진 내용을 비춰 바닥에 투사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명장치에 가깝다.



그림 17 로고젝터1



그림 18 로고젝터2

(2) 장점

- 빔프로젝터 대비 크기가 작아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비용이 적음
- 바닥면이나 벽면에 국소부위만 투사함으로써 빛공해가 적음

(3) 단점

- 콘텐츠의 표현이 빔프로젝터에 비해 자유롭지 못함
- 정지화상 또는 이미지의 단순 움직임이나 슬라이드 형식으로만 표현 가능

(4) 껌보선창 적용 시설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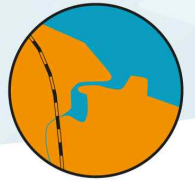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 껌보선창 수문에서 국밥집 거리 전구간 또는 일부구간
(물길이 존재했던 곳)



그림 19 껌보선창 수문



그림 20 돼지구밥집 골목



3. 꾀보선창 관광콘텐츠

3.1 꾀철도 활용방안

3.1.1 부두선 구간 무가선 관광트램

- 군산시는 꾀철도 활용방안 수립 용역 결과 꾀보선창 인근 철도가 1단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됨
- 2024년까지 동백대교~내항~꾀보선창~공설시장~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는 2.5km 구간 추진
-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박물관 방향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꾀보선창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21 무가선 관광트램 1구간 정거장 및 건물목 검토 초안

- 도시재생숲 철길 건물목과,경기화학 담장은 꾀보선창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점
- 트램을 타고 이동 중 관람할 수 있는 대형 벽화 등의 시설
- 철길 주변으로 바닥벽화, 트릭아트 등의 시설
- 디지털사이니지 운용으로 주간 시인성 확보
- 트램 운영 시간이 야간일 경우 프로젝션이나 야간조명 활용 가능

3.1.2 꾀보선창 관광콘텐츠 제안

(1) 개요 및 현황

- 꾀보선창 부근을 통과하는 구간을 적극 활용
- 트램 정거장에서 하차하여 꾀보선창으로 유입시킬 요소
- 꾀보선창 인근에는 어업과 관련된 상점이나, 어선과 관련된 공장들 위주로 관광객들의 유입 요소가 부족함
- 특히 철로 구간 주변은 인근 점주들로 인해 사유지화 되었고, 폐자재 등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 다수 존재
- 철로에서 꾀보스토리 1899까지는 250m 정도 거리가 있어, 트램 이용객들이 방문하기에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음
- 꾀보스토리 1899는 맥주를 취급하는 점포로써 낮시간동안 유동인구를 체류시킬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그림 22 철로 주변(경기화학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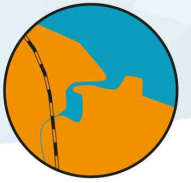
그림 23 철로 주변(도시재생숲 건널목)

(2) 꾀보선창 스토리텔링

- 한국최초의 근대수산학교가 꾀보선창 인근에 있었음
- 철길건널목 아래로 물이 흘렀고 꾀보선창을 통해 서해바다로 흘렀으며, 밀물 때 는 수위가 더 높아졌음
- 복개 전에는 도로가 아니었기에 건널목이 아니라 작은 철길 교량이라고 볼 수 있음
- 꾀보선창 인근을 통과하는 철길은 일제 강점기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쌀 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강탈해가기 위해 부설된 일제잔재임

(3) 위치 및 표현방법 제시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66에 위치한 경기화학 담장은 철로를 따라 40m 이상의 구간을 활용할 수 있음
- 담장에 선으로 된 드로잉 일러스트를 그려넣어 주간에 포토존 또는 정보전달의 매체로 활용
- 야간에는 담장의 드로잉 일러스트에 프로젝션 기법을 활용하여 컬러를 입히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



- 이동하는 트램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여 호기심 유발하여 꾀보선창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함
- 트램을 타고 이동하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철로 건너편에서 도보로 걸으며 관람할 수 있도록 산책로 또는 데크 등을 설치하여 노출 빈도 증대



그림 24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경기화학 담장)_주간



그림 25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경기화학 담장)_야간

- 전라북도 군산시 동신영길 85 인근
- 건물벽에 트릭아트 또는 루미스톤으로 물길을 표현하여 관광객들의 흥미 유도
- 트램이 물 위를 지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
- 관광객들이 물길을 따라 꾀보선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함
- AR을 구현한다면 꾀보스토리1899로 내비게이션 역할 가능



그림 26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도시재생숲 건물벽)-트릭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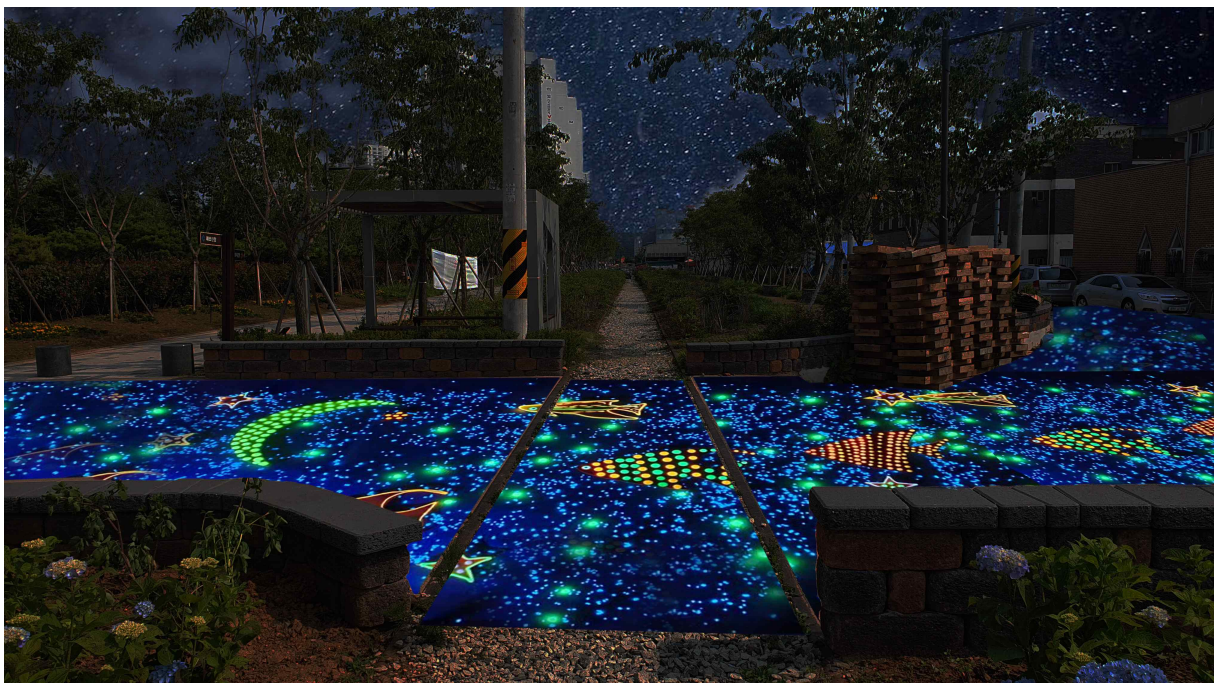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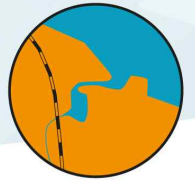


그림 27 철로 주변 활용방안 예시(도시재생숲 건물벽)-루미스톤



3.2 기존시설활용

3.2.1 짜보스토리1899

(1) 개요 및 현황

- 옛 군산수협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콘텐츠팩토리 등 입주
- 군산 흰찰쌀보리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 체험장이 1층에 위치
- 옥상 무대 등의 시설
- 맥주 단일 품목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에는 부족
- 매장 내·외부의 관광요소 필요
- 건물 앞 바다 조망이 양호하나, 폐바지선이 미관을 해침



그림 28 짜보스토리 1899 외부



그림 29 짜보스토리 1899 주변

(2) 짜보선창 스토리텔링

- 일제시대 어시장이 있었으며 연간 거래액이 현재가치로 250억원에 달함
- 어선이 배 댄 곳이 없을 정도로 뽁뽁하게 들어선 포구의 모습
- 지나가는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녔다는 속설
- 건물 뒤쪽으로 물고기를 실어나르기 위한 철길이 있었다는 이야기

(3) 위치 및 표현방법 제시

- 건물위치: 전북 군산시 해망로 146-24
- 짜보선창인심축제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짜보스토리 1899는 짜보선창의 중심지로써,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함
- 짜보스토리 1899 앞 쪽 부두는 사용을 금지시켜, 건물의 조망권 확보필요
- 내부에 짜보선창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등을 설치하여 맥주체험장 외에 즐길거리 제공
- 어시장 경매 등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게임, 등대에 고리던지기 게임 등을 개발하여 짜보선창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며 관람객들의 체류시간 증대

3.2.2 민야암 등대

(1) 개요 및 현황

- 1920년대 짚보선창 조성 후 1933년 최초 점등
- 민야암 주변 암초 제거공사가 몇 차례 이루어 짐
- 부두로부터 직선거리 약 200여 미터
- 만조 시 등대만 보이고, 간조 시에는 암초 위에 서 있는 등대를 볼 수 있음



그림 30 민야암등대



그림 31 민야암 등대

(2) 짚보선창 스토리텔링

- 바다와 맞닿아 있는 강 하구에, 암초에 세워진 등대는 드문 케이스
- 그만큼 짚보선창이 중요했음을 방증

(3) 위치 및 표현방법 제시



그림 32 기존시설(민야암등대) 활용방안 예시_워터스크린

- 짚보스토리1899에서 등대까지 거리가 상당하고 등대 크기가 작아 주변에 워터 스크린을 이용하여 복합적인 영상을 구현
- 민야암 등대에서 빛이 나오는 연출을 통해 바닥에 투사
- 만조와 간조에 따른 콘텐츠를 구분하여 재방문 유도
- 짚보스토리 1899 뿐만 아니라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일부 조망이 가능하게 하여 짚보선창으로 유입 유도

3.2.3 수문

(1) 개요 및 현황

- 꾀보스토리1899 앞
- 샛강 복개 후 설치됨
- 시설 보강 필요 및 여름철 악취 발생
- 보도블럭으로 물길을 형상화 했으나 하늘에서 보지 않으면 그림이 보이지 않음
- 수문 벽면은 안내지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



그림 33 수문 앞면



그림 34 수문 뒷면

(2) 꾀보선창 스토리텔링

- 샛강에서 꾀보선창으로 흐르는 물은 복개공사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닌 길 아래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음

(3) 위치 및 표현방법 제시



그림 35 기존시설(수문) 활용방안 예시_매직월

- 단순 이미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관광객의 터치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몰입도 증대

- 주간 및 야간 활용 가능하며 스탬프 투어 포인트로 지정하여 관광객 유입



그림 36 기존시설(수문) 활용방안 예시_강화유리바닥

- 강화유리로 꾀보선창의 모양을 형상화 하고, 그 아래에 하수가 아닌 맑은 물이 흐르도록 설치
- 모형 배 등을 넣어 당시의 번성했던 모습을 복원
-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대 조명과 싱크를 맞춰 더욱 현실감 있게 표현
- 수문 벽면의 활용 - 단순 정보 제공 또는 매직월 등의 콘텐츠와 병행 가능